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 셸링(F.W.J. Schelling)의 악 개념을 중심으로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이 창 용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 셸링(F.W.J. Schelling)의 악 개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정 창 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이 창 용

이창용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김 형 렬 (인)

부위원장 정 창 우 (인)

위 원 엄 성 우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행동 윤리학을 교육 분야 등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약점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도덕 철학적 정초의 부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셸링(F.W.J. Schelling)의 악 개념을 중심으로, 행동 윤리학과 셸링의 문제의식 및 악 개념 간의 의미 있는 공유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셸링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도출한다.

행동 윤리학은 평범한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나 의사결정의 원인을 심리적, 행동적 차원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학문적 시도이다. 초기의 행동 윤리학 관련 연구는 이러한 악의 원인을 기술적(descriptive) 차원에서만 다루었으나 이제는 행동 윤리학이 밝힌 악의 원인에 관한 설명을 교육, 정책,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처방적(prescriptive) 성격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행동 윤리학의 연구결과를 철학적 논의 없이 타 분야에 활용한다면, 콜버그가 지적한 '심리학자의 오류(psychologist's fallacy)'가 발생한다. 따라서 행동 윤리학의 악의 원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철학적 논의에 정초하여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의에서 파악한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작업은 다음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평범한 개인의 '존재 특질적', '가변적'인 비도덕성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행동 윤리학의 문제의식과 악의 성격을 공유할 수 있는 도덕 철학이어야 한다.

둘째, 초기 행동 윤리학이 합리성과 추론을 계발하는 전통적 도덕교육과 규범적 도덕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출현하였다는 점을 조명하면 행동 윤리학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의 도덕 철학적 정초의 과제가 주어진다.

셋째,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악의 원인'의 문제를 단편적인 '악'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양자를 철학적으로 구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도덕 철학적 정초가 요구된다.

넷째, 특히 이러한 '악'과 '악의 원인'에 관해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이와 동시에 '현실태로서의 악'에 관해서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 철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의에서는 '악의 형이상학'이라 평가받지만, 기존의 국내 도덕교육계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셸링의 도덕 철학의 주요개념을 앞선 5가지의 과제와 관련하여 이해하며 다른 철학적 정초 작업과의 비교를 통해 행동 윤리학의 셸링 철학적 정초 가능성을 부각한다.

첫째, 행동 윤리학의 '존재 특질적', '가변적' 악 개념은 셸링의 '형이상학적', '역동적' 악 개념과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평범한 개인의 악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떠올리게 하지만 한나 아렌트의 악 개념은 개인의 의지와 사유, 행동 등에 의한 극복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셸링적 '악의 평범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평범함이자 제거하기 쉽지 않은 유한성이라는 점에서 행동 윤리학의 악 개념과 더욱 깊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

둘째, 관념론과 실재론을 넘어서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려는 셸링의 동일철학에 기반한 도덕 철학은 전통적인 도덕 철학적 이론과는 또 다른 체계로서, 행동 윤리학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의 도덕 철학적 정초의 작업이다.

셋째, 셸링은 악의 원인 중 '무차별(Indefferenz)'에서의 '가능태로서의 악'을 창조성의 생산적 기반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긍정하는 철학을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는 스토아적 전통과 달리 인간 정념의 부정적인 현상과 그 원인에도 주목함으로써 '악'과 '악의 원인'에 관한 철학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며 악의 원인에 관한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악에 관한 경도된 해석의 쇼펜하우어와 이성을 정념에 종속시켜 이해하는 흄과 셸링을 비교하였을 때 셸링의 악 개념은 보다 균형있는 악에 관한 해석이다.

다섯째, 셸링은 라이프니츠 등의 전통적 악 개념과 달리 선과 악의 실재성과 능동성을 주장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상의 셸링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은 다음과 같은 도덕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먼저, 도덕적 메타인지에 함의를 갖는다. 셸링의 (좁은 의미의) 정신의 포텐츠는 메타인지의 개념 및 구조와 공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동 윤리학이 밝히고자 하는 악의 원인을 끊임없이 메타인지 해야 한다. 둘째, 행동 윤리학이 밝히고자 하는 악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하고 수동적인 개념으로만 취급하는 '파괴적 행동 윤리학'의 접근이 아닌, 무차별(Indefferenz)에서의 가능태로서의 악과 인간 유한성을 긍정하는 '회

복탄력적 행동 윤리학'에의 함의를 갖는다. 셋째, 셸링적 행동 윤리학은 이러한 도덕적 메타인지 개념과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도덕적 겸손함의 덕목으로 수렴시킨다.

다음, 셸링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은 구체적인 도덕교육에서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적 활용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넛지(nudge) 개념에 함의를 갖는다. 이는 교사의 관점에서 선한 행동으로 교묘히 유도되기보다 학생들이 도덕적 삶과 행동을 의욕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악에 관해, 학생들의 관점에서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넛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셸링의 유기체적 시간 개념에 따라, 이미 시간적으로 과거화된 비도덕적 행동을 사후 부검(post-mortem)하는 형태의 교육적 처방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미래화된 비도덕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부검(pre-mortem)하는 형태의 교육적 처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셸링의 포텐츠(Potenz)론에 따라, 선(善)을 낳는 것은 '선의 가능태'라는 점에서 악의 원인에 관해 주로 접근하는 행동 윤리학은 나름의 한계를 갖는다.

주요어 : 행동 윤리학, 셸링, 악, 악의 원인, 포텐츠(Potenz), 무차별(Indefferenz)
학 번 : 2021-29422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문제 ·····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8

제 2 장 행동 윤리학 도덕 철학적 정초의 예비적 고찰 ···· 11

제 1 절 행동 윤리학의 주요 개념과 한계 ····· 11

1. 행동 윤리학 연구의 문제의식 및 주요 연구 결과 ····· 11

2. 행동 윤리학에 관한 비판적 연구 ····· 20

제 2 절 행동 윤리학의 셸링 철학적 정초 필요성 ····· 23

1.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과제와 셸링 철학의 적합성 ···· 23

2. 셸링철학의 도덕과 악 개념의 정리 ····· 27

제 3 장 행동 윤리학의 셸링 철학적 정초 탐구 ···· 33

제 1 절 행동 윤리학의 문제의식과 악의 성격의 공유 과제 ··· 33

1. 행동 윤리학과 셸링의 문제 의식 및 악 개념의 공유 가능성 ·· 34

2. 평범한 개인의 악에 관한 한나 아렌트와의 비교 ····· 38

제 2 절 새로운 도덕 철학적 정초의 과제 ····· 41

1. 셸링 도덕 철학의 기초로서 동일성(Identität) 개념 ····· 41

2. 레비나스적 행동 윤리학에의 도전 ····· 49

제 3 절 악과 악의 원인의 철학적 구분 및 보편적 해석의 과제 ··· 54

1. 셸링의 포텐츠(Potenz) 개념과 악의 발생 원리 ····· 55

2. 가능태로서의 악에 관한 스토아적 이해와의 비교 ····· 61

3. 쇼펜하우어 및 흄의 악 개념과의 비교 ····· 66

제 4 절 악의 도덕적·윤리적 책임 근거의 과제 ····· 67

1. 셸링의 자유(Freiheit) 개념과 가능태로서의 악 ····· 67

2. 전통적 악 개념과의 비교 ····· 71

제 5 절 셸링 철학에 관한 비판과 극복 가능성 ····· 75

1. 무차별(Indefferenz)에 관한 오해와 해소 ····· 75
2. 과도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의 문제와 극복 가능성 ····· 78

제 4 장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 80
제 1 절 셸링적 행동 윤리학 악 개념의 도덕교육적 함의 ··· 80
1. 도덕적 메타인지(moral metacognition)에의 함의 ····· 80
2. 도덕적 회복탄력성(moral resilience)에의 함의 ····· 89
3. 도덕적 겸손함(moral humility)에의 함의 ····· 95
제 2 절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활용 ····· 101
1. 도덕교육에서의 넛지(nudge) 활용에의 함의 ····· 101
2. 사전부검식(Pre-Mortem) 행동 윤리학 활용에의 함의 ····· 105
3. 셸링 선(善) 포텐츠 개념에 따른 행동 윤리학 접근의 한계 ···· 111

제 5 장 결론 ····· 113

참고문헌 ····· 118
Abstract ····· 128

표 목 차

[표 1] 전통적 도덕교육과 행동 윤리학의 비교 ····· 17
[표 2] 행동 윤리학의 입문 ····· 19
[표 3]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과제에 따른 셸링 철학적 응답 ··· 24
[표 4] 셸링 동일 철학의 이해 ····· 44
[표 5]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레비나스적 행동 윤리학에의 도전 53
[표 6] 스토아 학파의 입장에 따른 정념 체계 ····· 63
[표 7] 셸링 철학에 따른 스토아 정념 이해의 변형 ····· 64
[표 8] 도덕적 메타인지를 촉진하는 도덕적 실패 원인 검토 질문지 ·· 85
[표 9] 회복탄력적 행동 윤리학 활용의 예 ····· 93
[표 10] 프리-모템(Pre-Mortem)의 도덕교육적 활용 방안 ····· 110

그 림 목 차

[그림 1] 윤리적 의사결정의 장애 요인 ····· 18
[그림 2] 무의식-의식-행동 단계에 따른 악의 가능태의 성격 31
[그림 3-1] 근원적 의식의 무제약적 동일성 ····· 46
[그림 3-2] 셸링의 관념론적 접근: 초월 철학 ····· 47
[그림 3-3] 셸링의 실재론적 접근: 자연 철학 ····· 47
[그림 3-4] 셸링의 동일철학 ····· 48
[그림 4] 세계 시스템의 진화적 변증법 ····· 57
[그림 5] 셸링 인격성의 포텐츠 구조 ····· 58
[그림 6] 마음의 삼중 구조 ····· 82
[그림 7] 사고의 이중처리 구조와 메타인지 ····· 83
[그림 8] 셸링 (좁은 의미의) 정신의 포텐츠 구조 ····· 83
[그림 9] 악의 원인 - 도덕적 고통-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구조 91
[그림 10] 도덕적 겸손함의 수준 ····· 96
[그림 11]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도덕적 겸손함의 구조 ··· 99
[그림 12]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구조 ··· 105
[그림 13] 프리-모템(Pre-Mortem) 기법의 소개 ····· 109

약 어 표

본문에서 셸링의 저서는 다음과 같이 약기하고, 인용 시 내주로 괄호 안에 약어와 페이지 수를 함께 표기함.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üb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iet und die damit zusammenhängenden Gegenstände(1809): Wmf

Stuttgarter Privatvorlesungen(1810): SP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지난 20여년 동안의 행동 윤리학(behavioral ethics)[1]의 연구결과는 심리적, 상황적, 사회·조직적 압력 등의 이유로 인간이 비합리적, 비도덕적인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기 쉬운(morally fallible) 존재임을 보여준다(Smith & Kouchaki, 2018: 77). 이는 인지 편향(cognitive bias) 개념이나 반두라(A. Bandura)의 도덕적 이탈이론(moral disengagement), 하이트(J.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모델 등과[2] 같이 인간을 충분히 합리적

---

1) 행동 윤리학은 기존의 도덕교육 및 도덕심리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악의 문제에 주목하여 평범한 개인들이 저지르는 비도덕적 행위나 의사결정의 심리적·행동적 기제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2000년대 초 미국의 AIG, Enron 기업 등의 비즈니스 스캔들과 금융위기의 문제에서 촉발된 행동 윤리학은 결코 나쁜 의도를 가진 악인(惡人)들만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한다. 오히려 행동 윤리학은 미국의 역사적인 폰지 사기 사건의 주동자인 버니 매도프(Bernie Madoff)와 같이 능력이 출중하고 평판도 좋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저지르는 악의 원인이라든지 적어도 나쁜 사람이라 단언할 수 없는 평범한 개인들이 저지르는 악의 원인에 관한 해명을 시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동 윤리학은 2003년 팔저(Folger)를 시초로 2006년 트레비노와 동료들, 2008년 텐브런셀과 스미스-크로우의 연구를 거쳐 2010년 비즈니스 윤리학 학술지에서 행동 윤리학의 특집호가 출간되고 이후 비즈니스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에 게재되며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분야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De Cremer & Tenbrunsel, 2012: 121-122).

2) 국내에서의 '행동 윤리학(behavioral ethics)'의 용어는 국내 행동 윤리학 논의의 시초격인 김영욱·김희라(2014)나 추병완(2021a) 등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며, 주로 해외 비즈니스 분야를 중심으로 행동 비즈니스 윤리학(behavioral business ethics)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행동(behavior)'과 '윤리학(ethics)'의 조합은 행동 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는 선례에 따른 신조

이지 않은 존재[3]로 이해하는 학문적 흐름과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동 윤리학은 도덕교육에서 방법론적으로 풍부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가령, 학생들에게 비도덕적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제를 행동적·심리적 차원에서 설명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도덕적 오류 가능성을 깨닫게 하고 도덕적 겸손함(moral humiltiy)을 함양하는 것이다. 최근의 행동 윤리학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비도덕적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제를 더이상 기술적(descriptive)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규범적인 이론화(normative theorizing)에 관여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Tenbrunsel & Smith-Crowe, 2008).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어떻게 '사실이 당위'로 넘어갈 수 있느냐[4]의 문제이다(Ellerston et al., 2016: 146).[5]

가령, '나'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인지편향의 오류가 있고 그것이 사후확신편향(hindsight bias)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행동 윤리학 관련 연구들은 '왜 사후편향을 교정해야 하는지', '그것을 극복하고 도덕적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인지편향이 인간 존재에게 어

어이며, 넓은 의미에서 행동 윤리학은 인류학, 동물학, 신경과학, 생물학, 진화론, 실험철학 등의 활용을 포함한다(De Cremer & Tenbrunsel, 2012: 196).

3) 그렇다고해서 행동 윤리학이 인간을 결코 비합리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행동 윤리학은 인간 존재를 먼저 규정하기보다 행위 차원의 심리적·행동적 기제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인가?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는 규정하에 내면의 비합리성과 어둠의 원리의 유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듯,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의 과제는 이러한 인간 존재의 '합리성-비합리성', '선-악'의 문제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행동 윤리학이 정초할 수 있는 잠재성이 셸링(F.W.J. Schelling)의 도덕 철학에 있다고 보아 본 연구를 시작한다.

4) 이는 스코틀랜드 철학자 흄(D. Hume)의 길로틴(guillotine) 또는 법칙(law)으로, "사실'에서 '당위'로(The 'is' to 'ought' dillema)'의 문제제기이다. 흄은 기술적(descripitve)인 명제와 규정적(prescriptive)인 명제 사이의 논리적 연결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5) 엘러스턴과 동료들(Ellerston et al., 2016)이 제기한 문제, 즉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의 부재'라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인간은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결코 답을 주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를 도덕교육에 적용할 때 인간은 비합리성을 지녔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학생을 강제로 교화하거나 가치 주입의 객체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6] 이러한 문제는 콜버그가 지적했던 심리학자의 오류(psychologist's fallacy)[7]와도 같다.

콜버그(Kohlberg, 1981: xi-xiii)는 도덕심리학이 가령 '덕은 가르쳐질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도덕 철학은 '덕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라 보았다. 콜버그가 지적한, 심리학자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덕 철학적 물음의 해명 하에 도덕심리학의 물음이 성립해야한다(윤영돈, 김남준, 2008: 128-129).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동 윤리학 관련 연구들은 도덕심리학, 도덕발달론과의 결합만을 강조하여, 본질적인 인간 이해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놓쳐왔다(Ellerston et al., 2016: 145). 따라서 지금까지의 행동 윤리학의 연구흐름이 '악의 원인을 가르칠 수 있는가'를 물어왔다면 앞으로는 도덕 철학적 관점에서 '악(또는 악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행동 윤리학의 활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도덕 철학적 정초의 과제를 설정한다.

첫째, 행동 윤리학에서 주목하는 악은 소위 나쁜 의도를 갖고 나쁜 사

---

6) 가령, 도덕교육에서의 넛지(Nudge)적 접근이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경호(2018)의 논의에서 보완적인 수준의 넛지적 접근이 도덕교육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듯이, 넛지적 접근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된다면 개인의 자유의지를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관해 이후 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한다.

7) 콜버그는 도덕심리학의 물음은 도덕 철학의 해명 후에 도덕교육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지 도덕 심리학의 관점에서 도덕교육을 논의한다면 이는 심리학자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의 오류란 심리학적 기능에 관한 기술(descriptions)로부터 교육적 처방(prescriptions)을 도출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Kohlberg, 1981: 4). 콜버그는 자신의 3수준 6단계의 도덕발달론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불변의 계열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칸트의 형식윤리학과 롤스의 정의원리를 자신의 도덕발달론과 결합하였다(김진, 2011: 57).

람이 저지르는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개인이 의도하지 않고 비도덕적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행동 윤리학적 악은 평범한 개인의 '존재 특질적', '가변적' 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평범한 개인의 악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행동 윤리학의 독특한 문제의식과 악에 관한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덕 철학적 정초의 과제가 주어진다. '존재 특질적'이라는 용어는 자칫 행동 윤리학이 비도덕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아해할 수 있으나 행동 윤리학의 연구결과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실패하기 쉬운(morally fallible)(Smith & Kouchaki, 2018: 77) 존재임을 드러내는, 즉 '존재의 특질'에 관한 결과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적절할 수 있다. 가령, 인지편향의 가능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밖에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이자 존재의 특징인 것이다.

둘째, 초기 행동 윤리학이 합리성과 추론을 통해 도덕성을 계발하는 전통적 도덕교육 및 규범적 도덕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출현했다는 점에서 행동 윤리학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의 도덕 철학적 정초의 과제가 주어진다. 행동 윤리학이 기존의 도덕 철학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출현한 도덕심리학적 계열의 연구분야(Bazerman & Tenbrunsel, 2011: 32-50)인 점을 고려하면 행동 윤리학을 도덕 철학적으로 정초하려는 접근은 언뜻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행동 윤리학이 정초할 셸링(F.W.J. Schelling)적 '악의 형이상학'은 궁극적으로 도덕심리학의 문제와 맥락을 같이한다(Kosch, 2021: 410). 코시(Kosch, 2021: 412)에 따르면 셸링이 악을 합리성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던 점이나 악에 관한 인간의 지적원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보았던 점은 오늘날 도덕심리학의 접근방식과도 유사하다.

또한 행동 윤리학이 비판 대상으로 삼았던 전통적 도덕 철학은 의무론적 접근 및 공리주의적 접근 또는 덕 윤리적 접근에 해당한다(Smith & Kouchaki, 2018: 82). 반면 역사적으로 규범적 도덕 철학이 주류인 시대에서 셸링의 도덕 철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규범적 도덕 철학이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이해하고 '무엇이 선인가'에 관한 논의에 주목할 때(노양진, 2015) 셸링은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간의 악과 비합리적 측면에 주목하였다(박영선, 2007; 이광모, 2016)는 점에서 행동

윤리학의 셸링철학적 정초 가능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동 윤리학을 타분야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행동 윤리학적 '악'과 '악의 원인'을 구분하여 해석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가령 행동 윤리학의 연구는 '악의 원인'을 개인적, 사회·조직적, 상황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행동 윤리학의 주요 연구결과 및 개념인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Chugh, Bazerman, & Banaji, 2005)이나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Bandura, 1996), 윤리적 퇴색(ethical fading)(Tenbrunsel & Messick, 2004) 등은 평범한 개인이 나쁜 행동에 빠지는 원인을 밝힌 연구이다. 제도나 기관이 부패해서(instutionalized corrupion)(Baucus, 1994; Ashforth & Anand, 2003; Rodriguez, Uhlenbruck, & Eden, 2005), 타인에게 책임 전가 가능한 상황(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이라서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동은 사회적,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악의 원인에 관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아침보다 오후에 자기 통제력이 떨어져 비도덕적 행동을 하기 쉽다든지(Kouchaki & Smith, 2014) 주변이 어둡거나(Zhong, Bohns, & Gino, 2010) 심지어 공기가 오염(Lu, Lee, Gino, & Galinsky, 2018)되어 비도덕적 행동을 하기 쉽다는 연구결과는 악의 원인 중 상황적 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도덕적으로 실패하기 쉬운 존재임을 밝히는 즉,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Smith & Kouchaki, 2018: 79).

한편, 이러한 행동 윤리학이 밝힌 인간의 유한성에 관한 탐구는 비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과 관련한 것이지 현실에서의 선이나 악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다. 또한 '악의 원인'은 그 자체로 인간의 유한성을 기술(descripitve)한 것이지 비도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동 윤리학을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관련 연구(Prentice, 2014a; 문경호, 2018; 추병완, 2021b)에서는 악의 원인에 관한 철학적 해석의 연구보다 이성을 통해 편향을 줄여야 한다고 보거나 인간의 비합리성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연구가 주로 이어져 왔다.

인간의 유한성에 관한 해석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를 부정

적으로만 인식하고 제거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은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가 작동할 수도 있다.[8] 밀러와 라트너(Miller & Ratner, 1998)도 인지적 편향을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하고자하면, 타인만 그러한 편향에 빠져있고 자신은 그러한 편향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오만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동 윤리학을 도덕교육에 적용하기 전, 대뜸 자신의 민낯과 치부를 직시하라는 타인의 충고를 진심으로 새겨들을 수 있는 이는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동 윤리학이 평범한 인간의 악을 마주하고 밝혀낸 인간의 유한성(악의 원인)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 나름의 긍정성을 발견하거나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이 가능해야하고 이에따라 자율적인 인격 도야를 가능하게 하는 도덕교육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한편, 이러한 악의 원인이나 악에 관한 긍정적 해석이 지나친다면 '악의 원인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합리화가 이루어지거나 인지편향에 굴복하는 것에 안주할 수도 있다. 스미스와 카우차키(Smith & Kouchaki, 2018: 79-80)도 도덕적 겸손함(moral humility)의 요소 중 하나로, 자신의 도덕적 오류가능성(moral fallibility)을 인식하는 것을 제시하고 이러한 인간적 유한성에 관한 인식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극단적인 상대주의(extreme moral relativism)와 같은 도덕적 혼동(moral confusion)과 합리화(rationalization)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악의 원인에 관한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의 과제가 요구된다.

다섯째, 이와 동시에 '악의 결과'에 관해서는 도덕적·윤리적 책임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도덕 철학이 필요하다. 악의 가능성과 악의

---

8)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자아가 겪는 심리적 상처를 막고자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속이거나 회피하는 사고 및 행위이다(홍유신. 2016: 314). 안나 프로이트는 9개의 방어기제를 설명하는데 가령,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이나 그 원인에 거부감을 느끼고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부인(denial) 혹은 부정(不定) 방어기제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으며, 비도덕적 행동이나 결정을 직시하라는 타인의 충고에 충격을 받거나 고통을 느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억압(repression)이라 볼 수 있다(천성문 외, 2015: 114-116).

현실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악의 가능성에 관한 해석과 별개로 악의 현실에 대해서는 마땅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본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콜버그가 양립주의(parallelism)를 말하며 칸트와 롤스에 자신의 도덕발달론을 정초하였듯이(Power et al., 1989) 본 연구도 행동 윤리학이 정초할 수 있는 도덕 철학을 탐색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니체가 '인류 이래로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두운 심연을 본 철학자'라 평하고 하이데거가 독일 관념론의 두 정점 중 하나로 보았으며, 그의 철학을 '악의 형이상학(M. Heidegger, 1971: 159)' 이라 지적한, '셸링(F.W.J. Schelling)' 철학[9] (Ostaric, 2014: 3)에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가능성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부재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론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그동안 국내 도덕교육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셸링 철학을 재조명 함으로써 셸링 도덕 철학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또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행동 윤리학의 토대를 셸링 철학에 놓을 수 있을 때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겠다.

---

9) 국내 도덕교육계에서는 셸링(F.W.J. Schelling, 1775-1854)의 도덕 철학은 크게 주목받지 않아온 것이 사실이다. 오랜기간 동안 독일 철학 내에서도 셸링 철학은 칸트, 피히테와 헤겔 사이의 징검다리 정도로만 이해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Ostaric, 2014: 2).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20세기 전후로 인간 존재를 합리성에만 기반하여 이해한 근대론적 사고에 치를 떨게 되며 '셸링 르네상스(Schelling Renaissance)' 현상이 등장한 바 있다. 하이데거(M. Heidegger), 발터 슐츠(Walter Schulz), 디터 예니히(Dieter Jähnig) 등에 의해 셸링 철학의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영미권에서도 셸링 르네상스가 다루어졌다. 발터 슐츠(W. Schulz)에 따르면 셸링은 독일 관념론의 완성자이며 틸리에뜨(X. Tilliette)에 따르면 칸트-피히테-셸링-헤겔로 이어지는 가문과 같은 생각은 철회되고(조영준, 2009: 174-176) 셸링은 독일 관념론 내의 독창적인 철학자이자 관념론 내에서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철학자라는 것이다(Ostaric, 2014: 3).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앞선, 1절에서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문제의식 및 연구배경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이 행동 윤리학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도덕 철학적 정초의 부재'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셸링 철학적 정초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도덕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과 비교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본 논문의 2장 1절에서는 행동 윤리학의 주요 개념과 한계를 살펴본다. 행동 윤리학과 관련 연구는 크게 악의 기제를 밝혀내고자 한 연구결과물들과 이를 교육분야 등에 활용하거나 행동 윤리학의 접근에 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문헌 등이 있다. 행동 윤리학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장 2절에서는 행동 윤리학의 활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도덕 철학적 정초의 과제를 다루고 셸링 철학의 적합성을 다룬다.

본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장에서는 셸링 철학의 문제의식과 악에 관한 주요 개념 및 철학적 배경을 행동 윤리학의 그것과 관련지어 이해하며 셸링철학과 다른 도덕 철학을 비교함으로써 행동 윤리학의 셸링 철학적 정초가 더 나은 대안임을 입증한다. 셸링 철학의 주요 개념은 셸링 관련 원전 및 국내·외 번역본과 2차 문헌을 활용하여 살펴본다. 셸링의 도덕 철학은 초기 자연철학과 동일철학의 기반 위에서 등장하고 셸링은 도덕 철학 이후 신화철학과 계시철학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관련 문헌도 다루지만 도덕 철학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후기 셸링의 『자유론』[10]과 『슈투트가르트 개인강의』 원전 및 2차 문헌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3장 1절에서 행동 윤리학이 평범한 개인이 무심코 저지르는 악에 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 비추어, 행동 윤리학의 문제의식과 악의 평범성에 관한 셸링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한나

10) 원제 『인간 자유의 본질과 그와 연관된 대상들에 대한 철학적 탐구』이다. 이하 Wmf로 약식 표기함.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과 비교한다. 3장 2절에서는 행동 윤리학이 기존의 전통적 도덕 철학을 비판하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덕 철학적 정초의 과제를 다룬다. 80년의 지난한 생애 동안 셸링이 격렬히 투쟁한 유일한 입장은 기존의 관념론과 실재론, 칸트 및 피히테 철학을 넘어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악을 설명하기 위한 여정이였다. 이를 위해 인간 존재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등에 관한 일관된 철학적 설명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주목하면, 셸링의 동일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엘러스턴과 동료들(Ellerston et al., 2016)이 제시한 레비나스적 행동 윤리학에 도전함으로써 셸링 철학이 행동 윤리학의 더 나은 철학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3장 3절에서는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악과 행동 윤리학이 규명하고자 하는 악의 원인에 관한 철학적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관해 요구되는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의 과제를 다룬다. 이러한 맥락에서 셸링의 악의 발생 원리에 관한 철학적 설명에 비추어 스토아적 이해와 비교하고 악에 관한 경도된 해석의 쇼펜하우어 및 흄의 입장과 비교한다. 3장 4절에서는 라이프니츠와 같은 악에 관한 전통적 논의들과의 비교를 통해 셸링 철학이 도덕적·윤리적 책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3장 5절에서는 셸링 철학의 일부 개념에 관한 오해를 해소하고 셸링 철학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극복한다.

본 논문 4장에서는 셸링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다룬다. 먼저 4장 1절에서는 도덕적 메타인지에 관한 함의를 살펴본다. 셸링의 주요 철학 개념과 악의 발생 원리에 관한 철학적 설명은 도덕적 메타인지의 개념 및 구조와 의미있는 공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행동 윤리학이 밝히고자 하는 실재하는 악의 원인의 위협성에 대해 메타인지를 통한 사고(思考)행위 및 자기 행동 양식의 관찰이 필요하다. 이후 도덕적 회복탄력성 개념에의 함의를 살펴본다. 셸링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은 인간적 본능이나 유한적 측면을 제거하거나 부정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여 이에 관해 파괴적 형태의 처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을 창조성과 긍정성의 기반으로 삼는 ‘회복탄력적

행동 윤리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도덕적 메타인지와 도덕적 회복탄력성 개념을 적절한 수준의 도덕적 겸손함의 관점에서 종합하는 것으로 도덕교육적 함의를 도출한다.

4장 2절에서는 도덕교육에서 셸링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최근 넓은 의미에서 행동 윤리학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 넛지(Nudge)적 접근은 개인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도덕교육 방법이 될 수 없지만 교사의 관점이 아닌 학생의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보완적인 수준에서 넛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후, 셸링의 유기체적 시간 개념에 따라, 이미 지나간 도덕적 실패 상황만을 소재로 사후 부검(post-mortem)하는 행동 윤리학적 접근은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발생하지 않은 도덕적 실패 상황을 상상해봄으로써 사전 부검(pre-mortem)[11]하는 교육활동을 구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셸링의 포텐츠론에 따르면 행동 윤리학의 접근은 인간 내면의 악의 기제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악을 회피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더 큰 도덕적 선함을 낳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끝으로 결론에서 본 연구 이해의 유의점과 연구 내용을 복기해보며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

11) 일반적으로 사후 부검(post-mortem)은 의료 용어로서, 환자의 사망 후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시체를 부검하는 작업을 뜻한다. 사후 부검(post-mortem)은 유전적 동질성을 가진 생존한 가족들이나 의료계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이미 고인이 된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리 클라인(G. Klein)은 이러한 의료 용어를 인지 과학·심리학 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대안으로서 프리모템(pre-mortem) 방식을 제안하였다. 가령 팀 프로젝트가 이미 실패하고 난 후 그 원인을 파악하는 방식이 사후 부검(post-mortem)과 같다면 프리 모템(pre-mortem) 방식은 성공적인 팀 프로젝트를 위해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미리 실패를 전제하고 그 원인을 추측해 본다는 의미에서 사전 부검(pre-mortem)과 같은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제 2 장 행동 윤리학 도덕 철학적 정초의 예비적 고찰

제 1 절 행동 윤리학의 주요 개념 및 한계

1) 행동 윤리학 연구의 문제의식 및 주요 연구 결과

평범한 인간의 심리적·행동적 악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는 행동 윤리학의 연구결과는 전통적인 도덕교육에서의 추론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방식과 대비된다. 콜버그, 레스트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도덕 교육방식은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만, 행동 윤리학자들이 포착한 현실은 평범한 인간들의 비합리성과 악의 문제다. 행동 윤리학이 비판하는 전통적인 도덕교육은 주로 규범적, 규정적 접근법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행동 규정(Jones, 1991; Messick & Tenbrunsel, 1996; Rest, 1986; Treviño & Weaver, 1994)이며 전통적 도덕교육은 콜버그 식의 추론 능력의 계발을 도덕성의 발달로 이해하여(Kohlberg, 1981) 소위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이해된다(De Cremer & Tenbrunsel, 2012: 22). 도덕적 행동은 개인의 도덕적 단계와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Gibbs, Basinger, & Fuller, 1992: Rest & Narvaez, 1994)이며 일체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조건이 아닌 개인의 도덕적 단계가 도덕적 행동을 담보한다(Kohlberg, 1981: 25). 그러나 정규교육을 통해 합리성을 잘 계발하여 성장한 소위 사회 지도층의 비윤리적 행동은 합리성의 부족에 기인한 문제인가? 또는 비합리성과 내면의 악으로 가득찬 악인(惡人)들만이 비도덕적 행동을 하는가?

국내의 행동 윤리학 논의 관련 연구자인 김영욱·김희라(2014, 257-258)도 "윤리의 문제를 사람의 의도로만 연결"하고 자신의 티끌은 보지 못하며 타인의 흠은 쉽게 발견하는 현실문제에 공감하였으며, 추병완(2021a: 4-7)도 "도덕성에 대한 작금의 이성주의(합리주의)적 설명에 경도"되어, 행동 윤리학이 도덕심리학에서의 합리주의 모델의 약점을 보

완해줄 것으로 기대를 표한바 있다. 이렇듯, 세계와 인간을 합리성의 기반 위에 두고 이해하려 한 전통적인 방식은 그것의 체계 내에서는 완결된 논리와 체계성은 보여줄지 몰라도 세계와 인간 현실에서 발생하는, 합리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도덕 분야에서 인간 존재의 특질과 행동양식의 원인을 정립하려고 시도하는 경험적 학문 분야가 넓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이다. 엘러스턴과 동료들(Ellerston et al., 2016)은 행동 윤리학을 넓은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은 최근 뇌과학 및 신경과학, 인지심리학의 연구와 진화심리학부터 도덕 심리학 분야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이중처리 이론, 반두라의 도덕적 이탈이론(moral disengagement), 밀그램(Millgram) 실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실험철학 등까지 포함하여 악의 원인을 추출한 연구분야를 의미한다.

가령, 넓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과 관련한 대표적인 반두라의 도덕적 이탈이론(moral disengagement)은 도덕적 기준이 특정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Bandura, 1999: 193-209, Moore, 2015: 199-204; 정창우, 2022에서 재인용)이며 흔히 양심이 특정 상황에서는 자신의 행위와 분리되거나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두라는 도덕적 이탈 기제를 ①도덕적 정당화, ②유리한 비교, ③완곡한 표현, ④결과에 대한 축소·무시·왜곡, ⑤비인간화, ⑥비난의 귀인(귀속), ⑦책임의 전가, ⑧책임의 분산이라는 8가지의 기제로 설명한다.[12)]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반두라의 도덕적 이탈이론은 비도덕적 행동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좁은 의미의 행동

---

12) 가령, 반두라의 도덕적 이탈 이론 중 완곡한 표현 기제는 같은 행위이더라도 언어적 표현을 다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피하는 방식이다. 감비노(Gambino, 1973: 15-17)는 다양한 완곡어법을 설명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잔혹 행위'는 '쓰레기 처리'로 비유하거나 '폭격임무'를 '목표를 수행한다.' 등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해로운 행위에 관한 도덕적 정당화를 가능케 한다. 도덕적 이탈이론 기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반두라(Bandura, 2016: 75-103) 또는 정창우(2022, 17-33)의 내용을 참조할 것.

윤리학의 관점이라기 보다 비도덕적 행동을 하고나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과정일 수 있다.[13] 그러나 삶이라는 연속적 과정에서 보았을 때(Bandura, 2002: 115) 죄책감이라는 내적 제재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삶의 이른 시기부터 발생하는 도덕적 이탈이 또다른 비도덕적 행동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덕적 이탈이론 또한 비도덕적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흔히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의 속담과 같은 맥락으로 초기의 도덕적 이탈 행위가 이후의 비도덕적 행동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다른 넓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인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The social Intuitionist Model)의 대표적인 하이트의 도덕심리이론이 있다. 이에따르면 사람들은 숙고에 걸쳐 도덕적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닌 빠르고 자동적인 도덕적 직관에 따라 판단한다. 하이트가 말하는 도덕성은 생물학적 진화 시스템에 기반한 6가지의 도덕적 모듈(①배려/피해, ②공정성/부정, ③충성심/배신 ④권위/전복 ⑤고귀함/추함 ⑥자유/압제)에 따라 판단하는 도덕적 기반이론(Moral Foundations Theory)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슷한 도덕적 기반에 근거를 둔 사람들끼리는 뭉치고 다른 집단은 배척한다(정창우, 2022: 49-51).

하이트의 인간 이해는 주로 스코틀랜드의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D. Hume)에 근거하며 인간의 이성능력과 정서, 직관의 관계를 '코끼리(정서, 직관)를 탄 기수(이성)'로 이해한다. 하이트 이론은 인간의 직관적, 자동적, 무의식적 의사결정의 영향력과 인간 심리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한다는 의미에서, 비도덕적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좁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하이트가 정초한 도덕 철학적 작업은 오히려 지나치게 인간의 단면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Lind, 2017: 46-47, 정창우, 2020: 194; 정창우·석자춘, 2017: 69, 정창우, 2022: 48).

---

13) 스미스와 카우차키(Smith & Kouchaki, 2018)도 행동 윤리학의 주요 접근 중 하나로 도덕적 이탈 이론을 예로 든다. 이들에 따르면 도덕적 이탈 이론은 주로 도덕적으로 오만한 사람이 비도덕적 행동을 하고 난 후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심리현상이다.

하이트는 진화 시스템에 근거한 도덕기반이론을 설명하고 인간의 자동적, 직관적 심리현상에 관한 날카롭고 명쾌한 도덕심리학적 접근으로 오늘날 크게 주목받는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지만 하이트 이론이 정초한 도덕 철학은 지나치게 인간의 직관적, 감정적 측면의 단면만을 강조함으로써 하이트는 그만큼 많은 비판이 따르는 학자 중 한 명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하이트 이론의 한계를 조명하면 행동 윤리학의 새로운 도덕 철학적 정초가 더욱 필요하다.

한편, 좁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은 실제 행동 윤리학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드 크리머(D. De Cremer), 턴브런셀(A. E. Tenbrunsel), 베이저만(M. H. Bazerman), 프렌티스(R. Prentice) 등의 학자들로 대표되며 이들의 행동 윤리학의 주요 핵심 개념에는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과 윤리적 퇴색(Ethical Fading) 등이 있다. 행동 윤리학 관련 연구들의 공통된 가정은 첫째, 도덕성은 개인의 안정된 특질(stable trait)이 아닌 역동적(dynamic), 가변적(malleable)인 개념이며 둘째, 개인이 타인에게 도덕적으로 보이고 싶은 기대나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믿는 신념과 달리 개인은 숱한 도덕적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결정에 도덕적 이슈를 인식하지 못하며 끊임없는 비도덕성에의 유혹(temptation)을 받는다는 것이다(Gino, 2015: 107-108).

지노(Gino, 2015)의 행동 윤리학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의도적인 부정직(intentional dishonesty)과 의도하지 않은 부정직(unintentional dishonesty)이 있고 전자는 주로 윤리적 퇴색(ethical fading)과 관련하며 후자는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과 관련 있다. 의도적인 부정직(intentional dishonesty) 개념은 일반적인 도덕에 관한 설명방식인,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개념을 포함하지만,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의도적 부정직(intentional dishonesty)은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악'한 행동임을 인지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을 포함한다. 반면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은 애초에 특정 상황이 윤리적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직(unintentional dishonesty)이자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뜻한다(추병완,

2021a: 6-7). 이처럼 개념상으로는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 윤리적 퇴색(ethical fading), 의도적인 부정직(intentional dishonesty)의 용어가 구분이 가능하지만 관련 행동윤리학이 제시하는 실험 결과를 살펴볼 때 각각의 개념이 실험결과와 상응하는 관계라기보다 상황과 요소 등에 따라 개인의 제한된 윤리성, 윤리적 퇴색, 의도적 부정직의 특질을 보여주고자 제시하는 연구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다.

다나와 동료들(Dana et al., 2012: 305-320)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윤리적이지 않아서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윤리적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를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책임 확산, 불확실성 활용, 정당화 추구라는 세 가지의 윤리적 면책(ethical immunity)의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윤리적인 사람이 오히려 윤리적 실패를 경험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즉, 단지 사람들은 자신의 특정 상황에서의 이기심만을 충족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존재하며, 특히 윤리적으로 보이고 싶은 일종의 평판, 도덕적 자아 등의 요소가 윤리적 면책(ethical immunity)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모닌과 조던(Monin & Jordan, 2009) 또한 도덕적 자아를 콜버그식의 안정적 특질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역동적이며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개념임을 강조한다. 가령, 고전적인 실험 결과로 밀그램 실험(Milgram, 1974)이나 짐바르도의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Zimbardo, 1969)을 예로 들 수 있다. 밀그램의 실험에 따르면 실험의 참가자들은 실험 조교에 의해 앞에있는 학습자가 단어 학습에 실수할 때마다 더 높은 전압의 충격을 주도록 요청 받는다. 참가자들은 분명히 학습자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볼 수 있고 그들의 통곡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참가자들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실험 조교라는 권위자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비윤리적 행위를 선택했다.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의 학부생들은 2주간 모의 교도소 환경에서 교도관과 수감자라는 임의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교도관의 역할을 맡은 학부생들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하였으며

수감자 역할을 맡은 학생은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고전적 실험은 상황적 조건이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러한 행동 윤리학에서 파악하는 도덕적 자아의 '역동성', '가변성'의 특징은 비윤리적인 타인의 행동이 오히려 도덕적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노와 동료들(Gino et al., 2009)은 비윤리적 행동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들은 타인의 비윤리적 행위가 개인의 비윤리성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도덕성을 현저하게 만드는 상황을 유발하여 반대로 더 많은 윤리적 행동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견한다. 즉,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라 타인이 특정 개인의 외집단에 해당할 경우에 타인의 비윤리적 행위가 나의 윤리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흔한 속담에 비유하여 이를 이해한다면, 행동 윤리학에서의 도덕적 자아는 '그 부모에 그 자식', '친구 따라 강남간다'라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예측 가능함 또는 타인에게서 일방적 영향을 받는 도덕적 현상에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타인의 티끌을 거름삼아 도덕적 행동을 할 수도 있는 '타산지석(他山之石)'에 주목하고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 현상에 관심 갖는 것이다. 이처럼 행동 윤리학자들은 평범한 개인의 비합리성과 악에 주목하지만 인간을 단편적인 비합리적 존재로만 이해하기보다 비합리성과 악의 가능성을 품은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동 윤리학이 비판하는 전통적 도덕교육과의 비교 선상에서 행동 윤리학의 문제의식과 인간 이해를 이해하자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전통적 도덕교육과 행동 윤리학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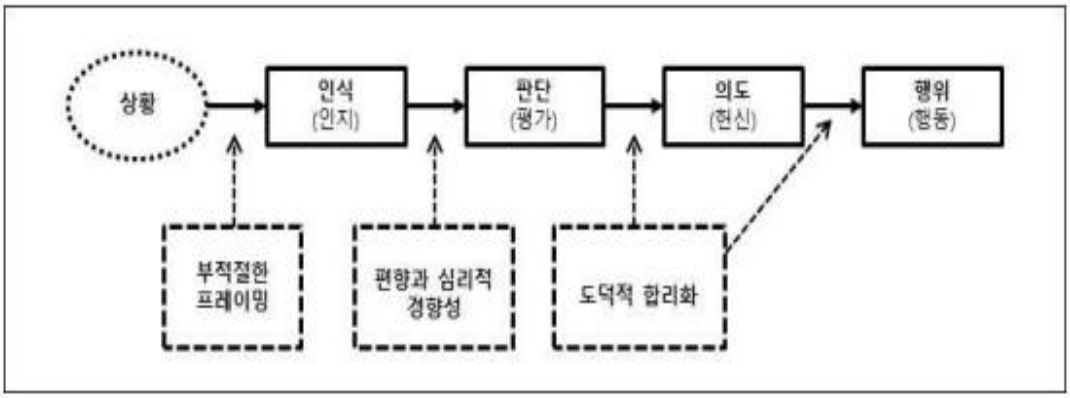
	전통적 도덕교육	행동 윤리학
대표 학자	콜버그, 레스트 등	넓은의미의 행동 윤리학자(반두라, 하이트 등) 좁은의미의 행동 윤리학자 (턴브런셀, 베이저만 등)
인간 이해 방식	합리성(선)을 전제한 인간 이해	비합리성, 악의 가능성을 전제한 인간 이해[14] (Smith & Kouchaki, 2018))
문제 의식	도덕성 발달의 보편성 확립	'평범한' 내지는 '합리적'인 인간의 비합리성(비도덕성) 원인 규명
도덕(선, 악) 이해 방식	안정적, 계열적	역동적(dynamic), 가변적(malleable)
도덕 교육 방식	합리성, 추론 계발	비합리성(악)의 원인의 활용[15]

행동 윤리학 연구의 대부분은 콜버그와 레스트 류의 도덕성 모델을 비판하며 출발한다(추병완, 2020: 5). 콜버그 도덕성 모델을 발전시킨 레스트는 '인지 - 판단 - 의도 - 행위'의 4단계에 따라 인간의 도덕적 행동의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슈와르츠(Schwartz, 2017: 499)의 [그림 1]에 따르면 인간은 인지, 판단, 의도, 행위의 모든 단계마다 '부적절한 프

14) 중요하게 구별해야 할 점은 행동 윤리학의 인간 이해 방식이 인간 존재를 비합리적 존재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닌 인간 내에 비합리적 특질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은 앞서 설명한 하이트(J. Haidt)가 이성을 정념에 종속시키고자 한 흄의 철학에 정초하여,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로만 이해함으로써 제기되는 비판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 턴브런셀과 스미스 크로우는 행동 윤리학이 기술적 접근임을 표방하지만 도덕이라는 규범적 이론화를 다루면서 기술적 접근만으로 남아있는 행동 윤리학적 접근에 대해 순진(naive)하고 기만적(self deceptive)이라 표현하였다(Tenbrunsel & Smith-Crowe, 2008). 이같은 행동 윤리학의 기술적 성격의 표방을 고려한다면 도덕교육 방식을 명확히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비합리성(악)의 원인을 토대로 도덕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레이밍', '편향과 심리적 경향성', '도덕적 합리화'라는 도덕적 행위를 파괴하려는 요인의 끊임없는 위협에 놓인다. 이는 행동 윤리학에서의 도덕성은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특질이라기보다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특질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평범한 인간은 비도덕적이기 쉬운(morally fallible) 존재가 된다.



[그림 1] 윤리적 의사결정의 장애요인
(Schwartz, 2017: 499; 추병완, 2022: 180에서 재인용)

아래 [표 2]는 행동 윤리학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행동 윤리학의 인간 이해를 기초로 [표 2]를 이해하였을 때 인지적 오류, 사회·조직적 압력, 상황적 요인이라는 비도덕적 행동의 원인은 일방적으로 비도덕적 행동을 보장하는 개념이 아닌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 행위의 기제로서 수많은 비도덕적 행위의 원인 중 하나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가령, 아래 표에 제시된 사회적· 조직적 압력 중 하나로 '상사의 권위'와 동료들의 행동에 '동조'하고자 하는 인간 심리적 행동적 기제가 무조건적으로 비도덕적 행동의 원인을 낳는 것이 아닌 인간은 이러한 기제를 극복하고 도덕적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기제의 작동조차 모른채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에 빠질 수도 있고 나의 비도덕적 심리 기제를 인지했다더라도 다른 요인(성과, 돈, 승진, 명령 등)에 주목하여 도덕적 기준이 흐릿해져가는 윤리적 퇴색(ethical fading)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표 2] 행동 윤리학의 입문

(Drumwright, Prentice & Biasucci, 2015: 437; 추병완, 2021b: 8-9에서 재인용)

기본 가정
1. 사람들은 대부분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지 않고 직관적으로 내린다. 2. 사람들은 윤리적인 사람이 하지 않을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윤리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3. 인지적 한계, 사회적 압력, 조직적 압력, 상황적 요인은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마저도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방식
1. 사람들은 윤리적 결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결정을 직관적으로 내린다. 이 타고난 도덕적 감각이 종종 잘 들어맞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고자 할 때 직감적으로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경우처럼 도덕적 직관은 종종 틀릴 수 있다. 2. 사람들은 도덕적 의사결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 즉 인지적 오류, 사회·조직적 요인, 상황적 요인을 이해해야만 한다.
인지적 오류: 휴리스틱, 편향, 합리화
1. 점증주의(incrementalism): 사람들이 사소한 위반에 익숙해져서 사소한 위반이 중대한 위반으로 바뀌는 때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미끄러운 경사길 2. 이기적 편향: 사람들은 이기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처리하므로,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비윤리적 행위를 인식하여 그것에 반대하는 데 실패한다. 3. 실재적 & 추상적: 사람들은 더 멀고 추상적인 요인(예: 회사가 반전하지 않을 경우, 이름 없는 그리고 얼굴 없는 주주들이 미래에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희생시키면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요인(예: 부채를 숨기면 회사의 주가가 이번 분기에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 4. 손실혐오: 사람들은 이익을 누리는 것보다 손실을 더 혐오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려고 더 많은 비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다. 5. 프레이밍(framing): 사람들은 어떤 이슈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다소간의 윤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6. 과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윤리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제대로 성찰하지 않는 가운데 심각한 윤리적 함의를 가진 결정을 내리도록 부추긴다.

사회적·조직적 압력
1. 복종과 권위: 상사의 비윤리적인 요청에 순응하는 것 2. 동조 편향: 사람들은 자기 동료의 행동에 동조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한다.
상황적 요인
1. 시간압력: 시간 압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2. 투명성: 사람들은 행동이 투명할 때 윤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3. 피로: 사람들이 피곤한 때일수록 비윤리적 행동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4. 청결: 사람들이 깨끗한 방에 있을 때 윤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2) 행동 윤리학에 관한 비판적 연구

초기 행동 윤리학의 기본 접근 방식은 악의 심리적, 행동적 기제에 관해 기술적(descriptive)이지만, 행동 윤리학의 연구결과를 교육분야(R. Prentice, 2014a; S. Ayal. et al., 2015; 문경호, 2018; 정창우, 석자춘, 2021; 추병완, 2021b) 또는 정책이나 법(Feldman, 2017; Prentice, 2014b) 관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처방(prescriptive)적 성격으로 행동 윤리학을 활용하려는 연구들 또한 진행되고 있다.[16)]

마치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γνῶθι σεαυτόν)” 라고 말하고 영국의 근대 경험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네 개의 ‘우상

16) 행동 윤리학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얄과 동료들이(Ayal. et al., 2015)이 제시한 ‘REVISE 프로그램’이나 텍사스 주립대학(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경영대학에서 운영하는 채널의 ‘Ethics Unwrapped’의 재생목록을 참조하라. 150개의 교육영상이 있고 별도의 사이트(https://ethicsunwrapped.utexas.edu/)를 운영하여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문과 자료(Teaching note)를 제공하고 있다.

(idola)'을 지적하면서 인지적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설명한 것처럼, 행동 윤리학은 최신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악의 원인에 관한 설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행동 윤리학에 관한 국내·외의 비판을 살펴보면 행동 윤리학은 근본적으로 심리적, 행동적 현상을 해석하고 도덕과 악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는 '도덕 철학적 정초의 부재'라는 약점을 갖는다. 이러한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강한 수준으로 비판한 선행연구자에는 엘러스턴과 동료들(Ellerston et al., 2016)이 있고 약한 수준으로 비판한 선행연구자에는 추병완(2022)이 있다.

엘러스턴과 동료들(Ellerston et al., 2016)에 따르면, 행동 윤리학이 오직 도덕심리학과의 결합만이 주로 이루어져 근본적인 인간 이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행동 윤리학자들은 도덕성을 인간의 본질이 아닌 부차적 현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덕성을 인간의 본질로 파악하는 레비나스에의 도덕 철학적 정초를 주장한다. 특히, 엘러스턴과 동료들은 넓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자인 나바에즈나 하이트가 도덕을 단지 도구적 윤리성의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설명은 뇌의 생존과 진화적 메커니즘에 따른 수준으로 도덕성을 축소시킨다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도덕이 항상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회의적인 물음을 던진다(Ellerston et al., 2016: 149-150). 가령, 나바에즈에 관해 도덕화된 심리학(moralized psychology)보다 심리화된 도덕(psychologized morality)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며 근본적으로 도덕이라는 '당위(ought)'를 논하면서 '심리적 현상과 행위(is)'를 마치 당위처럼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Ellerston et al., 2016: 154).

또한 엘러스턴과 동료들은 행동 윤리학의 작업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비도덕적 기질로부터 도덕적 차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라 지적하고 일부 행동 윤리학자의 인간 이해가 결정론적(determinisitc)이고 기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 허무주의, 니힐리즘(nihilism)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Ellerston et al., 2016: 151-153). 이처럼 기존의 행동 윤리학 관련 연구자들은 도덕성을 단지 부수적 현상 차원으로 축소시킴에 따라

근본적인 도덕적 인격을 보존하는 방식에서 인간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Willams & Ganntt, 2002).

추병완(2022: 182-187)에 따르면, 행동 윤리학은 증거에 기반하여 비도덕적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며 도덕 심리학에서의 합리주의 모델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행동 윤리학적 접근은 도덕교육에서의 추론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며 행동 윤리학의 접근처럼 비도덕적 행동의 인지적, 환경적 원인을 아는 것이 실제로 효과적인가에 관한 의문을 던진다. 특히 추병완(2022)은 행동 윤리학이 도덕과 윤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 속임수, 거짓말, 공정한 분배와 같은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도덕적 이슈로 국한하고 있다는 데에서 도덕 철학적 정초의 부재를 약한 수준으로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엘러스턴과 동료들의 논의는 행동 윤리학이 도덕심리학과의 결합만을 강조하여 도덕 철학적 정초의 부재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대부분의 행동 윤리학자들이 도덕을 부수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병완은 그의 연구에서 행동 윤리학이 도덕 철학적 정초의 부재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그의 비판내용 중 행동 윤리학의 약점으로 '도덕성',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한 정의내림의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행동 윤리학의 과제 중 하나는 행동 윤리학이 정초할 수 있는 도덕 철학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엘러스턴과 동료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레비나스 철학에의 정초나 넓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자인 하이트(J. Hadit)가 주로 근거하는 흄(D. Hume)의 도덕 철학은 행동 윤리학의 문제의식과 인간이해방식 및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앞선 본 절의 1항에서 다루었듯 하이트가 기반한 흄에 대한 철학적 정초 작업은 지나치게 인간의 직관적, 감정적 측면의 단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철학적 대안의 탐구가 필요하고 엘러스턴과 동료들도 그의 연구에서, 하이트가 말하는 섬광(flash)과 같은 정서적, 순간적, 직관적 판단이 본질적인 도덕이 될 수 있는가를 지적

한다(Ellerston et al., 2016: 150). 엘러스턴과 동료들이 제시한 레비나스 철학에의 정초 작업은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구체적인 도덕 철학적 정초의 대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라는 점에서 분명한 가치가 있지만 그 대안이 레비나스 철학이어야 하는 가에 관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더 나은 철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17]

제 2 절 행동 윤리학의 셸링 철학적 정초 필요성

1) 행동 윤리학의 도덕철학적 정초 과제와 셸링 철학의 적합성

앞선 서론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문제인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5가지 과제에 대해 셸링 철학은 행동 윤리학과 의미있는 공유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행동 윤리학과 셸링의 연결성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철학자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작업을 부각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행동 윤리학이 정초할 수 있는 도덕 철학은 도덕심리학사에서의 행동 윤리학의 독특한 문제의식과 악 개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행동 윤리학이 포착한 현실은 평범하거나 합리적인 인간이라 평가받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도덕적 행동과 의사결정이다. '평범'하거나 '합리적'이라 함은 적어도 비합리성으로만 똘똘 뭉친 인간이 아닌 사람들을 가정하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악의 현상과 원인에 관해 관심갖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 존재의 '합리성-비합리성'의 문제에 관해 철학적 해석이 가능한 도덕 철학에 정초해야 한다.

---

17) 본 연구에서 행동 윤리학이 도덕 철학적으로 정초할 셸링 철학과 엘러스턴과 동료들이 제시한 행동 윤리학의 레비나스적 정초와의 구체적인 비교는 본 연구 3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과제에 따른 셸링 철학적 응답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과제	셸링 철학적 응답	셸링 철학과의 비교
1	행동 윤리학의 문제의식 공유	셸링 철학의 문제의식: ‘이성-비이성’, ‘합리성-비합리성’ ‘선-악’에 관한 일관된 철학적 체계 수립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의 비교
	①존재 특질적 ②역동적(dynamic), 가변적(malleable) 악 성격의 공유	①형이상학적 악 ②역동적 악	
2	새로운 도덕 철학적 정초의 과제	‘관념론-실재론’을 넘어선 동일철학에 기반한 셸링의 도덕 철학	엘러스턴과 동료들 (Ellerston et al., 2016)의 레비나스 철학 정초에의 도전
3	‘악’과 ‘악의 원인’의 철학적 구분	셸링의 현실태로서의 악과 가능태로서의 악 개념	스토아학파와의 비교
4	‘악의 원인’에 관한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	무차별(Indefferenz)[18] 내에서의 가능태로서의 악은 창조성의 생산적 기반	스토아학파, 쇼펜하우어, 흄과의 비교
5	도덕적, 윤리적 책임의 근거 제공	악의 실재성, 능동성	라이프니츠와의 비교

18) 셸링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무차별(Indefferenz)은 본 연구에서 행동 윤리학의 과제인 악의 원인에 관한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 등을 가능하게 하며 행동 윤리학과 의미있는 공유 가능성이 있는 개념이다. 셸링의 무차별은 모든 차별적 현상들을 생성하는 무(Nothing)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는 셸링의 오랜 친구였던 헤겔이 무차별의 개념이 ‘밤 중의 모든 소를 검은 소로 만든다‘고 비

이러한 행동 윤리학적 악의 성격 첫 번째는 '의도성'에 기반한 것이 아닌 '존재특질'에 기반한 행위와 선택에 기인한다. 기존의 전통적 접근에서의 비도덕적 행동은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한 악인(惡人)의 행위라면 행동 윤리학은 자신도 모른채 악을 저지르는 평범한 현실의 인간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한 행동 윤리학의 개념 중 하나인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은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지적하는 '제한된 인지(bounded awareness)'개념에서 유래하였으며, 인식과 의사결정의 비합리성, 비도덕성이 개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 행동 윤리학자들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 '선한' 결정과 '악한' 결정을 내린다고 보며 전통적인 윤리학에서의 접근은 의도하지 않은 비도덕적 행동을 배제하는 반면, 행동 윤리학자들은 의도한 비도덕적 행위만이 아닌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도덕적 의사 결정과 행위의 원인의 규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Bazerman & Tenbrunsel, 2011: 44). 이에따라 행동 윤리학에서의 인간 존재는 '도덕적인 인간으로 보이고 싶거나',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이더라도 인간은 끊임없이 악에 유혹되며 도덕적으로 실패하기 쉬운 존재라 할 수 있다(Gino, 2015: 107-108).

다음 행동 윤리학의 두 번째 악의 성격은 '역동적(dynamic)'이며 '가변적(malleable)'이다(Gino, 2015: 107). 의도성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한 레스트의 인지-판단-의도-행동의 4단계 모델과 같이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성이 아닌 안정성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선을 위협하는 악의 원인에 의해 '역동적'이며 '가변적'인 도덕성의 특징을 갖는다. 모닌과 조던(Monin & Jordan, 2009)에 따르면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신용(moral credential)이 높거나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며 둘째,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행위는 항상 존경받기보다 도덕적으로 분개한 상황(moral resentment)에서는 덜 선호되기도 하며 셋째, 개인이 다른 영역에서의 실패나 부족을 만회(moral compensation)하기 위해 자

판함으로써 셸링에 대한 오해를 만든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차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 3장 5절의 내용을 참조하라.

신의 도덕적 자아를 강화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행동 윤리학의 문제의식과 악의 성격 측면에서 셸링 철학을 조명할 때, 셸링 철학적 여정이 인간 존재의 합리성-비합리성의 문제와 관련해 출발한다는 점에서 셸링 철학은 행동 윤리학과 문제의식 측면에서 공유 가능성이 있다. 셸링 철학은 인간 존재를 이성에 근거지움으로써 세계를 설명하려는 칸트 철학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성에 근거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비합리성과 악의 문제에 관해 칸트는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3장 1절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셸링의 악 개념은 악의 유래를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로 귀결시킴으로써 "평범한 개인은 악의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악의 피해자(박영선, 2011: 17)"가 될 수 있으며 셸링의 도덕성과 세계 이해의 핵심 개념은 '역동성(dynamik)'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셸링과 행동 윤리학은 악의 성격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음, 행동 윤리학이 정초할 수 있는 도덕 철학은 전통적 윤리적 접근법이 아닌 새로운 도덕 철학이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규범적 도덕 철학이 '무엇이 선인가'에 관한 논의를 이끄는 동안 셸링의 지난한 80년의 생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은 존재하는가'에 관한 철학적 해명에 초점을 두었다. 셸링의 도덕 철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의 후기 철학은 자신이 사랑했던 부인 카롤리네(Caroline)의 죽음 이후에 삶의 부조리와 악에 관한 체계적 설명을 전개하며(박영선, 2007) 당시 철학적 배경에서 기독교적 신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을 때, 완전자인 신이 존재하고 그런 신이 창조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엄습하는 죽음과 비합리성, 부조리와 악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셸링이 규명하고자 한 악과 비합리성에 관한 문제는 그가 비합리주의자이거나 성악설(性惡說)의 입장에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합리성과 선의 개념은 현실에서 분명히 포착되는 비합리성과 악의 현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셸링은 오히려 이러한 선과 존재를 파괴하려는 악의 힘으로부터 삶과 인간 존재를 긍정하였고 인간 존재 안의 악의 가

능성을 윤리적 삶으로 꽃피우기 위한 거름으로 이해한 철학자였다.

다음 행동 윤리학이 규명하고자 하는 악의 원인은 악의 결과 자체와 철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동 윤리학은 행동 윤리학에 관한 일반적 접근과 같이 악의 원인을 오직 숙고적 추론과 이성 등을 통해 줄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접근은 악의 원인을 악 그 자체와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한 처방이라기 보다 철학적 정초 없이 악의 원인에 관한 교육적 처방을 내린 접근이며, 마찬가지로 인간 내면의 비합리성을 역이용하려는 연구도 철학적 정초 없이 행동 윤리학의 활용에 방점을 둔 연구라 볼 수 있다.

다음 행동 윤리학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과제는 앞선 세 번째 과제에 따라 요청되는 문제이다. 아직까지 행동 윤리학 관련 연구에서 악의 원인에 관한 철학적 해석의 작업이 전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악의 원인에 관한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의 과제와 악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의 과제는 오늘날의 행동 윤리학 내에서의 한계나 과제라기보다 본 연구자가 설정한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과제이다. 이에 따라 3장 4절과 5절에서 스토아적 이해 및 쇼펜하우어, 흄의 철학과 라이프니츠의 도덕 철학과의 비교를 통해 행동 윤리학의 셸링 철학적 정초 작업의 의의를 보다 명징하게 하고자 한다.

2) 셸링 철학의 도덕과 악 개념의 정리

셸링의 도덕에 관한 설명은 전통적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보다 오늘날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함의하는 바가 크다. 행동 윤리학에서의 인간 존재는 도덕적으로 실패하기 쉬운(morally falliable) 존재이며 행동 윤리학의 악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존재특질'에 기반하여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이자 상황에 따라 개인이 '가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인간 존재와 악의 관점에서 셸링의 도덕 철학은 규범적 도덕 철학과는 달리 인간 존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유혹하는 악

과 비합리성을 염두에 둔, “유혹의 윤리학(an ethics of temptation) (Smith, 2021: 740)”이라는 점에서 행동 윤리학의 셸링 철학적 정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셸링의 도덕 개념은 의무나 이익에 기반하여 선택하는 행위가 아닌 “악의 가능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당하는 인간적 현실을 가정하고 오로지 불굴의 성실함과 지조를 통해 신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피우는 삶이다(Wmf: 125).” 또한 셸링의 도덕은 딜레마 상황에서 더 나은 도덕적 행위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며 인간 안의 최고의 것, 신성과 일치하기 위한 최고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지’와 ‘힘’의 문제이자 ‘선과 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Vermögen zum Guten und Bösen)’으로서의 도덕이다.

> *의무의 명령에 대한 존경으로 바른 행위를 선택하기 위해 일이 있을 때 마다 먼저 의무의 명령을 앞세우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미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볼 때도 종교성은 대립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즉 임의의 저울질(모든 도덕에 해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성은 그 어떤 선택이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한 최고의 결단만을 허용할 뿐이다. … 진지한 지조 안에 최고의 것으로서의 신적인 원리가 배어들어 가게 되면 덕은 감동으로 나타나며, 영웅적 정신(악에 대항해 싸우는)으로 나타나며, 인간이 가지는 아주 자유로운 불굴의 정신, 즉 신이 인간을 가르치는 대로 행위하고자 하고, 행위가 지식에서 알게 된 것과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불굴의 정신으로 나타난다(Wmf: 122-124).*

도덕 철학적 관점에서 악의 의미를 살펴보면, 행동 윤리학과 셸링의 악 개념의 공유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악에 관하여 가장 넓은 의미로서 나쁜 것(das schlechte)[19]이 있고 이보다 좁은 의미의 자연적 악(malum physicum), 도덕적 악(malum morale), 형이상학적 악(malum metaphysicum) 개념이 있다(이광모, 2004). ‘나쁜 것(das

19) Herman Häring, *Das Böse in der welt, Gottes Macht oder Ohnmacht*, Darmstadt, 1999, s. 3-6참조(이광모, 2004에서 재인용)

schlechte)'이란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게 만들고, 생명 가진 것을 생명을 잃게 만들며 파괴와 죽음, 질병과 자연 재해 등의 모든 '나쁜 것'에 대한 설명이라 본다면, 그러한 나쁜 것에는 자연적인 나쁨(자연적 악)과 도덕적인 나쁨(도덕적 악)이 있다. 자연적 악(malum physicum)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암과 같은 질병이나 죽음,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며 인간의 의지보다 더 큰 존재 등으로부터 기인한 악과 관련한다. 반면 도덕적 악(malum morale)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나쁜 마음을 먹어 생기는 살인, 강도, 거짓말, 폭력, 강간 등과 같은 인간의 행위이다. 이러한 도덕적 악에 관한 대표적 설명이 칸트의 입장이다.

칸트에 따르면, 순수 실천이성의 법칙의 명령(Imperative)은 행위의 준칙이 되며, 자유의지에 따라 이러한 준칙을 거슬러 '자기애'를 우위에 둘 때 악이 발생한다. 칸트의 악이란 준칙의 전도에 따른 행위[20]이며 악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이 강조되지만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악에 대해서는 침묵할 뿐이다. 특히,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과 윤리적 퇴색(ethical faiding) 등의 연구 결과를 조명하면,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의지와 무관하게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칸트의 도덕적 악 개념만으로 행동 윤리학의 악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의 근거로서, 형이상학적 악(malum metaphysicum)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악은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악이며 대표적으로 셸링과 라이프니츠의 설명이 이에 해당한다(이광모, 2004: 154). 라이프니츠와 셸링의 악에 관한 구체적 비교는 이후 3장에서 다루며 이번 항에서는 셸링의 형이상학적 악 개념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물음에 답한다.

셸링의 형이상학적 악은 '악의 가능성'과 '악의 현실성'으로 구분되며 그것의 원리이자 전제이며 셸링 철학의 핵심개념인 '힘', '운동성', '역동성',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셸링에 따르면 세계는 모든 힘들의 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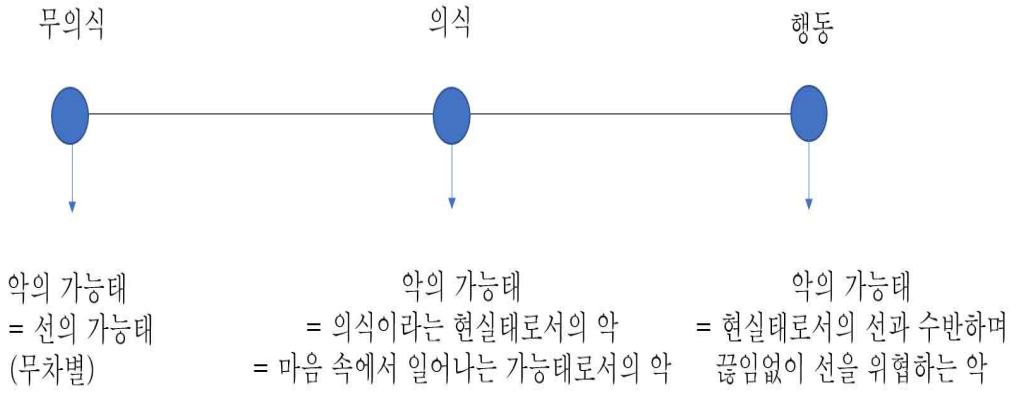
20)I. Kant,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ssen vernunft* in: Werke in Zehn Bänden, Hrsg. v. Wihelm Weischedel, Darmstadt 1983, Ba, 7. S. 670(이광모 2004: 155에서 재인용)

환 운동이다. “근원존재는 부정적(verneindende) 원리(혹은 힘), 긍정적(bejahende) 원리, 그리고 다시 이 둘의 통일인 원리가 뒤엉켜 순환하는 운동이 된다.[21]” 가령, 셸링에 따르면 흔한 길가에 돌맹이는 단지 정지해 있는 돌이 아닌, 돌의 존재를 파괴시키려는 힘과 돌을 돌이게끔 만드는 힘, 두 힘의 맹목적인 순환에 따라 균형과 통일로서 돌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문제 또한 현실에서의 선은 단지 선함 그 자체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악의 가능성의 위협을 극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힘들의 맹목적인 순환운동처럼, 악의 가능성은 끊임없이 현실에서의 선과 수반하며 현실태로서의 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파괴하며 부정하고자 한다. “악은 모든 선과 구분되며, 욕구 상태로만, 가능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태가 되려는 영원한 갈망과 목마름으로만 상존하는 것(Wmf: 146).”이기 때문이다. 반면 가능태로서의 악이 종래에 현실태로서의 선을 파괴시킨다면 현실태로서의 악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셸링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과 의식[22] 속에서 발생하는 악은 현실태로서의 악인가 가능태로서의 악인가? 이에 관해 악에 관한 셸링적 해석을 통해 ‘가능태로서의 악’에 관해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

21) F.W.J. Schelling, *Die Weltalter* in Schrifen von 1813-1830, Ausgewählte Werke, Darmstadt 1989, S. 61-62(이광모, 2016: 321에서 재인용)(이후 Weltalter로 표기)

22) 의식 단계에서의 ‘악’은 “가능태로서의 악인가 또는 악의 현실성인가”에 관한 설명을 위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따라 ‘무의식(Unconscious)-전의식(잠재의식)(Preconscious)-의식(Consicous)’의 단계를 사용한다. 특히, 마르크 바르트(Odo Marquard)에 따르면 셸링의 탈포텐츠론(DePotenzierungslehre)과 무차별(Indefferenz)개념이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Baumgartner & Korten, 1933; 이용주 역, 2013: 333) 에서 셸링의 무차별 단계에서의 선도 악도 없는 상태는 인간 경험적 차원을 초월한 무의식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그림 2]는 셸링의 ‘가능태로서의 악’의 성격을 무의식, 의식, 행동 차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단계별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프로이트가 설명한 전의식(잠재의식)의 단계에서의 악의 성격은 따로 규명하지 않는다.



[그림 2] 무의식- 의식- 행동 단계에서의 '악의 가능태'의 성격

[그림 2]에서 가능태로서의 악은 무의식과 의식, 행동의 3단계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능태로서의 악은 각각의 단계마다 다른 의미를 갖는다. 먼저 무의식 상태에서의 가능태로서의 악[23]은 선의 가능태와 동일하며 차별이 없는 무차별(Indefferenz)의 상태이다. 무의식 상태에서의 악은 항상 가능태로서 존재하며 선도 가능태로서 존재한다. 반면 의식단계로 올라간 가능태로서의 악은 두 가지 모순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러한 의식 단계에서의 악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점에서 현실태로서의 악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아직 구체적인 악으로 발현되지 않고 마음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가능태로서의 악의 성격을 갖는다. 가령, 의식 단계에서 살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가능태로서의 악이라 볼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았을 뿐 의식에서 살인을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23) 셸링에게서 악 개념은 결코 선 자체와 무차별의 수준에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가령,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닌 무관심이라 이해할 수 있듯이, 셸링은 "선과 악은 결코 근원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이원성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Wmf: 154)." 선과 악을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선 안에서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며 악 안에서는 분노의 의지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Wmf: 154)"이다. 이러한 "악은 본질이 아니라, 대립 안에서만 실재성이고 그 자체로서는 실재성이 아닌 무본질(Unwesen)일 뿐이다(Wmf: 155)."

현실태로서의 악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 *동물의 본능에서는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오직 정해져 있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결합되어 있고 따라서 그것이 바뀔 수는 없다. …그에 반해 인간은 힘들의 영원한 끈을 의지를 가지고 끊어낼 수 있다(Wmf: 84-85).*

인간에게서 무의식 상태에서의 가능태로서의 악이 "유한성의 원리(Wmf: 84)"이자 그 자체이고 곧 악은 아니지만 무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인간의 의식 상태에서의 악은 동물의 본능과 달리 "중심과 친밀하게 된 어두운 원리 또는 아집적인 원리(Wmf: 84)"로 분리됨으로써 현실태로서의 악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 단계에서의 가능태로서의 악[24]은 선의 현실태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존재로서 선과 항상 수반하는 개념이다. 가령, 정직한 사람의 정직이라는 덕목은 현실태로서의 선이 발현한 것이지만 그것은 안정적이고 담보된 상태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정직을 파괴하는 거짓말, 기만 등과 같은 가능태로서의 악에 위협을 받는 가운데 현실태로서의 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셸링의 도덕과 악 개념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과제 내에서 행동윤리학과 셸링 철학의 공유 가능성을 탐구하고 셸링 철학이 행동 윤리학에 적합한 도덕 철학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확인한다.

---

24) 셸링의 가능태로서의 악 개념은 선과 결코 '근원적'인 수준에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의식이나 행동 수준에서의 가능태로서의 악 개념은 '현실태'에서의 선과 대립적인 의미에서 존재하는 위협성이자 가능성이다. 선을 파괴하려는 위협적인 잠재력을 가진 '가능태로서의 악' 개념은 마치 평화로운 자연을 때때로 파괴시키고자 하는 폭풍우나 지진, 화산 폭발, 번개 등과 같이 "원리들 간의 관계가 전도(Wmf: 70)"될 때 현실태로서의 악으로 표상한다.

제 3 장 행동 윤리학의 셸링 철학적 정초 탐구

제 1 절 행동 윤리학의 문제의식 및 악의 성격의 공유 과제

행동 윤리학의 문제의식과 악에 관한 설명은 도덕심리학 내에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문적 흐름일지는 몰라도 도덕 철학사 내에서는 이미 중세 이래로 칸트, 셸링, 쇼펜하우어에 이르기까지 변신론(theodicee)[25]의 형태로서 악에 관한 물음을 치열하게 던진 논의와 관련성이 있다. 변신론은 서양 사상의 핵심인 기독교적 신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악과 비합리성에 관한 논의이며 신의 완전성에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 인간의 악의 원인을 해명해내야 하는 철학적 논의이다. 셸링 철학의 핵심은 변신론의 관점에서 인간 존재의 '이성-비이성', '합리성-비합리성', '선-악'의 문제에 관한 것이며 셸링에 따르면 칸트가 이성에 근거지움으로써만 설명하는 인간 존재에 관한 이해방식은 '진정한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오히려 셸링은 인간 존재와 세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죽음과 악, 비합리적 현상과 행동 등에 대해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 합리성이어야 진정한 합리성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변신론의 관점에서 셸링 철학의 문제의식과 악 개념을 이해하고 행동 윤리학의 문제의식 및 악 개념과 공유 가능성을 탐색한다.

---

25) 그리스어 '신(theos)'과 '정의(dike)'의 합성어인 '변신론(theodicee)'은 라이프니츠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변신론에 관한 논의는 완전자인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면 창조물인 세상 또한 완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죽음, 고통 등과 같은 '악'의 유래에 관한 논의이다. 만약 신이 창조한 창조물의 유한성의 유래가 신이라면, 신의 완전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신이 유한성의 유래가 아니라해도 분명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피조물의 유한성의 유래에 관하여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로서 신의 위상에 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1) 행동 윤리학과 셸링 철학의 문제의식 및 악 개념의 공유 가능성

행동 윤리학은 규범적 도덕 철학과 합리성에 기반을 둔 전통적 도덕 교육을 비판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 이유는 인간에게는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 존재의 특질이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또한 이러한 비합리적 특질은 결코 제거하기 쉽지 않은 인간의 유한성과 관련한 문제이자 인간의 도덕적 오류 가능성(morally fallible)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다.

한편, 셸링의 지난한 80년의 생애를 관통한 철학적 문제는 변신론의 관점에서 '신이 존재하는데 왜 세상에 죽음과 질병. 가난과 악, 비합리성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해명이라 할 수 있다. 완전자(完全者)인 신이 창조한 세상이라면 창조물인 세상과 인간 또한 완전해야 하지만 불완전하고, 이러한 불완전한 이유를 신에게서 찾는다면 그것은 신의 완전성의 결함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까닭에 셸링은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비합리성과 죽음, 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이러한 개념을 다루었다는 데에서 당대 독일에서는 비합리주의자로 오해받았으나 셸링 철학은 오히려 이후 셸링 철학의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독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주목받고 연구되었다.[26]

셸링은 그의 나이 15세, 1790년 튀빙엔 대학에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접하고 칸트 철학의 체계(System)를 문제 삼아 학문을 시작한다. 셸링은 인간을 이성에 근거지움으로써 세계를 설명하려는 칸트 철학이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비합리성과 악에 관한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철학적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행동 윤리학이 콜버그의 도덕심리학이 정초했던 칸트적 인간 이해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셸링 철학 또한 칸트의 인간 이해방식에 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조명하면 셸링과

26) 1950-1960년대 유럽에서의 셸링 르네상스에 관한 상세한 상황과 문헌은 H.J. Sandkühler, 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 Stuttgart 1970, 8-41쪽 참조 바람(조영준, 2009: 175).

행동 윤리학 문제의식의 공유 가능성을 보여준다.

셸링은 칸트에 대해 “칸트의 이론철학이 아무리 결속력 있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의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은 단적으로 어떤 공통적 원리에 의해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에게 있어 실천철학은 이론철학과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만 전체 철학의 주변 건물, 그것도 주 건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주변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27]”고 비판한다. 셸링이 보았을 때, 칸트 철학의 마지막 10여년의 여정은 오직 ‘이성에 기반한 인간 존재의 이해’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외적 저항이 아닌 칸트의 내적 근거에 의해 좌절되었다(Heidegger, 1971: 67)고 보며 행동 윤리학이 콜버그류의 전통적 도덕교육을 비판하며 출발한 것처럼 셸링철학은 “칸트 철학을 최고의 원리로부터 도출하여 서술하고자 하는 욕구[28]”를 출발점으로 삼아 시작한다. 가령, 셸링은 칸트의 이론적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 *활동적인 신이 없다면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과 신의 진정한 관계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활동적 신이 없다면 신이 계시인 역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성의 과학에는 종교가 없다. 즉, 이성의 종교는 전혀 없다. 부정적인 철학이 끝날 무렵, …진짜 종교만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의 경계 안에서" 종교로 이어지지 않는다. 칸트의 이론적인 결과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다.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모든 저절로 이해되어지는 진정한 합리주의의 결과이다.* [29]

칸트에 따르면, 인간을 합리성에 기반하여 이해하였을 때 종교와 신은 전혀 비합리적인 것으로, 더 이상 ‘이성 한에서의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 과거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의 평범한

---

27) Schelling, *Vom Ich als Prinzip der Philiosophie oder über das Unbedingte im menschlichen Wissen.* 한자경 역, 1999a: 32.
28) *Ibid.* 35.
29) Schelling, *Philosophie der mythology*, S. 568.

개인들은 신을 믿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며 이성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현상들을 마주하기도 한다. 셸링이 주목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행동 윤리학도 평범한 인간들의 비합리적인 행동과 심리에 주목하고 합리성을 근거로 인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점에서 셸링과 행동 윤리학의 문제의식은 공유가능성이 있다.

한편, 도덕 철학 내에서의 일반적인 악에 관한 두 가지의 범주[30]에서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악의 문제는 칸트의 도덕적 악 개념보다 셸링의 형이상학적 악 개념에 가깝다.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악은 평범한 개인이 무심코 저지르는 인간의 유한성과 관련하며 이러한 평범한 개인의 비도덕성은 소위 나쁜 사람에게서만 유래하는 것이 아니며, 매우 '역동적(dynamic)', '가변적(malleable)'의 성격을 갖는다(Gino, 2015: 107).

이는 칸트가 인간을 악의 행위자만으로 귀속시킨 것과 대비된다. 가령, 행동 윤리학의 연구결과를 통해 '나'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인지편향의 오류가 있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사후 확신 편향(hindsight bias)'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모든 언어적, 신체적 행위 등에 있어서 인지편향의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칸트의 도덕적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협소한 의미의 악 개념일 뿐, 행동 윤리학이 밝히고자 하는 인간의 자동적, 직관적 기제 등의 존재적 유한성에 따라 발생하는 악 개념을 포괄할 수 없다. 스미스(D. Smith)도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결정이 이러한 칸트의 악 개념처럼 행위 이전에 미리 결정한 보

30) 일반적으로 도덕 철학에서 이해하는 악에 관한 두 가지 방식인 '도덕적 악' 개념과 '형이상학적 악' 개념에 따르면, 칸트는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악에 관해 해명하지 않는 반면 셸링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악에 관해 해명을 시도한다. 이러한 칸트의 악 개념은 도덕적 악인 반면, 셸링의 악은 형이상학적 악이다. 칸트와 셸링은 '악의 원인'에 관해서 인간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악의 유래'에 있어서 칸트와 셸링은 각각 인간의 도덕적 행위 자체와 존재적 특질에서 찾는 차이가 있다(박영선, 2011: 17). 행동 윤리학은 인간 존재적 특질 차원의 악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셸링의 형이상학적 악 개념과 유사하다.

편적인 도덕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닌 지적 원리 간의 갈등을 수반하며, 이성적 추론 없이 빠르게 이뤄지는 도덕적 결정은 인간의 도덕적 의지를 증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상적인 윤리 이론은 결단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셸링의 도덕 철학을 유혹의 윤리학(an ethics of temptation)이라 부르며 셸링 도덕 철학의 가치를 재조명하였다(Smith, 2021: 740).

셸링의 도덕성은 또한 소위 착한 사람의 안정적인 특질이 아닌 인간 고유의 자유로운 행위에 귀결되는 문제이다. 셸링은 “인간의 의지는 살아있는 힘들의 끈(Wmf: 70)”이라고 보며 “보편의지와 통일성을 이루는 한(Wmf: 70)”에서 선이 발생하는 반면 “특수의지가 자신이 지니고 있어야 할 위치로서 중심을 이탈하면 곧 그 힘들의 끈도 중심을 벗어나게 되어, 개별의지, 곧 악이 발생한다.(Wmf: 70)”고 말한다. 셸링은 이에 관해 “행위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Wmf: 113)”, “따라서 ‘왜 어떤 사람은 악하고 극악무도하게 또 어떤 사람은 신뢰가 두텁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라는 자주 듣게 되는 괴로운 질문은 사라지게 된다(Wmf: 113).” 라고 말하며, 비도덕성과 도덕성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고유한 특질로 규정함을 거부한다. 따라서 행동 윤리학의 ‘존재 특질적’, ‘가변적’ 악 개념은 셸링의 ‘형이상학적’, ‘역동적’ 악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행동 윤리학과 셸링의 문제의식은 인간을 이성에 근거지움으로써 이해하려는 칸트적 인간 존재 이해 방식에 반하여, 평범한 현실적 인간 존재의 비합리성과 악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행동 윤리학의 ‘존재 특질적’, ‘가변적’ 악 개념은 셸링의 ‘형이상학적’, ‘역동적’ 악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행동 윤리학은 현대 영미권의 도덕심리학에 기반하여 악의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지만 셸링은 과거 독일 관념론 시대를 배경으로 도덕 철학적 관점에서 악의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즉, 행동 윤리학과 셸링은 서로 다른 시대와 방법적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평범한 개인의 악의 원리에 관한 탐구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죄의 보편적인 필연성, 그리고 고유성의 현실적 소멸인 죽음의 보편적인 필연성이 있게 된다. · · · 악은 항상 인간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남는다. 근거가 악 그 자체를 만들 수는 없다. 모든 각각의 피조물은 자신의 고유한 죄로 인해 몰락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인간이 악에 대한 결정이나 선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탐구가 요구된다(Wmf: 101).

2) 평범한 개인의 악에 관한 한나 아렌트와의 비교

행동 윤리학자들은 소위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또는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다'의 개념을 비판한다. '나쁜 사람'과 '나쁜 행동'의 상관관계적 알고리즘을 파괴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에 관해서, 더 나아가 '평판이 좋고 도덕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도덕적 악에 관한 설명의 틀을 세우고자 한다. 이러한 행동 윤리학에서 주목하는 '악의 평범성'의 문제는 개인의 의지와 반성과 행동에 의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특별할 것 없는 악' 개념이라기보다 인간이라는 개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평범함'이자 제거하기 쉽지 않은, 뿌리깊은 '유한성'과 관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위 '악의 평범성'에 관한 전자의 설명에는 한나 아렌트, 후자에는 셸링이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실무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에 관한 기록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에 담는다.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은 악마적인 모습을 한 인물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였으며 이는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라는 부제에 아이히만에 관한 한나아렌트의 생각이 잘 담겨있다. 이러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소위 자신과 세상에 관해 무반성적이고 무비판적이며 부당하게 거행되는 권위에 침묵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악의 평범성에 관해 한나 아렌트는 완전한 무사유(sheer

thoughtlesness)[31]의 용어를 사용한다.

> *마치 악은 "표면 위에서 퍼져나가는 곰팡이와 같이 때문에 자라서 온 세상을 망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유를 거부하는 것' (thought defying)이다. … 그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다*(Arendt, 1978: 251; 박종균, 2020: 103에서 재인용).

이러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banality)은 행동 윤리학과 같이 소위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다' 식의 알고리즘을 타파하고자 한다는 데에서 의미있는 공유가능성이 있다. 가령,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후기에서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이아고도 맥베스도 아니었고, 또한 리차드 3세처럼 '악인임을 입증하기로' 결심"하고자 한 것이 아니였다.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한나 아렌트. 1963: 391)" 자였다고 말한다. 또한 아이히만의 사례는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형적인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령, 그는 상급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 성실하고 충직한 부하가 되고자 한 인물이였으며 대량 학살의 문제를 윤리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행동을 사유하지 못했다. 아이히만은 나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까에 대한 가책으로서 양심이 작동하였지 자신이 저지르는 살인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못한 인물이였다.

> *그의 양심에 대해 그는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라는 점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란 수백만 명의 남녀와 아이들을 상당한 열정과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었다(한나 아렌트, 1963: 79).*

---

31) 아이히만의 문제는 "전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유하기의 무능력이였다." (Hannah Arendt, *"Thinking and Moral Condiserations: A Lecture"*, Social Research 38-3, 417.)(박종균, 2020: 101에서 재인용).

더 나아가 그는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정신과 의사들은 그를 "정상"으로 판정했으며, 정상적일 뿐 아니라 "바람직함"의 요소도 있었고, 심지어 그는 "개인적으로 유대인에게 거부감을 느낄 이유도 전혀 없었다". 아이히만은 "나와 가장 친한 친구 중 일부만이 반유대주의자들"이였다고 말하기도 했다(한나 아렌트, 1963: 79).

이러한 아이히만의 악의 원인은 '사유하기의 무능력함(inability)' 때문이였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에 관해 세가지의 무능성(inability)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말하기의 무능성(inability to speak)", "생각의 무능성(inability to think)",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이다(한나 아렌트, 1963: 106). 그러나 아렌트가 지적하는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이나 그의 '무능력함(inablity)'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내면의 어두움의 원리 그 자체로부터 기인한 악이라 설명하기 보다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전체주의라는 상황과 조건이 발생시킬 수 있는 악의 평범성의 개념에 가깝다는 점에서 행동 윤리학 악의 성격인 '가변성'이나 '형이상학적'인 악 개념을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령, 한나 아렌트는 평범한 인간이 전체주의적 클리셰에 갇혀 사적인 공간에만 머물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상호 소통 가능성이 단절된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 *… 아이히만은 기억력이 상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나 사건에 대해 동일한 선전 문구와 자기가 만든 상투어를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반복한 점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나 예루살렘에서 회고록을 쓸 때나 검찰에게 또는 법정에서 말할 때 그의 말은 언제나 동일했고,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었다.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하는 데 무능력함(inabiltiy to speak)은 그의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inability to think),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the presence of others)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reality as such)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한나 아렌트, 1963: 106).

한나 아렌트의 악 개념은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인간 내면의 존재 특질에 기인한 악의 원인을 설명하고 주목하기 보다 정치철학적 관점으로 특정한 조건이 발생시킬 수 있는 악의 가능성을 이야기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악의 평범성은 특정한 조건을 배제하거나 상황을 벗어난다면 발생하지 않는 개념이라기보다 조건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순수한 내면의 심리적 기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뿌리깊은 인간의 유한성과 더욱 관련이 깊다. 이처럼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인간의 개인적 의지와 사유, 행동 등을 통해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악의 평범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개념으로, 행동 윤리학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 2 절 새로운 도덕 철학적 정초의 과제

언뜻 행동 윤리학이 기존의 규범적 도덕 철학을 비판하고 출현한 점을 조명하면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작업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행동 윤리학이 비판 대상으로 삼았던 전통적 도덕 철학이란 의무론적 접근 및 공리주의적 접근 또는 덕 윤리적 접근에 해당한다(Smith & Kouchaki, 2018: 82). 한편, 역사적으로 규범적 도덕 철학이 주류인 시대에서 셸링의 도덕 철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규범적 도덕 철학이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이해하고 '무엇이 선인가'에 관한 논의에 주목할 때(노양진, 2015) 셸링은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간의 악과 비합리적 측면에 주목하였다(박영선, 2007; 이광모, 2016).

한편,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점은 셸링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로만 이해하였다기보다 변신론의 관점에서 인간

의 합리성-비합리성의 문제를 그의 지난한 80년의 생애동안 동일성(Identität)의 개념을 토대로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평범한 개인의 악'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행동 윤리학의 작업에 대해 '평범함'이라는 단어와 '악'의 관계의 모순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행동 윤리학에서 주목하는 악이란 비합리적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닌 적어도 비합리적이지 않은, 심지어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들마저도 저지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행동 윤리학의 토대를 놓을 수 있는 도덕 철학은 인간 존재에서의 합리성-비합리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관한 기초를 놓을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간 안에서의 합리성-비합리성, 선과 악 등에 관한 일관된 철학적 체계로서 셸링의 동일성(Identität)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셸링 도덕 철학의 기초로서 동일성(Identität) 개념

하이데거는 80년의 지난한 생애에 걸쳐 초월철학-자연철학-동일철학-자유철학-계시철학에 이르기까지 격렬히 투쟁한 셸링의 유일한 입장은 '합리성과 비합리성', '선과 악' 등을 동일한 철학적 체계로 설명하는 일이였다고 말하며(M. Heidegger, 1971: 10), 특히 셸링의 후기철학에서는 사랑하던 자신의 부인 카롤리네의 죽음을 경험하고 현실에서 포착되는 비합리성과 악의 문제에 주목하여 이러한 악과 비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다(박영선, 2007: 259). 이렇듯, 80년의 생애동안 셸링 철학이 지향했던 단 하나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합리성-비합리성', '선-악', '이성-비이성'의 구도 속에서 자유(Freiheit)와 체계(System)를 동일성(Identität)으로 설명하는 일이였다. 셸링은 인간을 이성에 근거지움으로써 이해하려는 철학의 한계에 직면하여 비합리성과 악의 문제를 담을 수 있는 동일철학의 길을 걷게 된다(이광모, 2016).

셸링의 동일성 개념은 칸트의 『근본악』[32]으로부터 초래된 인간의

32) 『근본악』으로 약칭한 칸트의 저작은, 1792년 『베를린 월보』학술지 4월호에 단논문으로 게재되었고 1793년 『순전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

도덕적 악의 유래에 대한 해명을 위한 관념론-실재론의 양자적 결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칸트는 악을 선의 결여로 보는 아우구스티누스, 라이프니츠와 같은 전통적 악 개념을 넘어서, 인간 주체의 자유의지에 따른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악 개념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칸트는 인간을 순수한 이성의 영역인 예지계에서 이성적 존재라는 규정 아래 자유를 오직 순수하게 이성적(rein vernünftig)일 때에만 발휘되는 능력으로 이해함으로써 이성주의적 철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이정환, 2021: 170-171). "선택의지의 자유는 …법칙을 좇아서 혹은 법칙에 반해서 행위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무차별의 자유)으로 정의될 수는 없다.[33]" 즉, 칸트에게서 악의 가능성은 단지 자유라는 능력(Vermögen)이 제약되어 있거나 결여된, 무능력(Unvermögen)에 불과한 것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적 악 개념의 문제를 재연시키게 된다(이정환, 2021: 178) 이러한 칸트 철학의 한계, 즉,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이해하고자 하는 철학에서 어떻게 도덕적 악이 발생하는 가에 관한 물음에서부터 셸링 철학은 시작한다.

철학사의 대표적인 인간 존재에 관한 이해방식인 관념론적 이해와 실재론적 이해의 구도는 도덕 철학에서의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기저에 있는 인간 이해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관념론적 인간 이해와 실재론적 이해는 각각 인간의 정신적(형이상학적) 측면의 강조와 인간의 독특한 자연적 본성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철학적 정초이지만 한편, 행동 윤리학은 기존의 인간 존재 이해 방식과 규범적 도덕 철학을 비판하고 출현하였다는 점에서 행동 윤리학이 정초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의 철학적 대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셸링은 기존의 인간 이해 방식인 관념론과 실재론을 넘어서기 위한 동일철학을 전개하고 셸링은 동일 철학을 기반으로 자유 철학에 나아가 비합리적 현실을 포함할 수 있

는 단행본의 첫 번째 절에 편입되어 출간된 저작이다. 원제는 『악의 원리가 선한 원리와 동거함에 대하여, 또는 인간 본성에서의 근본악에 관하여』(Von der Einwohnung des bösen Prinzips neben dem guten: oder über das radikale Böse in der menschlichen Natur)이다. (이정환, 2021: 162)

33) 『도덕형이상학』 Kant-AA VI, 226(이정환, 2021: 176에서 재인용).

는 합리성과 악의 현실을 포함할 수 있는 선의 개념에 관한 도덕 철학적 설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셸링의 동일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4] 셸링 동일 철학의 이해

셸링 철학	동일철학	
	관념론적 해명	실재론적 해명
	초월 철학	자연철학
인간 존재 이해 방식	관념론	실재론
	이성, 합리성, 선	비이성(감정, 정념), 비합리성, 악
세계 해명 방식	위로부터의 세계 해명	아래로부터 세계 해명
셸링의 인간 존재 이해 방식	비합리성의 가능태를 포함한 합리성, 악의 가능태를 포함한 선, 비존재의 가능태를 포함한 존재 개념	
셸링의 세계 해명 방식	인간은 땅(실재론) 위에 걸어다니는 신(관념론)[34]	

전통철학에서의 관념론과 실재론의 문제는 자아와 자연의 관계에 관해 인간의 정신, 자아를 중심으로 자연(현상)과의 관계를 정립하거나 반대로 자연적인 근거를 토대로 인간 자아를 정립해나가느냐의 차이이다. 가령,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이해하고 정신적 가치를 중심으로 인간을

34) 셸링은 『계시철학』에서 "그(예수)는 이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다.(Er ist nicht mehr der Sohn Gottes, sondern des Menschen Sohn.)"고 말한다.(Schelling, *Urfassung der Philosophie der Offenbarung*, teilband Ⅰ, ebd. 392) 즉, 셸링에게서 신은 초월적 존재로 남아있지않고 인간의 몸으로 육신화되며 인간은 인간 속에 신적 근거를 가진 존재이지만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악의 가능성을 품은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초기 초월철학, 자연철학에서부터 자유철학, 계시철학 등에 이르기까지 셸링은 변덕스러운 철학자쯤이라기보다 오직 하나의 문제, 즉, 인간 안에서 발견되는 비합리성과 악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여정으로서 동일철학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 관념론이라면, 실재론은 인간 내면의 자연과 물질, 현상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궁극적으로 셸링은 이러한 관념론과 실재론이 주목하는 현상을 경험적 세계로 이해하고 이를 초월하는 세계를 예지계로 규정한 칸트적 구분을 받아들여 '무제약자'의 세계를 세계의 근본원리로 이해하고 일체 자연현상을 자아로 설명하고자 한 피히테 철학의 절대 자아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피히테의 설명처럼, '일체가 자아'일 수 있지만 자아를 일체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 즉 피히테처럼 일체 자연을 인간 정신의 외재화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간 정신을 자연의 내재화로 보려는 철학적 시도를 위해 자연철학을 주창하였으며 초월철학 - 자연철학, 관념론 - 실재론이 무제약자의 세계에서 동일함을 설명한 것이 동일철학인 것이다.

셸링의 동일 철학에 관한 이해는 한자경(1997)의 논의를 통해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셸링의 동일 철학은 관념론과 실재론, 이원론을 넘어, 셸링의 초월 철학과 자연 철학을 동일한 체계로서 설명 가능한 체계이다. 먼저, 관념론에 따르면 정신과 자연의 이원적 구도에 있어서 정신을 만물의 근원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념론적 인간 이해 방식은 현실에 존재하는 악과 비합리성의 문제를 무시하고 인간을 합리적, 선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 한다. 반면 실재론은 정신과 자연의 이원적 구도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 또한 모두 물질로서 이해하는 것으로 정신 활동을 뇌 근육과 신경계의 화학작용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실재론적 인간 이해방식에 따르면 인간은 비합리적이기만 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관념론에 따르면 정신이 자연의 근거이고 실재론에 따르면 자연이 정신의 근거이다. 그러나 관념론과 실재론이 정신과 자연 중 하나에 치중하여 다른 하나를 설명하고자 하는 단편적인 이해라는 점에서 이원론의 관점이 대두된다.

이원론의 설명에 따르면 자아는 자연의 인식 근거가 되며 자연은 자아의 존재 근거가 된다. 즉, 인식 근거와 존재 근거의 구분과 분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근거와 존재 근거의 명백한 구분은 "우리의 인식과 존재 너머의 현상에 관해 인식할 수도 직관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물자체를 상정하는 것(한자경, 1997: 65) ”이며 셸링은 이에 관해 자아와 자연의 분리 또는 인식과 존재의 분리 측면에서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반성은 세계를 직관도 상상력도 오성도 이성도 도달할 수 없는 물자체로 간주함으로써, 인간과 세계 사이의 그러한 분리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든다.”[35] 이러한 정신-자연에 관한 이원론적 설명을 넘어 셸링은 칸트, 피히테 철학을 계승하는 초월 철학의 지평을 전개한다.

반성적 의식:	자아 <----------> 자연
↑	↑
근원적 의식:	무제약적 동일성

[그림 3-1] 근원적 의식의 무제약적 동일성(한자경, 1997: 70)

셸링은 자아의 반성적 의식에 따라 분리되는 자아와 자연의 이원론적 구도를 해결하기 위해 근원적 의식의 무제약자(das Unbedigte)를 상정한다. 무제약자란 사물이 현상 세계에 제약됨으로써 곧 사물(Ding)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아닌 것, 물자체 아닌 것이 된다. 무제약자란 절대적 사물 자체도 아니고, 상대적인 주체나 객체도 아니면서 오히려 “그 둘을 규정할 수 있는 더 상위의 규정 근거이다.[36] 이러한 무제약자는 오직 절대적 자아 안에만 있을 수 있다.[37] 이러한 무제약자는 경험적 자아 내에서의 의식이 아닌 반성적 자아의 기저에 있으며 자아와 자연의 이원론적 구도를 무제약적 동일성의 상태에 놓는 근원적 의식에서의 절대적 자아에 관한 논의이다.

---

35) F.W.J. Schelling, *Ideen zu einer Philosophie der Natur, Schelling Ausgewählte Werke*, Darmstadt, 1980, Bd. 6, 338(한자경, 1997: 66에서 재인용)
36) F.W.J. Schelling, *Vom Ich als Prizip der Philosophie*, Schelling Ausgewählte Werke, Darmstadt, 1980, 46(한자경, 1997: 70에서 재인용)
37) Ich 46-47.

이원적 현상: 자아=현상 <---> 자연=현상
경험적 자아
↑
동일적 무제약자: 절대적 자아

[그림 3-2] 셸링의 관념론적 접근: 초월 철학(한자경, 1997: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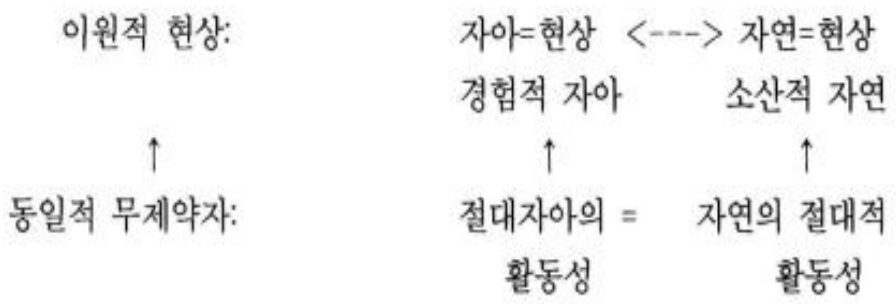
이러한 초월철학의 구도를 위 [표 5]에서 관념론이 아닌 셸링의 '관념론적 해명'이라 한 이유이다. 초월철학은 자아에 입각하여 자연현상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관념론의 구도와 유사하지만 그것은 관념론의 경험적 자아가 아닌 절대적 자아라는 데에서 관념론을 넘어선, 초월철학의 관념론적 해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자아의 자기 정립은 경험적 의식이 아닌 보편적 일자라는 점에서 '나의 자아'와 '너의 자아'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한자경, 1997: 76), '자아가 일체'라 주장하는 피히테의 초월 철학을 넘어서 '일체가 자아'라고 보는 자연철학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원적 현상: 자아=현상 <---> 자연=현상
소산적 자연
↑
동일적 무제약자: 능산적 자연

[그림 3-3] 셸링의 실재론적 접근: 자연 철학(한자경, 1997: 78)

소산적 자연(natuta naturata)은 경험적 현상으로서의 자연이라면 능산적 자연(natuta naturans)은 앞선 무제약자의 상태, 차별과 제약이 없는 동일성의 상태 단계의 자연이다. 자연이라는 실재하는 세계의 존재이지만 소산적 자연-능산적 자연의 구도에서 볼 때 능산적 자연은 정신적

존재이다(한자경, 1997: 78). 이 점에서 자연은 정신의 외재화이며 정신은 자연의 내재화가 되고 물질과 정신은 근원적으로 동일하다는 데에서 동일철학으로 나아간다.



[그림 3-4] 셸링의 동일철학(한자경, 1997: 83)

이러한 셸링 동일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선 [표 4]에서의 셸링의 인간관을 설명하자면, 인간은 비합리적 포텐츠(Potenz)[38]를 끊임없이 수반하는 합리적 존재이다. 인간 존재를 합리성에 근거지우고자 하는 관념론적 이해와 비합리성에 근거지우고자 하는 실재론적 이해를 넘어선 이해가 필요한 행동 윤리학의 철학적 정초 작업에서, 셸링의 동일철학은 변신론의 관점에서, 합리성의 체계 내에서 비합리성의 문제, 선의 체계 내에서 악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여정이였다. 이에따라 셸링 동일 철학은 가능태로서의 악[39]에 끊임없이 위협받는 현실태의 선, 비합리성의

38) 포텐츠(Potenz)는 셸링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우리말로 '잠재력', '힘', '상승력', '잠세태'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포텐츠(Potenz)는 무제약자의 세계에서의 동일성이 차별적 현상들로 나타나는 원리라고도 볼 수 있다. 무차별적 세계로서부터 양적 포텐츠에 의해 상승하여, 오직 인간 안에서 선과 악, 이성과 비이성의 분리가 발생한다. 포텐츠와 악의 발생 원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 3장 3절에서 살펴본다.

39) 셸링의 동일성(Identität)의 개념은 바로 무차별적, 무제약적 세계에서 선과 악이 차별이 없는 동일성의 상태를 말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인간과 세계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성과 악은 무엇인가? 이에 관해 셸링은 악은 가능태로서 존재

끊임없는 위협을 받는 합리성의 상태로서 인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행동 윤리학이 적어도 비합리적이지 않은 평범한 개인 또는 대단히 합리적인 인간들의 비도덕성에 관한 연구인 점을 조명하면,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를 셸링의 동일 철학이 품고 있는 인간과 세계 이해의 원리에 둘 여명을 볼 수 있는 것이다.

2) 레비나스적 행동 윤리학[40]에의 도전

행동 윤리학자들은 전통적 규범 도덕 철학의 한계를 트롤리 딜레마의 한계를 통해 지적한다(Bazerman & Tenbrunsel, 2011: 32-35). 가령, 트롤리 딜레마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접근을 취하곤 한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멈출 수 없는 기관사는 두 개의 선로 중 한 명이 서있는 선로와 여러명이 서있는 선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의 희생보다 희생이 적은 선로를 선택하는 공리주의적 선택을 한다. 그러나 육교 딜레마나 장기 적출 사례를 적용하면 사람들의 선택은 이전과 달라진다. 나는 육교 위에 서 있고, 육교 아래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선로에 놓인 여러명의 사람과 충돌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다. 나는 육교 아래로 떨어져도 기차를 멈출 수 있는 무게를 지니지 못했지만 내 옆에는 크고 무거운 배

하는 개념이라 말함으로써 인간은 선하고 합리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악과 비합리성의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악은 모든 선과 구분되며, 욕구 상태로만, 가능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태가 되려는 영원한 갈망과 목마름으로만 상존한다. … 악은 그것이 가능태를 넘어서려고 하는 한에서만 악한 것이기 때문이다(Wmf: 146).”

40) 프랑스 철학자 엠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는 행동 윤리학을 그의 철학에서 다루거나 언급한 적은 없으나 엘러스턴과 동료들(Ellerston et al., 2016)이 레비나스 철학에 정초하여 행동 윤리학의 주요 문제를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레비나스적 행동 윤리학’이라 명명하였다. 이후 4장의 제목인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용어 또한 마찬가지로 셸링 철학에 정초하여 행동 윤리학의 주요 문제를 다룬다는 의미이다.

낭을 짊어져 기차를 충분히 멈추게 할 수 있는 철도원이 서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옆의 사람을 떨어트리는 선택을 하여 선로 아래의 다수를 구할 것인가? 사람들은 선뜻 내 옆의 기관사를 떨어트려 다수의 희생을 줄이고자 하는 공리주의적 선택을 내리지 못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명의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서 다섯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옆의 건강한 사람 한 명을 죽일 것인가에 관한 물음에 관해서도 그렇다. 이같은 의무론 - 공리주의 딜레마에 따른 한계 뿐 아니라 행동 윤리학자들은 강한 전통적 덕 윤리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가령, 부적절한 문화 규범에 놓인 사람의 덕스러운 행동은 오히려 부적절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mith & Kouchaki, 2018: 82).[41]

특히 이러한 전통적 규범적 도덕 철학의 이론에 따른 악 개념이 '도덕적 악'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면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우연적, 비의도적인 악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행동 윤리학의 악 개념은 마치 형이상학적 악 개념과 유사하다. 엘러스턴과 동료들은 하이트와 같은 행동 윤리학자들의 실재론적 철학적 접근에 대해 비판하고 형이상학에 근거한 존재론의 필요성과 도덕성의 근본 원리를 강조하였으며 행동 윤리학의 철학적 정초를 강하게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정초의 대안으로서 레비나스 철학을 제시하였다. 엘러스턴과 동료들은 레비나스 철학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을 형이상학적 차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레비나스 철학에 정초하였을 때 행동 윤리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행동 윤리학이 갖는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관해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항에서는 행동 윤리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 나름의 관점에서 레비나스 철학을 해석하고 레비나스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이 갖는 강점과 셸링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에 비해 레비나스

41) 본 연구의 목적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보다 행동 윤리학의 관점이 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가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 부합할 수 있는 도덕 철학의 정초를 놓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동 윤리학자들의 관점이 기존의 전통적 도덕 철학의 토대에 정초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철학이 갖는 열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레비나스는 모더니즘 철학이 낳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에 의해 가족을 잃고 본인 또한 포로로 잡혀 들어간 고통 속에서 타자(autre) 중심의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윤리학을 제시하였다. 행동 윤리학 또한 전통적 도덕교육의 합리주의에 따른 경도된 설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출현하였듯이, 레비나스 철학 또한 합리주의 계열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라는 접점이 있다.

또한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 개념인 타자성(altérité)은 행동 윤리학의 도덕성과도 접점이 있다. 가령, 행동 윤리학에서의 도덕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점수와 타인이 나를 평가했을 때의 도덕점수에 차이가 난다. 대체로 스스로에게 주는 도덕점수를 후하게 준다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행동 윤리학의 도덕성은 '나' 중심의 도덕성이 아니라 '타인' 의 관점에서 '나'의 도덕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다. 레비나스도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엄격하게 말해 체험된 것이 아니기"[42] 때문에 형이상학적 차원의 타자성의 개념에 나아가 나 중심의 도덕이 아닌 타인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책임을 제시한다.

이와더불어 레비나스와 행동 윤리학의 악 개념은 형이상학적 악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도 접점이 있다. 레비나스는 '형이상학적 욕망(le désir métaphysique)'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며 레비나스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항상 사랑이 충분치 않은 것이다."[43]라고 보고 사람은 타인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도덕적 결핍의 상태에 놓인다. 이처럼 레비나스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 또한 의미있는 정초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5가지의 과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레비나스 철학은 나름의 한계를 지닌다.

레비나스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은 행동 윤리학의 또 다른 악 개념인 '가변적 악', 즉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인간이 다른 도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해 레비나스 철학은 구체적인 설명의 어려움이 있다. 그

---

42) Levinas, E., *Autrement que savoir*, P. Guy & R. Jacques, 1986, Paris: Osiris, 88 (이명곤, 2021: 111에서 재인용)
43) *Ibid.*, 79(이명곤, 2021: 91에서 재인용)

리고 악을 저지르는 원인에 관한 철학적 설명이나 악과 악의 원인에 관한 철학적 구분 및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에 관해서 또한 철학적 설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엘러스턴과 동료들이 행동 윤리학의 정초로 제시한 레비나스 철학은 셸링 철학에 빚지고 있는 측면(J. Lawrence, 2007)도 있고 셸링과 레비나스 철학에는 유사성이 있다(M. Wirth, 2005: 211)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그것은 초기 셸링이 주관적 관념론의 피히테의 영향을 받지만 이후 선이 아닌 악, 초월철학이 아닌 자연철학적 설명 등을 통해 '자아 중심의 철학'이 아닌 '비아 중심의 철학'을 설명을 하여 객관적 관념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셸링 철학이 탈자아의 지평을 놓았다는 데에서 레비나스 철학과의 유사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레비나스 철학의 타자성(altérité) 개념 또한 셸링은 더 넓은 범위의 타자성을 강조한 철학자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 또한 있다. 셸링은 나 이외의 타자를 포함한, 주관 이외의 모든 객관의 것을 자유(Freiheit)로 사유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44]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성이 인간의 얼굴로 현현되는 형이상학적 차원을 이야기했다면 셸링은 나를 제외한 타인을 포함하여, 나무, 숲, 동물과 식물, 땅과 공기, 우주 등의 모든 객관을 주체로 해석하고 기계적 자연이 아닌 유기체적 자연, 능산적 자연(natuta naturans), 자연 안의 역동성(dynamische)의 상태를 지적하였다.

> *사변적 자연학의 제 1과제는 기계론적으로는 단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따라서 사변적 자연학의 실제적 설립을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의 길, 즉 동역학(dynamishce)적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동역학적 길에는 운동이 단지 운동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지로부터도 나올 수 있으며 따라서 자연의 정지에도 역시 운동이 있다는 것…(한자경 역, 1999b: 138)*

---

44) Hans-Dieter Mutscher, *Spekulative und empirische Physik, Aktualität und Grenzen der Naturphilosophie Schellings*, Stuttgart 1990, 20-22 참조(조영준, 2009: 189에서 재인용)

이러한 행동 윤리학에 관한 셸링 철학과 레비나스 철학의 비교를 정리하면 다음 [표 5]과 같다.

[표 5]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레비나스적 행동 윤리학에의 도전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과제	셸링적 행동 윤리학	레비나스적 행동 윤리학
1	문제의식 공유	O	O
	악의 성격 공유	O	△ *형이상학적 악 o *가변적 악 x
2	새로운 도덕 철학 정초 시도	O	O
3	악과 악의 원인에 관한 철학적 구분	O	X
4	악과 악의 원인에 관한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	O	X
5	현실태로서의 악에 관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의 근거	O	O

한편,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점은 레비나스 철학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선상에 있다면 셸링은 자연철학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과도 같은 철학적 여정을 보여주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제약적 절대 자아를 원리로 하여 이념과 실재, 사유와 연장, 이론과 실천, 자연과 자유, 모든 이원적 대립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한자경, 1998: 6-8). 체계를 비체계로 만들고 질서를 혼돈으로 만들며 개념을 파편화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해체주의(destruction)는 오늘날 상식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이는 보편적 개념과 질서와 규칙마저도 해체시켜버린다는 점에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켜버리고 보편적 토대를 무너트릴 위험성 또한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셸링은 합리적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비합리성, 비논리적 현상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레비나스 철학은 오직 보편성과 합리성을 개별성과 파편성으로 놓을 수 있는 철학적 정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영향 하에 하이트와 같은 넓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자도 보편성이 아닌 개별성을 중심으로 심리적, 행동적 차원의 도덕적 의사결정과 행위를 설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점에서 개별성을 보편성으로, 비합리적 현상을 인간의 합리적 체계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도덕 철학적 정초의 과제'가 요청된다. 이에 따라 셸링 철학은 행동 윤리학의 기술적(descriptive) 접근을 다시금 규범윤리학의 독단적인 보편성에의 정초가 아닌 비합리적 현실을 포함할 수 있는 합리성의 체계로 설명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셸링의 도덕 철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악과 악의 원인의 철학적 구분 및 보편적 해석의 과제

이번 절에서는 인간 내면의 악과 악의 원인의 철학적 구분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일체 인간과 자연의 발생 원리로서 핵심 개념인 포텐츠(Potenz) 개념을 다룬다. '포텐츠' 개념은 셸링의 동일철학, 즉 초월철학과 자연철학, 자연계와 정신계를 일이관지(一以貫之)로써 관통하며 무제약자에서부터 경험적 세계와 신적 근거에 이르기까지 일체 존재의 발생 원리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는 또한 본 연구에서 악의 가능태를 긍정적 의미로 재해석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개념이다.

1) 포텐츠(Potenz)와 악의 발생 원리

앞서 지적하였듯이, 범신론의 관점에서 셸링 철학의 문제는 '신(der Gott)'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면 창조물인 인간과 세계 또한 선으로 가득 찬 완전무결한 세상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죽음과 가난, 질병, 악 등에 관하여 그것의 발생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또는 인간을 예지계의 이성적 존재를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칸트적 이해의 연장에서, 인간이 이성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와 악에 관한 물음에 해명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셸링은 '어둠의 원리로부터 빛의 원리', '악으로부터 선', '자연으로부터 정신'으로 상승하는 포텐츠의 양적 차이로써 설명한다. 이러한 포텐츠(Potenz)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인간 안의 '악과 선', '어둠과 빛'에 관한 셸링 인간학의 이해가 먼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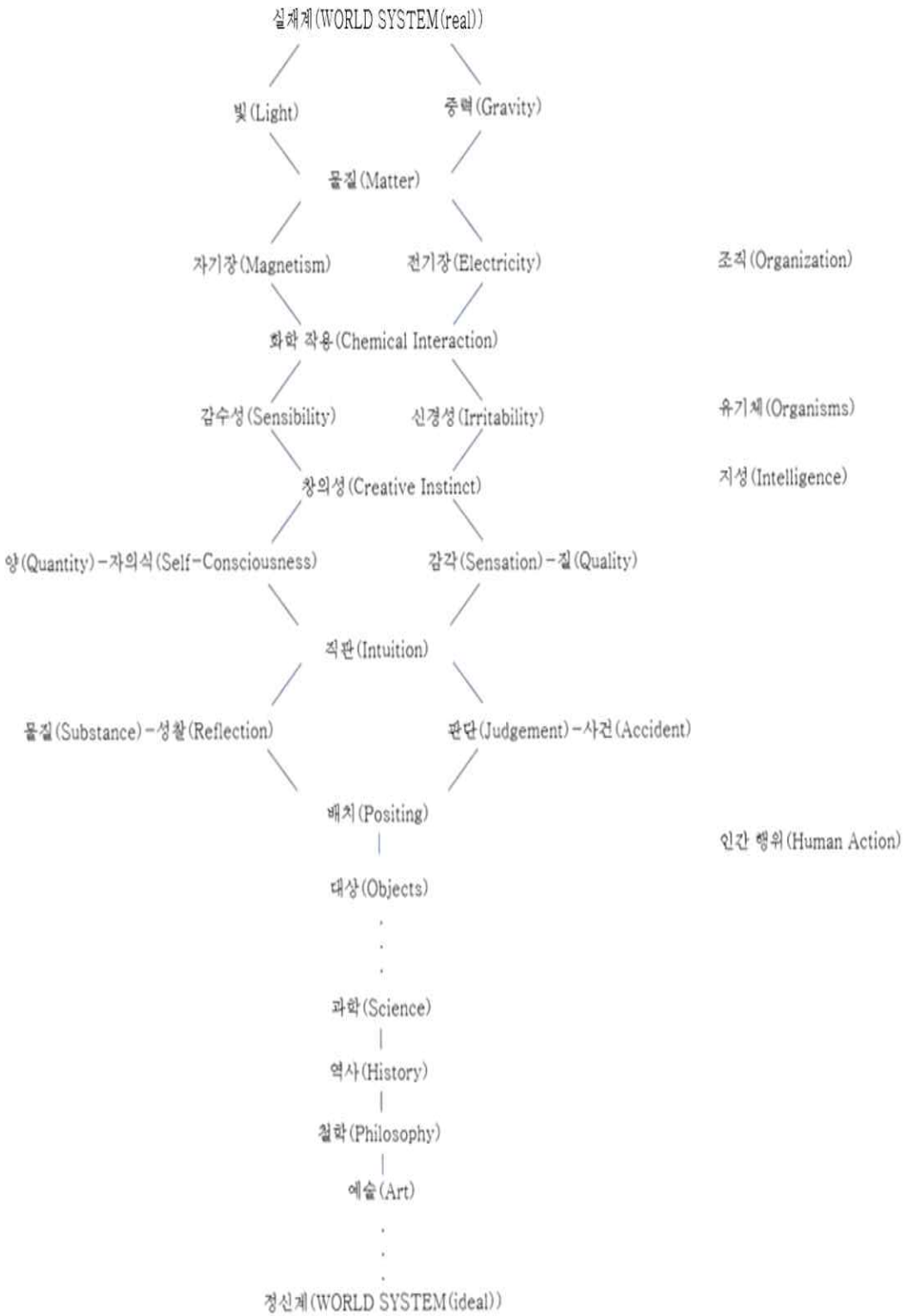
> *우리 내부에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무의식적이고 어두운 원리와 의식적 원리가 그것이다. 우리 자아의 형성과정을 보면, 우리는 인식이나 학문의 과점에서 우리자신을 형성하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무제한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위해서 우리자신을 형성하려 한다. 이렇게 자아의 형성과정은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의식으로 끌어 올리는데 있다. 한마디로 우리 내부에 있는 생득적 어둠을 밝음으로 끌어 올려 명확히 하는데 있다 (SP: 433).*

셸링의 철학이 초월철학 - 자연철학 - 동일철학 - 자유철학 - 계시철학 등으로 이어지는 자기 철학적 전개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인간 존재에 대한 해명을 위한 작업이었으며(최신한,1994: 64) 셸링에 의하면 인간은 이러한 어둠의 원리와 빛의 원리, 자연과 정신, 악과 선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존재자이다. "인간은 자연의 비존재와 절대적 존재=신 사이에 있는 중간(Mitte)에 위치함으로써 인간은

두 가지로부터 자유롭다(SP: 458).” 이에 따라 “인간은 독립적인 뿌리를 자연에 내림으로서 신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신적인 것이 인간 내부에서 일깨워짐으로서 자연으로부터 자유롭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연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자연을 넘어선다.(SP: 458)” 즉, 인간 안에 있는 자연, 악의 가능성은 더 이상 존재의 결점이자 한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해방의 계기’, ‘자유의 계기’로 파악된다(박영선, 2007: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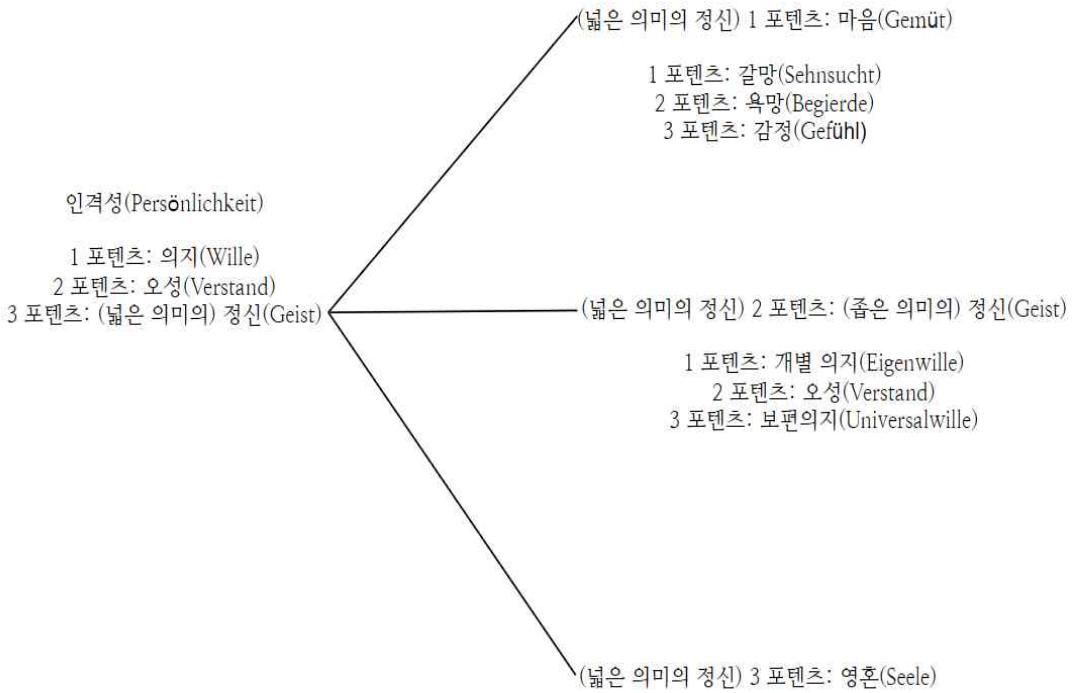
이러한 셸링 인간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셸링 철학을 관통하는 세계 발생 원리인 ‘포텐츠(Potenz)’ 개념은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변증법[45]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chulz, 1972: 380, 박영선, 2007: 274에서 재인용). 앞서 설명하였듯, 셸링에게 있어서 한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돌은 단지 정지해있는 돌이 아닌 돌을 파괴하려는 힘과 돌을 돌이게끔 만드는 힘들 사이의 통일이자 균형으로서 우리 눈 앞에 돌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실재계로부터 정신계로 포텐츠에 양적 차이에 의해 상승하는 셸링 철학의 구도는 실재계(real-System)에서 정신계(ideal-System)로 상승하는 포텐츠 구조인 [그림 4]에 잘 드러난다.

45) 변증법에 관한 헤겔의 설명과는 다른 이해가 요구된다. 셸링의 변증법은 헤겔의 유(有)적 세계 내에서 전개하는 논리적 변증법과는 달리, 무차별(Indefferenz)로부터 우연적, 개연적으로 발생하는 1포텐츠- 2포텐츠-3포텐츠의 개념이다. 셸링은 이러한 포텐츠들의 관계 들의 구조 내에서는 정-반-합이라는 성격을 띄지만 2포텐츠가 1포텐츠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만 발생하여 3포텐츠가 종합되는 것이 아닌 무차별의 세계에서 우연적, 개연적,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중에서 1포텐츠와 2포텐츠, 3포텐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림 4] 세계 시스템의 진화적 변증법
(The Evolutionary Dialectic of the World System)(Esposito, 1977: 124)

이러한 포텐츠의 양적 차이에 의해 상승하는 세계와 같이 셸링은 인간 존재의 인격성(Persönlichkeit)과 정신(Geist) 또한 포텐츠의 구도 하에 설명한다.



[그림 5] 셸링 인격성과 정신의 포텐츠 구조(SP: 465-468; 박영선, 2007: 274-279 내용을 토대로 도식화 함)

셸링의 인격성의 개념은 의지(Wille), 오성(Verstand), (넓은 의미의) 정신(Geistes)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포텐츠로서 의지는 맹목적인 힘, 순수한 의지이다. 이러한 의지에 관해 두 번째 포텐츠인 오성은 의지를 제한하는 반대 힘으로서 작용하며 매개로서 장소제공처(das Standgebende)로서 역할을 하고 단순한 의지에 관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봉사한다. 이러한 의지와 오성의 통일로서 세 번째 포텐츠인 (넓은 의미의) 정신이 발생한다.

넓은 의미의 정신은 마음(Gemüt), (좁은 의미의) 정신(Geist), 영혼(Seele)으로 구성된다. 마음은 무의식의 덩어리[46](SP: 435)이며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가장 어두운 그래서 가장 깊은 심연(SP: 465)이다. 이는 자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우울성(Schwermut), 침울성(Melancholie)이 따라 다닌다(SP: 466). 좁은 의미의 두번째 포텐츠로서 욕망(Begierde)이 있다. 욕망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꽃(SP: 466)이며 존재를 향한 욕망(Sucht)이다. 이러한 존재를 향한 욕망 덕분에 인간 정신은 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적 포텐츠를 향해 상승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의 정신의 세 번째 포텐츠인 감정(Gefühl)으로 고양된다. 이는 마음(Gemüt) 가운데 최상의 것(SP: 466)이다. 이는 기존의 스토아적 사상과 칸트의 이해 속에서 정념(Affekte)이 경멸되고 부정적 개념으로만 간주되는 반면, 셸링의 인간학에서 공개적으로 의식화되고 정념이 창조성을 위한 생산적 기반의 역할을 하며 인간 고유의 어두운 원리를 긍정할 수 있는 논의를 마련한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박영선, 2007: 275-276).[47]

넓은 의미의 정신을 이루는 두 번째 포텐츠인 좁은 의미의 정신의 단계는 인간 행위 차원의 선과 악의 선택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공한다. 앞선 넓은 의미의 첫 번째 포텐츠로서 마음은 단지 욕망과 무의식의 덩어리였으나 두 번째 포텐츠인 좁은 의미의 정신을 통해 "의식화 된 욕망이자 의지로서의 정신(SP: 467)"이 된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정신 또한 개별의지(Eigenwille), 오성(Verstand), 보편의지(Universalwille)로 설명된다. 1 포텐츠인 개별의지는 개인적인 이기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

---

46) 박영선(2007, 275)에서는 마음의 1 포텐츠에는 "무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하였으나 다른 포텐츠에서의 단계와 달리 『슈투트가르트 개인강의』에서 명백한 용어로 표현되어있지않고 "인간의 가장 어둡고 깊은 본성은 '갈망(Sehnsucht)'이다."Das Dunkelste und darum Tiefste der menschlichen Natur ist die Sehnsucht(SP: 465)"라고 표현되어 있어 '무의식'보다 '갈망(Sehnsucht)'의 용어를 선택하였다.

47) 이러한 셸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후 4장 2절에서 셸링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이 인간 안의 인지편향, 제한된 윤리성, 윤리적 퇴색 등의 존재적 한계를 부정하고 제거하거나 파괴해야 하는 개념으로 삼는 것만이 아닌 나름의 긍정성을 발견하고 창조성의 생산적 기반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회복탄력적 행동 윤리학'을 전개한다.

지인 이기적 의지이며 2포텐츠인 오성의 작용으로 인해 보편적, 이념적, 정신적인 것으로 환원됨에 따라 세 번째 포텐츠인 보편의지, 본래적 의지로 상승한다. 악의 현실성은 바로 이 좁은 의미의 정신 단계의 포텐츠 간의 힘의 대립과 복종, 도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셸링은 "인간의 의지는 살아 있는 힘들의 끈(Wmf: 70)"이라고 보며 악이란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흔들거림(Schewanken)(Wmf: 72)"이고 "원리들이 적극적으로 도치되거나 전도된에서 기인하는 것(Wmf: 73)"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셸링은 이러한 개별의지, 이기적 의지 그 자체를 악으로 본 것이 아닌 오성(Verstand)이 개별의지(Eigenwille)의 힘을 제한하지 못하고 보편의지(Universalwille)로 나아가지 못할 때 악이 발생하는 것이다.

> *선에서 작용하는 원리는 결코 이지적인 원리 또는 빛의 원리 그 자체가 아니고 자기성과 결합된, 다시 말해서 정신으로 고양된 원리이듯이 마찬가지도 악도 유한성의 원리에서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과 친밀하게 된 어두운 원리 또한 아집적인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Wmf: 84).*

이러한 셸링의 악에 관한 설명으로 행동 윤리학이 설명하는 비합리성과 악의 원인을 비추어보면, 인간은 제거할 수 없는 유한성 그 자체로부터 비합리성과 도덕적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마치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개별의지와 같은 시스템 1의 사고는 오성과 같은 시스템 2의 사고에 의해 종속되고 통제되어야 도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48]

이러한 셸링의 관점에서 행동 윤리학의 인간의 인지적, 도덕적 한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 윤리적 퇴색(ethical fading), 인지편향 등의 결과는 오히려 인간 이성의 한계

48) 카너먼(Kahneman)의 사고의 이중처리구조(dual process model)에 따른 System 1와 System 2의 사고는 셸링의 개별의지-오성 사이의 관계와 유사성이 있다. 이에 관해 4장 1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에 대한 자기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며 자기 파멸이 아닌 합리성을 강화하게 만드는 계기로 해석할 수 있다(박영선, 2007: 285). 즉, 인간의 합리성은 그 자체로서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개념이라기보다 인간 존재의 비합리성 특질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셸링에게 있어서 행동 윤리학의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연구 결과는 그 자체로 악인 것이 아닌 이러한 유한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에서의 행위가 악인 것이다. 마치 "오류는 정신에 있어서 결여가 아니라, 전도된 정신(SP: 468)."인 것과 같다.

넓은 의미의 정신을 이루는 세 번째 포텐츠인 영혼(Seele)의 단계는 "인간 안에 있는 본래 신적인 것, 즉 비인격적인 것(SP: 468)"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하늘(SP: 471)"이며 앞서 인간 안의 어두운 원리가 창조성의 생산적 기반이 되었듯, 영혼은 인간 안의 빛의 원리로서 어두운 원리와 결합하여 예술, 시, 철학, 종교 등의 영감의 원천이 된다(박영선, 2007: 278). 셸링은 "인간 안에는 어두운 원리가 갖는 전체 힘이 존재하며 또 동시에 빛이 갖는 전체 힘이 존재한다. 인간 안에는 가장 아래에 있는 토대와 동시에 가장 높은 하늘이, 다른 말로 하면 두 개의 중심이 있는 것이다(Wmf: 66)."고 말한다. 이러한 정신과 자연, 즉 정신성과 자기성, 관념성과 실재성, 선과 악, 빛과 어둠이 인간 안에서만 분리되고 오직 인간에게만 선과 악에의 능력이 주어지며 그것을 셸링은 '인간적 자유(der menschlichen Freiheit)'라 말한다. 즉, 어둠으로 가득찬 세상에는 빛이 일절 없다는 점에서 어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빛으로만 가득찬 세상에는 어둠이 없다는 점에서 빛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선과 악의 문제는 오로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수한 능력인 것이다.

2) 가능태로서의 악에 관한 스토아적 이해와의 비교

셸링에게서의 도덕적 삶이 가치있는 것은 인간적 존재 특질에 기인하는 역경과 도덕적 실패의 가능성 덕분이다.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이해

하는 관점으로부터 이어지는 도덕의 당위성이 아닌 인간 실존과 실존의 근거를 구분함으로써 설명하는 셸링의 도덕 철학은 악의 가능성으로부터의 유혹을 이겨내고 파괴성을 극복함으로써 도덕적 삶의 가치는 더욱 "최고로 빛을 발하고(Wmf: 125)"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감동(Wmf: 124)"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셸링에게 있어서 행동 윤리학의 무의식 내에서의 인지편향, 제한된 윤리성, 윤리적 퇴색 등의 현상은 개인을 니힐리즘(nihilism)이나 회의주의 등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생산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 *경박한 우리 시대의 표상들은 악의 유일한 근거를 감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거나 혹은 동물성 혹은 세속적 원리에 놓여있는 것으로 본다. … 이러한 표상은 자유를 지성적 원리가 감각적 욕구와 감각적 경향성을 지배하기만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선을 순수한 이성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보는데, 인간은 악한 행위를 할 때에도 그저 스스로는 수동적으로 그렇게 할 뿐이다(Wmf: 82).*

이처럼 셸링의 관점에서 '악의 원인' 그 자체를 악으로 해석하는 문제는 마치 "천국에 지옥을 대립시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지상(Erde)을 대립(Wmf: 82)"시키는 문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악의 원인을 감각, 욕구, 경향성 등으로 파악하는 스토아적 전통에 따른 이해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정념(pathos)을 부정적으로 간주한다고 평가받는 스토아적 해석에 따르면, 에우다이모니아(번영하는 삶)를 위한 아파테이아의 개념[49]이 중요하다. 이에 따르면 정념은 부정적, 소극적인 개념에 가깝다. 물론, 스토아 학파의 정념(pathos) 개념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그 자체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라기 보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의도적인 무시, 회피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가령, 신경과학적으로 비자발적이고 무의식적, 자동적, 직관적

49) 아파테이아(apatheia)는 '정념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정념에서 벗어남'으로 해석된다.

으로 반응하는 '두려움'에 대해 우리의 이성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이라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정창우. 2022: 242-243).

또한 스토아에서의 정념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을 의미하기보다 피글리우치(Pigliucci, 2016)의 '건강하지 못한 정념'과 '건강한 정념'의 구분을 통해 보다 정교한 이해가 가능하다.

[표 6] 스토아학파의 입장에 따른 정념의 체계
(Pigliucci, 2016; 정창우, 2022: 242에서 재인용)

건강하지 못한 정념		건강한 정념
고통 (pain 또는 suffering)	<-->	합리적인 정서적 고통과 같은 것은 없음
두려움(fear)	<-->	주의/분별 (caution 또는 discretion)
탐욕(appetite, craving, lust 등)	<-->	소망(wishing 또는 willing)
쾌락(pleasure)	<-->	즐거움(joy 또는 delight)

이에 따르면 덕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좋은 상태와 정서적 반응(주의/분별, 소망,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Stephens, 2004)에서 정념 그 자체가 부정적, 소극적 개념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스토아 접근에 따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건강하지 못한 정념'에 대해 의도적인 무시와 회피를 강조했다.

위와 같은 스토아학파의 정념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 윤리학의 문제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스토아학파는 첫째, 우리의 이성에 달려있지 않은 자동적, 직관적, 무의식적 차원의 악에 관해 의도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서의 논의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동 윤리학의 인간 존재 특질에 기인한, 형이상학적 악에 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둘째, 스토아학파는 악의 원인과 악의 결과를 구분하려는 노력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악의 결과에만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악과 악의 원인의 철학적 구분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이에따라 셋째, 원인에 관한 균형 있는 보편적 해석이 어렵다.

물론 스토아는 통제할 수 있는 악의 결과에 관한 의식적인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가령 우리는 의식 차원이 아닌 무의식적 차원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 또는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해석을 거친다면 '건강하지 못한 정념'으로서 두려움이 되지만 긍정적 해석을 거친다면 '건강한 정념'으로서 주의/분별로 발현될 수 있다. 스토아는 이러한 무의식적, 자동적 차원의 악의 원인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식적 차원에서 '악'인 건강하지 못한 정념에 대한 처방에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스토아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의식적 수준에서 건강한 정념을 갖추며 아파테이아의 덕을 갖춘 자연에 따르는 삶, 이성에 합치된 삶을 살고자 한 것이다.

한편, 셸링은 악과 악의 원인을 철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악의 원인에 관해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이 가능하다. 셸링의 관점에서 악과 악의 원인을 해석하자면 셸링은 무의식적 차원의 악의 원인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악의 원인을 악과 구별해내고자 하였으며 무의식적 차원의 악은 창조성의 생산적 기반(박영선, 2007: 259)이 될 수 있다. 이에따라 앞선 [표 6]를 셸링의 관점에서 변형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7] 셸링 철학에 따른 스토아 정념 이해의 변형

	건강하지 못한 정념		건강한 정념
의식수준	고통 (pain 또는 suffering)	-->	합리적인 정서적 고통과 같은 것은 없음
	두려움(fear)	-->	주의/분별 (caution 또는 discretion)
	탐욕(appetite, craving, lust 등)	-->	소망(wishing 또는 willing)
	쾌락(pleasure)	-->	즐거움(joy 또는 delight)
무의식수준 50)	건강하지 못한 정념	=	건강한 정념
	무차별적 동일성(Indefferenz 또는 Identität)의 상태		

셸링에 따르면 건강하지 못한 정념은 단지 건강한 정념과 대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건강한 정념으로 치환될 수 있는 가능태의 성격을 갖는다. 무차별(Indefferenz) 상태에서는 선도 악도 없는 상태로 건강하지 못한 정념이나 건강한 정념 또한 무차별의 근원의식의 상태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이러한 무차별의 상태로부터 양적인 포텐츠의 차이에 따라 건강한 정념과 건강하지 못한 정념으로 현상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건강하지 못한 정념은 부정적이기만 하고 제거해야 할 수동적 대상이라기보다 이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탐색을 가능케 하고 인간의 자유를 완성시키는 주체이자 생산적 기반으로 복권한다(박영선, 2009: 259-260). 가령, 셸링에 따르면 예민함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을 겪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주의력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장점과 근원의식 차원, 무의식차원에서는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으므로 예민함은 부정적 감정이기만 한 것이 아닌 오성에 의해 잘 통제된다면 창조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스토아적 이해와 셸링철학을 비교한 가운데, 우리는 행동 윤리학과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평소 합리적인 사람이 인지편향 등을 잘 관리한다면 완전히 인지편향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또는 '인지편향 자체를 인간에게서 제거할 수 있을까?' 의 질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동윤리학의 기본 가정에 비추어 본다면, 평소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끊없없이 인지편향의 위협과 함께하며, 너무나 쉽게 인지편향적 오류 가능성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악의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 스토아적 이해에 따르면, 자기 안의 제거되지 않는 인간적 유한성과의 싸움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과의 싸움이므로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은 고난의 연속일 뿐일 수 있다. 반면 셸링은 내 안의 제거할 수 없는 인간적 유한성은 오직 인간만이 갖는 자유를 완성시킨다는 점에서 시지프스의 신화를 긍정할 수 있고 내 안의 제거되지 않는 악의 가능성, 인간의 유한성이 있기에 도덕적 삶은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

50) 무의식 수준은 경험적, 심리적 상태로서의 무의식 수준을 이야기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셸링의 근원의식(Ungrund), 무차별(Indeffernez), 동일성(Identität)의 상태는 형이상학적 상태로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의식 수준보다 더 심층의 상태라는 점에서 셸링의 용어를 빌려와 설명하였다.

3) 쇼펜하우어 및 흄의 악 개념과의 비교

악에 관한 경도된 해석을 주장하는 쇼펜하우어와 이성을 정념에 종속시켜 이해하는 흄과의 비교를 통해 셸링의 해석은 악에 관한 균형있는 해석에 가깝다. 셸링의 생각을 극단화 하여 악의 실재성, 적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인간 존재의 도덕적 행동은 단지 니힐리즘,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활동의 의지 자체를 악이며 고통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활동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자 분열된 의지의 현상이기 때문이다(박영선, 2011: 24).

> *나는 악을 어떤 소극적인 것으로 설명하려는 대부분의 형이상학적 체계들의 어리석음 보다 더 큰 어리석음을 알지 못한다. 악은 자기 자신을 느끼도록 하는 적극적인 것임에 반해서 선은 -즉 모든 행복과 만족은- 소극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행복과 만족 등의 선은 단지 희망의 포기와 그리고 극심한 고통의 종결일 뿐이다.*[51]

한편 흄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에서 “이성은 정념의 노예”로 단언하였으며 인간의 이성을 정념에 오직 종속시킴으로써 이성의 단지 정념에 보조적 수단, 도구적 기능만으로 국한 시켰다. 반면 앞서 살펴보았듯, 셸링은 가능태로서의 악과 현실태로서의 악을 철학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일체가 악이라 보는 쇼펜하우어나 인간 존재를 정념적 차원에서만 본 흄의 악 개념보다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에 가깝다.

---

51) A. Schopenhauer, Werke, P Ⅱ, 309쪽 이하(Parerga und Paralipomena, Werke in 5 Bänden, hg. von Wolfgang von Löhneysen, Stuttgart/Frankfurt/M, 1960)(박영선, 2011: 2에서 재인용)

제 4 절 악의 도덕적·윤리적 책임 근거의 과제

1) 셸링의 자유(Freiheit) 개념과 가능태로서의 악

셸링적 인간 이해의 본질인 '자유(Freiheit)'의 의미는 경험적 세계에서의 양자택일적 선택이 아닌 인간 본성에 주어진 도덕·형이상학적 개념으로서 '선(善)과 악(惡)에의 능력(Vermögen zum Guten und Bösen)'이다. 즉, 선과 악을 창조해 내는 힘(Vermögen)이 인간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셸링 이전의 전통적 논의가 악을 단지 선의 결여로 이해하거나 악의 소극성, 부정성만을 부각하였던 것과 대비되며 '자유를 곧 선함'이라고 보았던 칸트의 설명을 넘어 칸트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했던 '악'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와 자유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이같은 셸링의 핵심 개념인 '자유'는 1809년에 야코비와 슐레겔과 스피노자의 범신론에 관한 비판에 답하기 위해 쓴, 『자유론』에 잘 담겨있다.

『자유론』에서는 당시 세계 근거 원리인 기독교적 신으로부터 창조된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악의 발생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완전자이며 절대자이고 스스로 유래하는 자유자인 '신(Der Gott)'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면 창조물인 세계 또한 선으로 가득찬 완전무결한 세상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죽음과 가난, 질병, 악 등에 관하여 그것의 발생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다. 즉, 신으로부터 유래한 세상을 설명하려는 '체계(System)'의 문제와 창조된 세상과 인간에 존재하는 악에의 '자유(Freiheit)'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야코비와 슐레겔의 비판[52]에 대답하는 것이다.

셸링이 슐레겔의 비판에 대응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스피노자의 범신론에 관한 일정 부분의 옹호와 피히테에 근거한 슐레겔의 주관성에 관한 비판이다(강순전, 2000: 2-3). 슐레겔은 스피노자의 범신론처럼 신과 사물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인간의 고유한 자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셸링은 신과 사물의 동일성(Identität)을 슐레겔이 단지 단일

52) "자유라는 개념은 체계 일반과 조화될 수 없다."(Wmf: 11)

성(Einerleiheit)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셸링은 양적 포텐츠(Potenz)의 차이로 이를 설명하고 신과 사물의 동일성을 옹호한다[53]. 더 나아가 셸링은 피히테에 근거한 슐레겔의 주관성에 관해 "자아성이 전부일 뿐 아니라 거꾸로 모든 것이 자아성이기도 하다(Wmf: 40)"고 비판한다. 즉, 셸링이 슐레겔의 비판에 대응한 『자유론』의 내용은 '자유와 체계', '자연과 신', '실재론과 관념론', '주관성과 객관성', '자아와 현상'의 동일성(Identität)에 관한 내용이며 그것의 원리로서 무차별에 의한 포텐츠의 양적 차이[54]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과 악에의 능력(Vermögen zum Guten und Bösen)'을 셸링은 자유(Freiheit)라 말한다. 한편, 신은 스스로 유래하는 자이고 자유로운 신으로부터 세상과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신은 오직 절대선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였을 때, 신은 인간이 갖고 있는 '선과 악에의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은 마치 신처럼 자유롭지만 '신처럼 스스로 유래하며 세상을 창조하는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신과 달리 '선과 악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이다. 즉, 인간과 신은 다른 의미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듯 셸링은 인간만이 갖는 '선과 악에의 자유'가 오로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수한 능력이라는 점에서 악을 저지르고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오직 인간 스스로에게만 부여되는 특수성으로 보았다. 인간에게만 발생하는 선과 악의 문제는 셸링에게서 개별의지(Eigenwille), 보편의지(Universalwille), 오성(Verstand)의 용어에 의해 설명하였다.

어둠과 근거로부터 발생한 개별의지는 마치 '자연-인간-신적 근거' 관계에서의 자연'의 문제처럼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보편 의지 또한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오성에 의해 개별의

53) 셸링은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설명에 관하여 신과 사물의 동일성에 관해서는 동의하지만, 스피노자의 신 개념이 인간 심연 너머의 객관적 실재로 파악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셸링의 신 개념은 특히 인격신으로, 이성 너머로 파악가능한 신적 개념이 아닌 세계의 근거인 무차별로부터 생성되는 신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셸링의 인격신 또한 자연 속의 돌멩이나 인간과 포텐츠의 양적 차이만 있을 뿐 돌멩이나 인간이나 신이나 무차별 세계에서는 동일하다.

지가 보편의지에 따라 조화로운 상태가 되면 그것이 선이고 개별의지를 오성에 의해 보편의지에 종속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이 된다. 셸링은 악을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문제라 본다. 이는 마치 초원의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일을 동물적 본능에 의한 행위라 보고 모종의 잔인성을 띈 악의 현실성의 발현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오직 인간 안에서만 선과 악, 빛과 어둠, 실재성과 정신성의 분리가 이루어져 영원한 일자에의 '열망(Sehnsucht)'을 갖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개별의지' 자체는 악의 가능태[55]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가능태로서의 악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닌 오성에 의해 보편의지에 종속시키지 못할 때 현실태의 악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태로서의 악은 현실태의 악과 구분되어야 한다. 셸링은 이러한 가능태로서의 악 덕분에 인간은 절대자와 자연 사이의 중간적 지위자에 위치하여, '신의 내막을 알 수 있는자(Mittwisser)[56]가 된다고 말한다.

한편, 가능태로서의 악에 관해서는 보다 정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셸링 철학의 세계 발생 원리인 포텐츠(Potenz)에 따라 무차별(Indefferenz) 내에서의 가능태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인간 심리의 의식적 차원에서, 행동이나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조건이나 때가 맞으면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태'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무의식적 차원의 악의 가능태와 의식적 차원의 인지 가능한 악의 가능태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며 전자는 창조성의 생산적 기반인 긍정적 개념인 반면, 후자는 도덕적 책임을 요하는 의식 내의 현실태로서의 악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렇다면 행동 윤리학이 밝힌 악의 기제는 가능태로서의 악인가 현실

---

55) 악의 가능태 또는 가능태로서의 악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마치 아직 도덕적 죄를 행동으로 짓지는 않았지만 의식 속에서 도덕적 죄를 상상하거나 곧장 악이 될 수 있는 가능태로서의 악 개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관해서 보다 명확한 구분은 2장 2절 2항에서 다루었다.

56) Schelling, *Breifwechsel mit Eschenmayer bezüglich der Abhandlung* "Philosophischer Untersuchunger üb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iet", SP Ⅷ, 185쪽(박영선, 2007: 266에서 재인용)

태로서의 악인가? 가령, 인지편향을 '원인으로서 인지편향'과 '결과로서 인지편향'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무의식의 상태가 아닌 의식적 상태로 올라와 생각이 되거나 현실에서 행동으로 표출한다면 '결과로서의 인지편향'이 되어 '현실태로서의 악'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원인으로서의 인지편향'은 '가능태로서의 악'에 해당한다고 보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식할 수 있는 심리현상, 현실에서의 행동으로 표출한다면 명백한 악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셸링의 방식으로 행동 윤리학을 해석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원인으로서의 악의 기제'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통제해야 하고 언제든지 선을 파괴할 수 있는 '결과로서의 악의 기제'에의 위험성을 수반한 숙명적 존재인 것이다. 이는 오이디푸스에 관한 셸링의 생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Οἰδίπους)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숙명적 죄에 대해 스스로의 죄책감에 따른 도덕적 처벌을 내리는 비극적 인물이다. 셸링은 오이디푸스 대해 "피할 수 없는 악행에 대한 형벌을 기꺼이 짊어지고 …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자유를 증명하고, 자율적 의지를 선언하면서 몰락[57]"한다고 표현하며 숙명적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 고유의 것임을 말한다. 셸링은 이에 관해 "보편적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악은 항상 인간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남는다. 근거가 악 그 자체를 만들 수는 없다. 모든 각각의 피조물은 자신의 고유한 죄로 인해 몰락(Wmf: 101)."한다고 본다. 즉, 행동 윤리학이 밝힌 '제한된 윤리성'이든 '도덕적 이탈'의 개념이든 인간의 유한성에 기인한 도덕적 실패더라도 그것의 고유한 책임을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셸링이 말하는 인간적 자유는 경험적 현실에서의 선택의 자유만이 아닌 인간 존재로서 실존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형이상학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악인은 악을 창조할 수 있는 힘

57) Schelling, *Philosophische Briefe über Dogmatismus und Kritismus*(1795), Sämtliche Werke, gh. v. Karl Friedrich August Schelling, Stuttgart/Augusburg 1856-1861, SW I, 337.(박영선, 2015: 97에서 재인용)

(Vermögen)을 갖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들을 의지에 따라서 의지를 거역하지 않고 행한 것이다(Wmf: 110).”

2) 전통적 악 개념과의 비교

비도덕적 행동은 단지 합리적 사고의 결여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면에 실재하는 악의 원인의 능동성에 의해 발생하는 개념인가? 전자는 변신론의 관점에서 악을 선의 결여(privation)로 보는 중세 신학과 라이프니츠의 전통적 악 개념이라면 후자는 악을 실재한다고 보는 칸트와 셸링의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셸링은 아우구스티누스-라이프니츠-스피노자-칸트-셸링-쇼펜하우어 등으로 이어지는 변신론에 관한 논의에서 칸트와 같이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악의 실재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악 개념과 구분되며 한편, 오로지 인간의 의지에만 악의 원인을 귀책시키는 칸트의 입장과 달리 인간 존재 자체에 기인하는 악의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라이프니츠는 변신론의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중세 아우구스티누스 계열의 중세 신학의 선과 악에 관한 개념을 받아들인다. 라이프니츠에게서의 악은 ‘결여(privation)로서의 악’ , 세상과 선을 위해 ‘필연적 존재(Condition Sine qua non, 필요조건)’이며 악은 신의 계획 하에 존재하는 시험 또는 벌의 수단이자 ‘보다 적은 선’이다. 라이프니츠는 악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악은 큰 선을 수반한다. 예컨대 군대의 장군은 상처도 없고 승리도 없는 상태보다는 약간의 상처가 있더라도 승리를 더 선호할 것이다. 나는 신이 보다 큰 선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악을 허용하였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에 동의한다. 나는 고대인들의 이른바 아담의 ‘행복한 죄(felix culpa)를 제시한 바 있다. … 악을 지닌 세계가 악이 전혀 없는 세계보다 낫다*(김영태, 1992: 114에서 재인용).

이 같은 라이프니츠의 악은 악에 관한 낙관주의적 입장이며 분명히 인간의 의지에 기인하는 악에 관하여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라이프니츠의 악은 가령, 성폭행이나 강간의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너의 고통은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신의 계획이였다고 말하며 범죄자에게 너의 악은 피조물의 한계에 지워진 필연적 개념이였다고 설명한다면 가당치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셸링은 이러한 라이프니츠에 관해 "그는 악이란 차가움이나 어두움이 그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원리를 따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Wmf: 78)."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칸트는 라이프니츠의 악을 신의 완전성을 옹호하기 위해 논리적 범주에서 악을 제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현실에 실재하는 악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악을 선과 대립하여 '실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칸트가 1768년 라이프니츠에 대해 '왼손'과 '오른손'의 개념을 통해 라이프니츠의 선과 악에 관한 개념을 비판한 데에 잘 드러난다(박진, 1998: 176). 왼손과 오른손은 대칭적인 현상(symmetrisch)의 경우 완전히 동등하고 유사(vögllig gleich und ähnlich)하지만 공간적 위치의 차이가 두 개체를 뚜렷이 구별하게 만든다.[58]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사물의 개념이 같다면 같은 징표를 지닌다고 보는 '구별불가능자의 동일성 원리'에 따라 왼손과 오른손이 동일하다고 해석하며 악은 보다 적은 선이며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왼손과 오른손이 개념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공간과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왼손과 오른손이 논리적으로는 대립하지 않지만 실재적으로는 대립하듯이, 악은 선에 적극적으로 대립하며 고유한 적극성, 실재성을 띈다. 즉, 칸트의 악 개념은 신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고유한 자유의지에 따른 도덕적 문제로 치환된다.

칸트에 따르면 순수 실천이성의 법칙은 명령(imperativ)이 되고 순수

58) I. Kant(1768), *Von dem ersten Grunde des Unterschiedes der Gegenden im Raume*, 전집 Ⅱ, 375-384(박진, 1996: 176에서 재인용)

실천이성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때 악이 성립하며 악은 준칙의 전도에 따른 행위[59]이다. 칸트의 악 개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도덕 차원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악에 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자유의지에 따른 악에 관한 극복 가능성을 제공해주었다(이광모, 2004: 155). 그러나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악은 인간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 순전히 제거 가능한 '도덕적 악'만의 문제인가? 오히려 인간 내에 실재하는 인지편향, 윤리적 퇴색(ethical fading),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과 같은 특성에 따라 도덕적으로 실패하기 쉬운(morally fallible) 존재가 되는, '형이상학적 악'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자연적 악에 관하여 "악의 근원(Ursprung)에 관해 우리는 알 수 없다.[60]"고 대답할 뿐이다.

이같은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악과 칸트의 도덕적 악 개념이 갖는 문제를 셸링은 신을 중심으로 하여 '신의 근거'와 '신의 실존'을 구분함으로써 '악의 가능성'과 '악의 현실성'을 구분하고 인간 존재 특질에 기인하는 악의 문제를 설명함과 동시에 자유의지에 따른 도덕적 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논의를 구상한다.

먼저, 셸링의 신 개념은 인격신으로 신의 실존은 빛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지만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인격신이 되기 위해 신은 그 자체로 빛 자체로 실존하지만 자신 안에 어두움의 원리, "신 안의 자연(Nautr)(Wmf: 53)"을 자신의 근거에 둔다. 그러나 이러한 신의 근거 또한 어떤 것도 "신에 앞서 또는 신의 밖에서 있을 수 없으므로 신은 자신의 실존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Wmf: 53)." 이러한 '신의 근거'와 '신의 실존'의 구분은 '사물들의 근거'와 '사물들의 실존'을 가능케한다.

---

59) I. Kant,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ssen Vernunft*, in: Werke in Zehn Bänden, Hrsg. v. Wihelm Weischedel, Darmstadt, Ba.7, S. 686(이광모, 2004: 155에서 재인용)
60) *Ibid*, 676(이광모, 2004: 155에서 재인용)

신과 구분되기 위해, 사물들은 신과는 다른 근거에서 생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이 모순은 단지 사물들은 그것들의 근거를 신 안에 있지만 신 그 자신은 아닌 것, 즉 신의 실존의 근거인 것에 두는 방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Wmf: 58).

이러한 피조물들의 실존 근거이자 악의 가능성, 어두움의 원리 덕분에 사물들은 인간과 세계, 자연, 사물들은 실존할 수 있게 된다. 셸링은 이에 관해 "이런 선행하는 어두움이 없었다면 피조물의 실재성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둠은 피조물에게 불가피하게 부여되는 유산(Wmf: 60)"이라 표현한다.

이러한 악의 가능성, 악의 원리, 실존의 근거와 같은 형이상학적 악(malum physicum)을 셸링은 '보편적 악'이라 일컫고, 피조물의 실존 근거에 따른 악의 가능성이 아닌, 인간이 저지르는 악의 현실성에 대해서 '근본악(das radikale Bösen)'이라 부르고 양자를 구분한다. 악은 유한성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어두움의 원리로부터 자기 고양된 인격성(Persönlichkeit)에 비롯된 것이며 경험적 자연의 동물도 식물도 심지어 신도 갖고 있지 않은 인간 만의 고유한 본질, 자유(Freiheit)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악의 현실성은 완전하게 다른 탐구대상이다. 자연의 근거로부터 분출된 원리는 인간을 신과 구분하게 만드는 원리인바,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자기성(Selbstheit)이다. 그러나 이 자기성은 자신을 관념적 원리와 통일되게 만듦으로써 정신(Geist)이 된다. 자기성은 그 자체로서 정신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아집을 가진, 개별적(신과 구분되는) 본질로서의 정신이다. 바로 이러한 결합이 인격성(Persönlichkeit)을 만들어 낸다(Wmf: 68).

이러한 셸링의 악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칸트의 도덕적 악과 비교하였을 때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인간 존재 특질에 기인하는 악에 관한 철학적 정초를 제공하며 동시에 악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라이프니츠

의 형이상학적 악과 비교하였을 때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제 5 절 셸링 철학에 관한 비판과 극복 가능성

1) 무차별(Indefferenz)에 관한 오해와 해소

셸링은 일찍이 15세의 나이에 당대 최고 대학이던 튀빙엔 대학에 입학하여 자신보다 몇 살이나 많던 헤겔과 횔덜린 등과 사상적으로 교류하였으며 23세의 나이에 괴테에 의해 예나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천재였다. 셸링은 늦깎이 나이에도 강의만 하던 그의 변변찮던 친구 헤겔을 교수 자리에 추천해주었으며 고령의 나이에는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에 의해 베를린 대학에 초빙되어 당시 주름잡던 헤겔학파에 대항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말년의 그의 강의를 들은 이들 중에는 키르케고르, 엥겔스, 바쿠닌 등이 있으며 실존주의 철학, 프로이트, 융의 무의식 이론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의 철학적 사상적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유독 국내 도덕교육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헤겔의 그의『정신현상학』에서의 서문에서부터 비판하는 무차별에 관한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또는 셸링의 초월철학, 자연철학, 자유철학, 신화철학, 계시철학 등으로 이동하는 그의 철학적 관심이 그의 사상적 일관성이나 맥락이 고려되지 못한 채 단지 변덕스러운 철학자쯤으로 평가되고[61]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먼저 그의 철학적 관심은 오히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칸트가 해명하지 못한 일관된 철학적 체계의 수립을 위해 자연과 정신, 자유와 체계를 동일하게 설명

61) 셸링은 철학계의 프로테우스(Proteus)라 불리기도 한다. 셸링은 자유자재로 자신의 모습을 변신시킬 수 있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테우스와 같이 모든 현상과 가능태를 일관된 체계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무차별을 제시한 것이다.

하고자 하였다는 앞선 설명을 통해 오해가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편, 셸링의 무차별에 관한 오해는 슬라보예 지젝(1996)의 지적을 살펴봄으로써 극복 가능성을 살펴본다.

먼저, 헤겔은 그의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셸링의 무차별 이론을 강하게 비판한다.

> *절대의 상하에서는 일체가 동일하다는 이 한낱 형식적인 지를 구별과 내실을 갖춘, 아니 충실한 내용을 모색하고 탐구하는 인식에 대치시키면서 흔히 절대적인 것이란 캄캄한 밤중이며 모든 소가 검은색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투로 우겨대는 것은 천진하기 이를 데 없는 인식력의 결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정신현상학, 50).*

그러나 셸링의 무차별(Indefferenz) 개념은 인식의 합리성이라는 부정적인 반성과 사유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무차별의 개념은 무차별로부터 선과 악, 일체 만물이 생성하는, 긍정성으로서의 부정의 개념이다. “무차별자를 단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생동적인 긍정적 능력(Wmf: 45)”인 것이다. 신은 스스로 유래하는 자이지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자기 안에 신적 근거로서 차별적 세계의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무차별(Indefferenz)의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다.

> *무차별자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무근거가 없다면 원리가 둘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흔히 생각하듯 무근거는 구분을 되돌려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분을 만들어 내고 승인한다. 근거와 실존하는 것의 구분은 단순히 논리적인 것이 아니며, 임시변통으로 끌어들여 종국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어 버리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구분은 최고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되며 또한 완전히 파악 가능한 대단히 실제적인 구분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Wmf: 151).*

오늘날 슬로베니아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셸링의 무차별 이론에 관

해 양자역학에 빗대어 무차별의 타당성을 밝힌다. 지젝은 무차별을 "양자 현실에서 측정된 관찰가능한 현실로의 이행은 존재에서 생성으로의 이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슬라보예 지젝, 1996: 374)."라고 말한다. 즉, 당대 물리학의 주류인 뉴턴식의 기계론적 환원에 따르면 헤겔과 같이 실재하는 입자로부터 세계를 상정하는 원자론적 세계관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셸링은 입자의 실재성을 인정하기 보다 모든 물질을 '정신화된 자연', '비결정적인 에너지'로 보고 이러한 모든 가능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무차별, 무의 세계를 상정하였다.

양자물리학에서 "입자가 난데없이 튀어오르고는 다시 사라지는 과정인 이른바 진공요동(vacuum fluctuation)"(슬라보예 지젝, 1996: 376)은 고전물리학의 실재를 상정하고 설명하는 세계가 아닌 모든 "무의 심연(Nothingness)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슬라보예 지젝, 1996: 377)"과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슬라보예 지젝, 1996: 380)"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지젝은 이러한 무차별의 세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가 대상의 '단단한 현실'로 경험하는 것은 궁극적 현실이 아니다. 즉 그 아래에 환원 불가능한 시간의 선을 가지지않은 잠재성들의 또 다른 우주, 어떤 것이 무로부터 등장하는 등등의 우주가 존재한다. … 마치 그 옛날 셸링이 옳았던 것처럼, 이미 외적 현실 자체의 기초가 되는 어떤 것이 인간의 자유와 언어 속에서 고차원적 힘으로 고양되는 것처럼 말이다.(*슬라보예 지젝, 1996: *382).*

기존 고전적 물리학이 주류이던 시대의 세계에서 유(有)를 상정하고 세계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던 헤겔의 설명은 매우 적절한 설명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지젝의 관점처럼, 양자역학에서 설명하는 "자연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낯선 것(unheimliches)이라는 관점(슬라보예 지젝, 1996: 382)"에서 보았을 때, 헤겔의 셸링에 대한 "검은소와 밤"의 비유는 오히려 깜깜한 밤으로부터 검은 소, 누렁 소, 흰 소 등의 모든 차별적 세계의 존재들이 탄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소를 깜깜한 밤이라는 더 낯설고 거대한 개념 속으로 데리고 들

어간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62]

2) 과도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의 문제와 극복 가능성

어쩌면, 셸링의 악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의 무게는 가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가령, 오이디푸스 일화에 비추어봤을 때, 의도하지 않은 악이나 심지어 예정된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질적 자유에 따라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앞선 2장의 도덕과 악 개념에 살펴봤듯이 심지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생각과 의식 속에서 저지른 악 또한 현실태로서의 악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가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지나 의도의 관점에서 무엇이 도덕적/비도덕적이냐의 논쟁을 하기 보다 행동 윤리학이 도덕성/비도덕성을 구분하는 접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동 윤리학의 접근은 인간의 의도가 선하면 선한 행동이라 보거나 인간의 의지가 악해서 악한 행동이라 규정하기 보다 인간의 의도와 의지와 무관하게 행동의 성격을 결정한다. 즉, 인간의 정신활동으로부터 개인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행동 수준에서 도덕적/비도덕적을 구분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치 콜버그, 레스트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 추론과 정신 활동으로부터 행동으로 나아가는 접근과 달리 행동 윤리학은 인간의 도덕적/비도덕적 행동이 행동 단계에서 이미 구분 가능하다

62) 헤겔의 관점에서 셸링은 무(無)의 세계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받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셸링을 옹호하고 헤겔을 비판하려는 이분법적 구도라기보다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의 토대를 셸링 철학에 놓기 위한 과정임을 상기해야 한다. 행동 윤리학에서의 악이 무의식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은 헤겔 식의 유(有)의 세계를 상정하고 설명하는 구도에서는 행동 윤리학이 주목하는 악의 문제에 관한 철학적 정초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절은 헤겔 철학 체계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닌, 셸링이 그동안 오해를 받아온 것에 대해 슬라보예 지젝의 설명을 통해 셸링의 무차별 이론이 허무맹랑하기만 이야기만은 아님을 갈음하는 것이다.

보고 이로부터 악의 원인을 거꾸로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행동 윤리학의 접근은 행동 수준에서 도덕적/비도덕적의 구분이 먼저 이뤄지고 비도덕적 행동이 발생한다면 인간의 정신활동에서도 악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 윤리학의 접근은 선과 악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행동 이전에 도덕적 의지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설명하는 칸트의 방식 보다 셸링의 선과 악에 관한 설명이 매우 적절한 대안이며 이에 관해 앞서 3장에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셸링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의 근거가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하게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가혹하기보다 오히려 매우 적절한 철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따른 죄의식, 죄책감은 넓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자 반두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적절할 수 있다. 인간은 적절한 죄의식, 죄책감을 지녀야 도덕적 이탈 기제가 발생하지 않고 건전한 자기 조절이 가능하며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Bandura, 2016: 15).

제 4 장 셸링적 행동 윤리학[63]의 도덕교육적 함의

이제 행동 윤리학은 셸링 철학에 정초함으로써 콜버그가 지적한 심리학자의 오류나 흄의 길로틴의 문제를 벗어나 도덕교육에서 활용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는 '평범한 개인이 왜 악을 저지르는 가'에 관하여 증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악의 원인을 알게 하는 과정에서 '나는 도덕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 식의 자만심이나 또는 '타인의 티끌을 보면서 자신의 티끌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악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방어기제를 작동시킬 수도 있다. 행동 윤리학자 스미스와 카우차키(Smith & Kouchaki, 2021: 277)도 이러한 자만심(overconfidence)이나 방어적인 자세(defensiveness)등이 윤리적 학습(ethical learning)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라 지적한다. 이에따라 이번 장에서 행동 윤리학을 도덕교육에서 풍부하게 활용하기 위해 도덕교육에서의 주요 개념을 셸링 철학의 맥락과 함께 이해하고 셸링 철학과 주요 개념이 상통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행동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다룬다.

. 제 1 절 셸링적 행동 윤리학 악 개념의 도덕교육적 함의

1) 도덕적 메타인지(moral metacognition)에의 함의

셸링철학의 '악의 발생 원리'는 도덕적 메타인지 개념이 갖는 의미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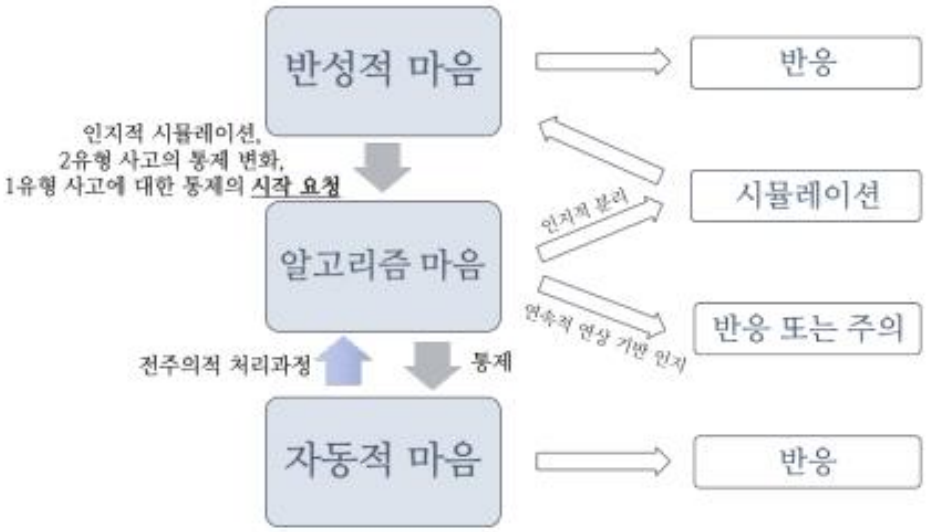
63) '셸링적'이라 함은 셸링 철학에 정초하여 악과 악의 원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의 의미이다. 독일 관념론 시대의 철학자 셸링은 현대의 최신 행동 윤리학에 대해 언급하였거나 행동 윤리학에 관한 관점은 당연히 따로 없으며 본 연구자의 셸링철학에 대한 해석을 통해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파악한다.

면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악에 관한 책임은 언제나 인간의 자유에서 비롯하여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도덕적 메타인지를 통해 악의 원인을 끊임없이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셸링은 이러한 악의 원인이 단지 합리성의 결여나 실수에서 발생한다고 보기보다 인간 안에 실재하는 악의 능동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본 점에서 오늘날 행동 윤리학이 인간 안에 악의 기제가 실재한다고 보는 인식과 맞닿은 점이 있다.

메타인지(metacongnition)는 메타(meta)와 인지(cognition)의 합성어로 메타(meta)의 어원인 그리스어 메타(μετά)에서 유래하였으며 '~을 넘어서', '뒤', '~에 대해서' 등의 의미로 해석되어 글자 그대로 '인지 이상의 인지' 또는 '인지에 대한 인지'로 해석할 수 있다. 메타인지를 심리학적 용어로 처음 정의내린 Flavell(1979)은 메타인지를 "생각(thinking)에 대한 생각(thinking)"이라 하였으며, Metcalfe & Schimamura(1994)는 "앎(Knowing)에 대한 앎(Knowing)"이라 정의 내린 바 있다(정창우, 2022: 에서 재인용).

이러한 메타인지가 일반적 명제에 대한 판단이라면, 도덕적 메타인지는 도덕적 명제에 대한 판단과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Cheruvalath, 2019: 38-40) 또한 도덕적 추론을 특정 맥락에서 인지하고, 감시하며, 성찰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Narvaez, 2010: 173; McMahon & Good, 2016: 2, 이희지, 2022: 67에서 재인용). 그러나 메타인지라는 최신 심리학의 용어의 생성과 별개로 메타인지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 등이 명백하게 메타인지의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철학적 관점에서 자기 반성(self-reflection) 등의 의미로 사용한(Padmanabha, 2020: 3) 유서 깊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셸링의 (좁은 의미의) 정신의 포텐츠 구조는 [그림 7]에 따른 [그림 8]과 같이 메타인지의 개념 및 구조와 의미있는 공유 가능성이 있다.

먼저, Stanovich(2009)는 메타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래 [그림 6]과 같이 마음을 삼중구조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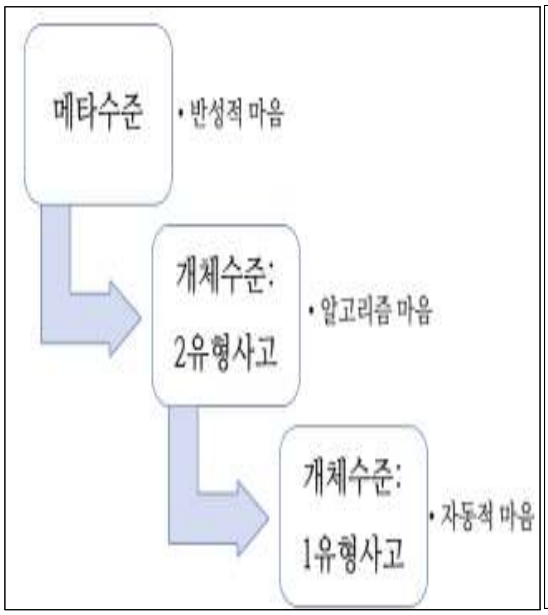


[그림 6] 마음의 삼중 구조(Stanovich, 2009: 67; 이희지, 22: 4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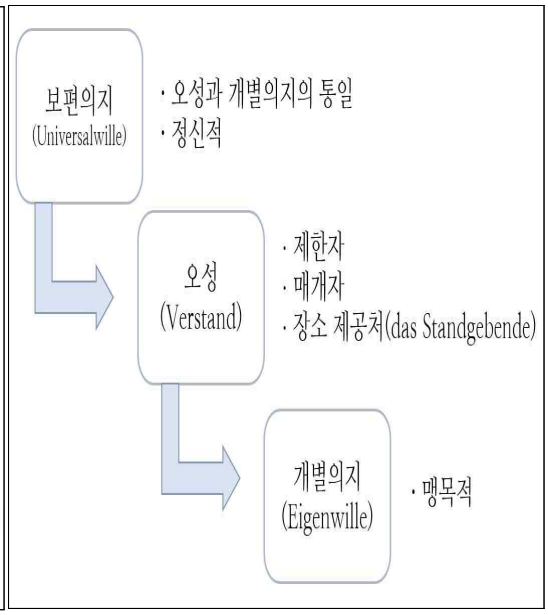
Stanovich(2009)는 카너먼(Kahneman)[64]의 사고의 이중처리구조(dual process model)에서의 1유형의 사고와 2유형의 사고에 대한 설명보다 상위의 차원인 반성적 마음(reflective mind)을 제안하였다. 1유형사고는 자동적으로 기능하는 다중적 시스템(autonomous set of System, TASS)이라 일컬으며 지각되고 인지된 현상에 관한 빠르고 자동적인 마음이다(Thompson, 2009: 173; 이희지, 2022: 46에서 재인용). 한편 2유형의 사고는 알고리즘 마음(Algorithmic mind)로 다중적 시스템(TASS)의 자동적 반응을 중단시키고 합리성을 통한 인지적 분리 능력(cognitive decoupling)을 근간으로 한다(Stanovich, 2009: 58-63). 그리고 반성적 마음(reflective mind)은 이러한 시스템 2의 지적 능력과 또 다른 사고의 성향과 관련하며 1유형에 관한 시스템 2의 통제나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사고인 시스템 2에 의한 변화를 요청한다(Stanovich, 2009: 67,

64)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카너먼(Kahneman)은 인간의 사고 시스템은 빠르고 자동적인 직관과 관련한 System 1의 사고와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System 1에 비해 느리고 의식적인 추론 능력과 관련한 사고이다(정창우, 2022: 143).

이희지, 2022: 47에서 재인용). 이러한 메타인지와 시스템 1, 2 사고 간의 관계 및 각 단계의 특징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사고의 이중처리구조와 메타인지(이희지, 2022: 48)



[그림 8] 셸링 (좁은 의미의)정신의 포텐츠 구조

한편 [그림 8]에 따르면, 좁은 의미의 정신의 첫 번째 포텐츠인 개별 의지(Eigenwille)는 “단순한 추구 또는 욕구, 즉 맹목적인 의지(Wmf: 65)” 자체이다. 이러한 개별 의지(Eigenwille)에 관하여 오성(Verstnad)은 “제한”하고 보편의지(Universalwille)로 “매개” 하며 오성(Vestand)은 개별 의지(Eigenwille)에 관해 “반대힘으로 작용” 하고 “장소 제공처(das Standgebende)”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보편의지(Universalwille) 단계에서 “오성과 의지는 통일”되며 “정신”이라 부른다(박영선, 2009: 274).

마치 시스템 1의 사고가 자동적이며 빠른 직관적 사고인 것처럼 셸링의 개별 의지는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이기심이자 아집 그 자체이다. 그리고 시스템 2라는 합리적 추론 성격의 사고는 시스템 1의 사고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듯이 오성은 개별의지에 제한자로서 기능한다. 또한 모쉬맨(D. Moshman)이 ‘거짓된 도덕적 정체성 위험성(false moral identity)을 통해 시스템 2 사고의 한계를 지적한 점은 셸링이 보편의지의 단계로

고양되지 못한 오성의 한계를 지적한 것과도 유사하다.

모쉬맨(Moshman, 2009: 289)은 메타인지로 나아가지 못한 시스템 2 사고가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합리성을 이용하는 '도구적 합리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셸링은 오성이 개별의지를 제한하지 못해 "중심을 이탈하면 보편의지 대신에 단순한 개별의지가 지배(Wmf: 70)"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셸링에 따르면 악은 "원리들이 적극적으로 도치되거나 전도된 데에서" 발생한다. 이에따라 오성은 개별의지를 보편의지에 종속시킴으로써 "사랑의 정신이 의지를 지배(Wmf: 70)"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시스템 2의 사고는 보다 상위 차원의 인지인, 메타 인지의 단계로 나아감으로써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다. 물론, 셸링에 따르면 인간의 (좁은 의미의) 정신 또한 더 높은 차원의 상위 포텐츠로 고양되듯이, 메타인지의 용어는 인간의 경험적 인식 내에서의 사고라는 점에서 셸링이 의미하는 바와 완벽하게 상응하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메타인지와 셸링 (좁은 의미의) 정신 포텐츠(Potenz) 간의 의미있는 공유 가능성을 바탕으로 셸링적 행동 윤리학은 다음과 같은 도덕적 메타인지에 함의를 갖는다. 셸링에 따르면 앞서 라이프니츠와 같은 전통적 악 개념과 달리 악은 선의 결여가 아닌 능동적인 성격을 갖고 선을 끊임없이 위협한다는 점에서, 행동 윤리학이 밝힌 인간 내면에 실재하는 악의 가능성을 메타인지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편, 셸링에 따르면 "격정 그 자체가 악이 아닌 까닭에(Wmf: 114)" 개별의지 자체가 악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개별의지는 피조물의 필연적인 원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System 1의 사고는 그 자체로서 악인 것이 아닌 피조물의 원리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밖에 없는 사고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앞서 악의 현실에 관한 인간 고유의 책임을 졌던 오이디푸스의 일화에서와 같이 셸링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고 저지르는 악에 관해 인간 본질적 자유에 따른 고유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인은 모든 무의식적·의식적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메타인지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악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왜냐하면 강제란 생성에서만 느껴질 뿐 존재에서는 느껴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들을 의지에 따라서 의지를 거역하지 않고 행한 것이다.(Wmf: 110)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적 메타인지는 System 1과 System 2를 아우르며 System 1의 사고에 머무를 것인지 시스템 2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탐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Thompson, 2009: 174) 인간의 자동적 사고에 기인하는 인지편향 개념이나 도덕적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메타인지를 촉진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도덕적 메타인지를 촉진하는 방법 중 하나인 '도덕적 성찰(최윤정, 추병완, 2022: 179)' 개념에 따르면 자신의 도덕적 의사결정에 대한 '성찰을 경험(Cheruvalath, 2019: 589)'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행동 윤리학은 증거에 기반하여 자기 안에 실재하는 도덕적 실패 원인을 성찰하도록 도울 수 있다. 가령, 아래 [표 8]과 같이 행동 윤리학의 결과를 활용하여 도덕적 실패 원인을 검토함으로써 도덕적 메타인지를 촉진하는 것이다.

[표 8] 도덕적 메타인지를 촉진하는 도덕적 실패 원인 검토 질문지 (Drumwright, Prentice & Biasucci, 2015: 437; 추병완, 2021b: 8-9에서 재인용; 정창우, 2022: 21-28, 40-41; 정창우, 석자춘, 2021: 14의 내용을 변형함)

도덕적 메타인지를 촉진하는 도덕적 실패 원인 검토 질문지
<도덕적 사각지대 검토 질문지> ·윤리적 퇴색 & 제한된 윤리성: 나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서 도덕적인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다른 가치에 매몰되어 도덕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요? ·복종과 권위: 스스로 도덕적 가치를 생각하기보다 권위에 순응하여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나요?
·동조 편향: 친구나 반 분위기에 휩쓸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았나요?
·시간 압력: 여유있게 충분히 숙고하고 행동하기 보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나요?
·투명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결정을 하기 쉽지 않았나요?
·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에 옳지 못한 행동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요?
·청결: 비도덕적 행동이나 결정을 내릴 때 방이나 교실 등이 청결하지 않지는 않았나요?

<인지편향 검토 질문지>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을 토대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지 않았나요?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를 자의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나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귀찮아서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한 면만 보려고 하지 않았나요?
·과도한 자신감이나 자신의 능력이 평균 이상이라는 믿음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나요?
·자신이 틀린 것을 마치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질문하는 사람(선생님, 동료 등)에게 긍정의 대답을 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지 않았나요?
·자신의 주관에 따른 의사결정보다 다수의 의견에 그냥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권위가 있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규정에 따라 그 집단 내의 개체들은 전부 동일하다고 믿지 않았나요?

<도덕적 이탈 검토 질문지>

·도덕적 정당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가치 있는 또는 도덕적 행동인 것처럼 합리화 하지 않았나요?
예: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지하드와 같이, 전쟁 또는 테러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다양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를 생략하고 종교적 의무라는 신념에 경도되어 범행을 저지르는 것.

·유리한 비교: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지 않았나요?
예: 테러리스트들이 파괴·학대와 자신들의 행위를 대조시키면서 자신의 행위를 순교행위로 묘사하는 것

·완곡한 표현: 나의 말이나 행동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포장하지는 않았나요?
예: 사람을 죽이는 것과 쓰레기 처리, 공격과 깨끗한 외과수술식 타격 등 두 표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유하여 완곡하게 표현하려 하는 것

·책임의 전가: 나의 책임을 교묘히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는 않았나요?
예: 밀그램(S. Milgram)의 실험처럼 권위자의 명령이 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완화하고 권위자의 주장을 따라 권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것

·책임의 분산: 나 말고도 내 친구도 또는 다른 사람도 했다는 이유로 내 책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예: 분업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책임이 크게 줄어든다면 다수가 함께 벌이는 비도덕적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비인간화: 내가 저지른 잘못을 감추기 위해 대상을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빗대어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예: 전시에 적국을 나와 같은 평범한 여러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된 국가로 보지 않고 하나의 악마 또는 모든 국민을 악마 자체로 바라보는 것.

·비난의 귀인: 나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려하기보다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나요?

예: 연쇄살인범이 자신의 연쇄 살인 행위가 어린 시절 나의 부모나 선생님이 나를 따뜻하게 대했다면 나의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비슷한 불우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모두 살인을 저질러도 마땅한가요? ·결과에 대한 축소·무시·왜곡: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직시하지 못하고 단지 실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잘못을 애써 외면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았나요? 예: 친구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고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친구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보더라도 애써 무시하거나 그건 너의 마음이 약해서라고 왜곡하는 것.

셸링에 따르면 이러한 도덕적 실패의 원인들은 단지 추론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고 추론능력과 별개로 도덕적 추론을 파괴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실재하는 개념들이다. 악에 관한 전통적 입장에서 전자는 콜버그, 칸트 류의 추론 중심의 도덕교육에서의 악의 발생 원리를 설명한 것이라면 후자는 셸링의 설명이다. 이러한 악의 원인의 파괴성과 부정하려는 힘을 인식한 가운데 도덕적 메타인지를 통해 자기 안에 실재하는 인지편향과 윤리적 퇴색, 제한된 윤리성 등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메타인지라는 심리학적 용어는 도덕적 차원에서 내가 '발견'한 악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답을 내려주지 않는다. 가령, 메타인지를 나 자신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라 비유한다면, 교과 활동을 통해 억지로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티끌이나 상처를 그것도 선생님과 친구들이 보는 교실에서 훤히 들여다 보게 된다면 메타인지를 촉진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혹자는 내 안의 원인으로서의 인지편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제거해야 하며 파괴의 대상만으로 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원인으로서의 인지편향을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기인한다고 보지만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이 아닌 더 높은 도덕성으로의 생산적 기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전자는 앞선 3절에서 언급하였듯, 전통적인 의미에서 단편적인 스토아적 접근이라면 후자는 셸링의 접근이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파괴적 행동 윤리학, 후자를 회복탄력적 행동 윤리학이라 명명하고 다음 장에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2) 도덕적 회복탄력성(moral resilience)에의 함의

행동 윤리학을 도덕교육에 적용할 때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나의 악의 원인에 관한 내용은 나의 '도덕적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설명하였듯, 도덕적 메타인지 개념 자체는 내면의 부정적 감정이나 악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할 것인가에 관하여 답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동 윤리학이 셸링철학에 정초한다면, 행동 윤리학을 도덕교육에 적용하였을 때 내 안의 악의 원인이나 나의 티끌을 부정적이고 파괴해야 할 개념으로만 남겨두고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도덕적 고통(moral distress)에 관해 방임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안의 악의 원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인격 상승의 계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데에서 셸링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은 도덕적 회복탄력성에 도덕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의 스트레스와 역경으로부터 성공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도덕분야와도 관련성이 깊어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개념이 되었다.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정의는 다양하나 주로 도전·딜레마·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자신의 도덕적 전일성(integrity, 全一性)[65]을 보존하고 자신의 도덕적 고통을 최소화하며, 최상의 도덕적인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실천하는 것을 지칭한다(추병완, 2022: 123).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관련 개념 중 '도덕적 고통(moral distress)'에 주목하였다. 행동 윤리학을 도덕교육분야에 적용할 때 필연적으로 학생들이 접하거나 발견하게 되는 나의 악의 원인에 관한

65) 도덕적 전일성(integrity, 全一性)이란 러시톤(Rushton)이 그의 저서에서 'integrity'를 한자어 전일성(全一性)으로 표기하고 추병완(2022: 126)에서 그대로 사용한 바 있다.

내용은 도덕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병완(2022: 141)은 도덕적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절망의 순간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성찰하기”를 제시하며, “자신의 도덕적 고통이나 도덕적 분노의 근원이 바뀌거나 제거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미를 끌어내는 것이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필수적인 차원 중 하나”라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도덕적 고통과 관련한 의미에서 “도덕적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도덕적 역경에 직면하여 마음과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고 그러한 위기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도덕적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도덕적 고통(moral distress)의 용어를 처음 제시한 제임톤(Jameton, 1984: 6) 따르면 도덕적 고통이란 도덕적으로 선호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만, 제도적인 장애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도덕적 고통의 개념은 행동 윤리학의 관점의 도덕 개념과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다. 행동 윤리학에서 개인은 도덕적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보이길 희망하지만 그러한 개인의 의도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에게서 발생하는 악에 관한 심리적, 행동적 차원의 물음을 던진다는 데에서 그렇다.

추병완(2022: 126-127)은 이러한 도덕적 고통(moral distress)과 관련한 주요 용어로 도덕적 복잡성, 도덕적 모호성, 도덕적 상처, 도덕적 고통, 도덕적 잔재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이러한 용어를 설명한다면, 도덕적 메타인지를 통해 파헤쳐진 자기 악의 원인은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싶고’, ‘스스로 적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는데’ 내 안에 발견된 악의 원인을 마주하고 도덕적 고통과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통과 상처가 적절한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다면 도덕적 잔재가 되어 삶의 후유증으로 남게 된다. 나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무너진 학생은 무엇이 도덕인지 나는 도덕적으로 실패하기 쉬운 존재인데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도덕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모호함을 겪을 수 있다.

이렇듯, 행동 윤리학을 통해 악의 원인을 접한 학생들은 도덕적 고통의 상황에서 부정적인 도덕적 정체성이 생기거나 자기 연민이 발생할 수

도 있고 자신 안의 부정적 감정과 악의 원인의 발견이 도리어 '나의 의지와 의도와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나쁜 행동을 했어' 또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는 식의 니힐리즘이 발생하거나 더 큰 악의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있다. 또는 도덕적 메타인지를 통해 나의 악의 원인을 발견했다더라도 이러한 악의 원인 개념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악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사후 합리화하는 도덕적 이탈(moral disengement) 기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러한 도덕적 고통(moral distress)를 마주하고 굴복하거나 무력하게 좌절하지는 않는다. 도덕적 고통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내고 도덕적 용기를[66] 갖고 이를 극복하는, 도덕적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악의 원인- 도덕적 고통-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관계는 다음 [그림 9]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9] 악의 원인 - 도덕적 고통 -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구조 도식

66) 도덕적 용기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는 능력이다. 개인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힘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로써 자신의 원칙을 실행에 옮기게 만든다(Lachman, 2016: 122; 추병완, 2022: 128에서 재인용)." 도덕적 용기는 도덕적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덕적 고통과 관련된 주요 용어 중 하나이다.

도덕적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다섯 가지의 속성을 갖는다(Rushton, 2018). 먼저 전일성(integrity)은 도덕적 신념과 자신의 행동이 조화로운 상태를 이룬 것을 말하며 도덕적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회복하는 힘(buoyancy)이 강하여 도덕적 고통, 역경과 두려움, 도덕적 실패 등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덕적 효능감이 높아 더 많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추병완, 2022: 135-136).

이처럼, 도덕적 메타인지를 통해 발견한 나의 악의 원인은 더 이상 도덕적 고통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도덕적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처럼 나아가야 한다. 셸링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은 이러한 악의 원인에 대해 셸링 철학적 해석을 거쳐 도덕적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처럼 자기 안의 악의 원인을 긍정적이고 균형있는 보편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셸링에 따르면 비합리성은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이 아니고 악은 비합리성에 대한 편애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변질된 합리성, 즉 이성의 자기 기만에서 발생한다(박영선, 2007: 294). 셸링은 인간의 비합리성이나 악의 가능성 그 자체를 악한 것이라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식의 발생원리(박영선, 2007: 294)'로 봄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선을 생성할 수 있는 생산적 기반으로 이해한다. 반대로 전통적인 스토아적 이해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 중 '분노' 개념은 수동적인 개념이며 제거나 부정적인 대상으로 여기지만 셸링은 무차별적 상태에서의 분노는 환희나 다름없으며 현실에서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에너지와 가능성, 포텐츠를 가진 개념으로 이해한다. 가령, 누군가는 악의 가능성을 타인에게 부정적인 악의 현실로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분노를 자신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67]

---

67) 세계적인 아이돌 BTS를 제작한 방시혁 대표의 서울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분노(악의 가능성)를 악의 현실이 아닌 성장과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저는 꿈 대신 분노가 있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저를 불행하게 하는 상황과 싸우고 화를 내고 분노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고 제가 멈출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오세훈

이를 도덕적 회복탄력성 개념에 적용해본다면 학생들은 자기 안에 발견한, 인간의 뿌리 깊은 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도덕적 고통에 머물기보다 이를 긍정적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으며 악의 가능성은 오히려 나의 인격 성장과 더 나은 도덕적 삶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셸링은 도덕적인 인간이란 단지 내면의 의무에 따라 도덕법칙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보지 않고 자기 안의 수많은 역경과 악의 가능성을 극복해내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셸링에 따르면 "윤리적 삶이 최고로 빛(Wmf: 125)"을 발하고 "덕에는 감동(Wmf: 124)"이 있으며 도덕적인 인간은 기계적이고 "이성적 영혼이기에 앞서서 아름다운 영혼(Wmf: 124)"이 될 수 있고 단지 "올바르기보다는 고상(Wmf: 124)"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악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 내면의 비합리성이 오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통제된다면 천재적인 비결로 전환될 수 있으며 "약간의 광기를 지닌 사람만이 창조적일 수 있다(nullum magnum igneium sine quadam)(박영선, 2007: 285)."

이처럼 셸링적 행동 윤리학이 도덕적 회복탄력성에 함의하는 바를 구체적인 수업에서 활용한다면 다음 [표 9]를 예로 들 수 있다.

[표 9] 회복탄력적 행동 윤리학의 활용의 예

아직 도덕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도덕적 실패의 원인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더 큰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있어요 (도덕적 실패한 이유와 반대되는 도덕적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써보세요.)**
제한된 윤리성 & 윤리적 퇴색	-->	(예: 밝은 윤리성)
복종과 권위	-->	(예: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나)

(2019. 2. 26.), 방시혁, 서울대 졸업식서 "나의 원동력은 분노" 파격 축사,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61784361116)

동조 편향	-->	(예: 친구들의 도덕적 실패를 따라가지 않고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나)
시간압력, 피로, 청결	-->	(예: 여유있게 결정하는 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진 나,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나)
성급한 일반화	-->	(예: 신중하게 고민하는 나)
도덕적 정당화	-->	(예: 나의 잘못에 솔직한 나)

앞서 설명한 [표 6]의 셸링 철학의 스토아적 정념 이해의 변형처럼 의식 수준에서 내가 발견한 내 안의 제거할 수 없는 도덕적 실패의 원인을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더 큰 도덕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셸링 철학이 '두려움이 주의력과 분별력'으로 '탐욕이 소망'으로 '쾌락이 즐거움'으로 '예민함이 예술적 창조성'으로 승화될 수 있는 무차별적 포텐츠의 상승 원리를 제공하고 있듯이, 내 안의 어두움의 원리는 더 높은 도덕적 행동으로 상승될 수 있다. 내 안의 제거할 수 없는 도덕적 실패의 원인 그 자체는 수동적이고 정적이며 제거해야 하는 개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나의 도덕성과 합리성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주는 계기이자 나의 자유를 완성시키는 근거이다. 이는 마치 셸링 무차별 개념을 이어받은 융의 이론과 같이 인간 내면의 어두움, 그림자의 원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대극합일[68] 개념과도 같다(손창선, 2014: 73). 인간은 아니마-아니무스를 통해 마주한 나의 어두움의 원리, 나의 그림자를 품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나 다운 나'가 될 수 있는 '개성화'를 실현할 수 있고(진교훈, 윤영돈, 2003: 88-92) 더 큰 도덕적·윤리적 삶의 생산성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작업을 오해하여 악의 원인에 관한

68) 구스타브 융은 셸링철학의 영향을 받아 정신의 대극적 요소들의 결합, 상호침투, 양자 모두를 일컫는 용어로 대극합일을 설명한다. 페르소나가 사회적 가면이라면 아니마-아니무스는 내면의 나를 마주하기 위해 중재해주는 요소이다(이부영, 2002: 82-83)이다.

긍정적 해석의 정도가 지나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요소 중 '자기 조절'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내포하듯이, 내 안의 악의 원인을 지나치게 긍정하여 도덕적으로 자신감이 과잉되고 나의 도덕적 실패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합리화하며 나의 악의 결과를 왜곡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마치 사르트르가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에 처했다고 말한 것과 같이, 셸링은 오이디푸스나 유다가 예정된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것의 책임을 오로지 인간에게 귀속시킨 점을 상기하면 인간에게는 악의 가능성에 대한 겸손함이 요청된다.

>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은 그 자신도 다른 누구도 바꿀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강제가 아니라 의지에 따라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예수를 배반한 것이다(Wmf: 110).*[69]

이와 관련하여 다음 항에서 도덕적 메타인지와 도덕적 회복탄력성 개념이 도덕적 겸손함의 덕으로 수렴하는,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살펴본다.

3) 도덕적 겸손함(moral humility)에의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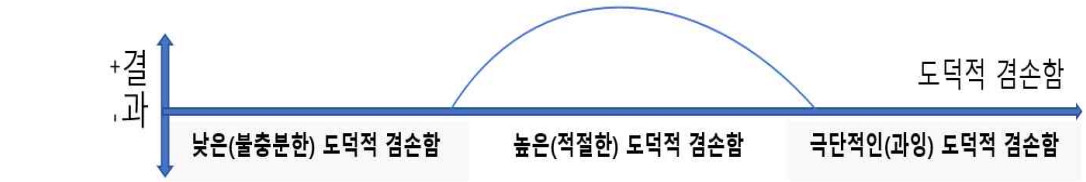
'겸손'이라는 덕목이 한국인 문화 속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차원에서 겸손을 뜻하는 '도덕적 겸손(moral modesty)' 개념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가

---

69) 유다는 예정된 배신자였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를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예수에게서 직접 들었다. 자신의 죄가 예정된 것이라면 유다는 자신의 악에 관해 책임이 없지 않을까? 그러나 유다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후 자살을 하고 악마에게 잡혀갔으며 기독교 내에서 종파를 막론한 악인으로 분류된다. 셸링에 따르면 이 같은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본질 자체이며 형이상학적 차원의 속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셸링은 "전혀 의식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는 악으로의 성향을 자유의 실현(Wmf: 111)"이라 하였다. 따라서 셸링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의식할 수 없는 악에 대해서 조차 자유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에 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항에서는 도덕적 겸손 개념을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스미스와 카우차키(Smith & Kouchaki, 2018)의 연구에 비추어 도덕적 겸손함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미스와 카우차키(Smith & Kouchaki, 2018: 79)에 따르면 겸손의 일반적 정의를 도덕적 관점에 적용하여 도덕적 겸손을 정의하였다. 도덕적 겸손(moral modesty)이란 (1) 자신의 도덕적 오류 가능성(morally fallibility)을 인정하고 (2) 타인의 도덕적 관점과 도덕적 강점을 인정하며 (3) 자기(self)를 초월한 도덕적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겸손함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mean) 개념과 Moore & Gino(2015)의 'A-A-A 모델'[70]을 활용하여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도덕적 겸손함을 아래의 [그림 10]으로 나타내었다.



	낮은(불충분한) 도덕적 겸손함	높은(적절한) 도덕적 겸손함	극단적인(과잉) 도덕적 겸손함
개인적 결과	*접근법: 도덕적 사각지대* - 제한된 윤리성/ 윤리적 퇴색 - 극단적인 도덕적 보편주의	*접근법: 도덕적 인식* - 도덕적 주의력 - 윤리적 학습 정향	*접근법: 도덕적 허용* - 도덕적 맹점 - 극단적인 도덕적 상대주의
	능력: 도덕적 편향 - 동기화된 도덕적 추론 - 도덕적 자만	*능력: 도덕적 안전장치* - 도덕적 습관/루틴 - 유혹 상황 피하기	*능력: 도덕적 우유부단* - 낮은 도덕적 용기 - 낮은 도덕적 효능감
	결과: 도덕적 이탈 - 합리화 - 동기화된 망각	*결과: 윤리적 학습* - 자기 반성 - 도덕적 교수 가능성	*결과: 도덕적 무관심* - 도덕적 낙담 - 도덕적 혼란
타인과의 결과	*독선적* *타인에 대한 무관용* *비의도적인 피해*	*전일성* *타인으로부터 도덕적 피드백 추구* *도덕적으로 타인 대우하기*	*도덕적으로 약함* *타인으로부터 지나치게 영향을 받음* *타인을 보호하는 데 실패*
조직차원의 결과	*불충분한 구조 개혁* *심리적 저항* *비윤리적인 행동*	*윤리적 문화* *심리적 안전함* *윤리적인 행동*	*집단적 부패* *적은 고발과 목소리* *비윤리적인 행동*

[그림 10] 도덕적 겸손함의 수준(Smith & Kouchki, 2018: 80)

70) Moore & Gino(2015: 235)에 따르면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개인이 도덕적 결정을 어떻게 접근(Approach)하고, 그 순간에 어떤 능력(Ability)을 가지며, 이는 어떤 여파(Aftermath)를 낳는지에 관한 'A-A-A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도덕적 겸손함이 적절히 높은 사람은 레스트의 모델이 그렇듯 먼저 특정 상황의 도덕성을 인지한다. 주어진 상황을 먼저 도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비윤리적인 행동(Tenbrunsel & Smith-Crowe, 2008)을 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도덕적 주의력(moral attentiveness)(Reynolds, 2008)이 높으며 도덕적으로 조심성을 더 많이 갖고 의사결정을 하고 도덕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도덕적 인식(moral awareness)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선별하고 식별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또한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도덕적 강점을 인지하고 도덕은 가르쳐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도덕·윤리 학습에 더욱 동기부여 되어있다고 설명한다(Smith & Kouchaki, 2018: 79). 이러한 도덕적으로 적절히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도덕적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과도 유사하며 도덕적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다.

셸링에 따르면, 악의 현실에 관한 책임은 언제나 인간에게 주어지지만 인간에게는 언제든 선을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태로서의 악이 선과 동반하며 인간은 의지나 의도와 무관하게 도덕적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악의 결과에 관한 인간 고유의 책임을 강조한 셸링 철학에 정초하였을 때 행동 윤리학은 악의 결과에 관한 인간의 도덕적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도덕적 겸손함을 함양하는 데에 도덕적 함의를 갖는다.

가령, 도덕적 메타인지를 통해 자기 안의 악의 가능성을 발견해야 하지만 이러한 악의 가능성을 곧 악의 결과로 해석하여 자기 안의 제거할 수 없는 악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도덕적 고통 상태에 빠져선 안 된다. 악의 가능성과 악의 결과를 분리하고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통해 악의 가능성의 재해석을 거쳐 자기 안의 전일성(integirity)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능태로서의 악으로부터 끊임없는 유혹과 파괴의 위협성에도 불구하고 악의 결과에 관하여 인간 고유의 책임을 강조하는 셸링에 따르면 결국 인간에게는 지금 당장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평가받거

나 스스로 자부하더라도 자만할 수 없는, 도덕적 겸손함의 자세가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행동 윤리학의 출현이 인간을 합리성과 추론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 콜버그, 레스트 류의 전통적 도덕교육을 비판하고 출현한 것처럼 셸링은 칸트와 독일 관념론이 드높인 사유와 합리성의 위상을 일찍이 꺾고 어둡고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현상을 포함할 수 있는 학(學)을 세우고자 긍정철학(positive philosophie)의 길로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겸손함을 요청한 철학자로 볼 수 있다.

가령, 셸링의 오래된 지기 헤겔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하자면, 헤겔은 철학의 원리를 부정이라 보았다. 이는 첫째, 사물의 진리인 사상은 반성적 사유 속에서만 드러나며, 둘째, 사유규정들에 대한 서술은 "사유에 대한 사유" 속에서만 가능[71]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셸링에 따르면 헤겔의 관점은 실제로 본질이 결코 현실성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일 수 있다(이광모, 2016: 387). 가령, 장미에 대해 이성학문적 접근은 인간 합리성을 기반으로 장미의 개념과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지만 장미의 본질이 장미의 존재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 셸링은 "이성의 비록 마지막 목표가 존재자이지만 이 존재자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 외에는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없다.[72]"고 말하며 인간의 오만한 반성적 사유와 합리성에 관해 겸손함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셸링의 관점은 마치 동양에서 달을 가리키지만 가리키는 손가락 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중생의 한계처럼, 인간 사유와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이성주의적 접근은 결국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개념을 통해 실존자를 지시함으로써 자신의 귀결점을 긍정철학에게 원리(Prinzip)로서가 아니라 과제(Aufgabe)로서 넘겨준다(이광모, 2016: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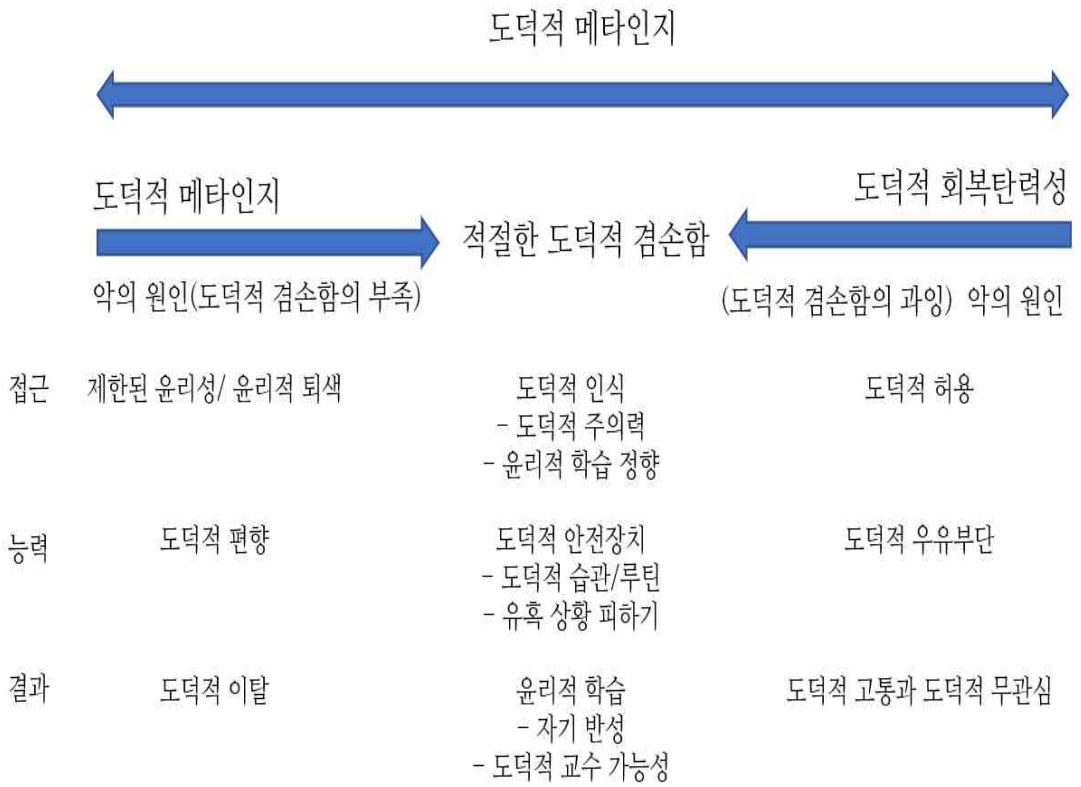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스미스와 카우차키(Smith & Kouchaki, 2018)의 도덕

---

71) G. W. F. Hegel(1830),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Hamburg 1991, 1.(이광모, 2016: 371에서 재인용)

72) F. W. G. Schelling, *Die Philosophie der Offenbarung*(Erstes und zweites Buch) in Schellings Werke 6. München 1983, S. 62.(이광모, 2016: 386에서 재인용)

적 겸손함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적 결과' 단계의 '도덕적 겸손함'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겸손함이 부족하여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오만한 수준과 도덕적 겸손함이 지나쳐 자신의 도덕성과 신념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전자의 상태를 '도덕적 메타인지' 개념을 통해 적절한 도덕적 겸손함의 수준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보고 후자의 상태를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도덕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림 11]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도덕적 겸손함의 구조

스미스와 카우차키의 도덕적 겸손함의 개념에 관한 언급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덕적 겸손함이 부족한 사람은 도덕적 메타인지 능력이 더욱 필요하며 도덕적 겸손함이 지나친 사람은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능력이 요구된다. 도덕적 겸손함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도덕성을 인식(moral awareness)하지 못하고 주의 깊게 도덕성을 주시하는

도덕적 주의력(moral attentiveness)이 부족하다고 보는 맹점(blindspot)에 빠져있으며 이들은 제한된 윤리성(bounded ethicality)과 윤리적 퇴색(ethical fading)의 경향(Smith & Kouchaki, 2018: 81-82)이 있다. 또한 도덕적 겸손함이 지나친 사람도 마찬가지로 맹점(blindness)에 빠져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상황과 맥락적 요소 등을 자신의 도덕적 기준,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함에 따라 무엇이 옳은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기준이 없으며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허용적인 상태에 기인하여 맹점(blindness)에 빠져 스스로 고통(suffer)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한다(Smith & Kouchki, 2018: 82). 그리고 앞서 확인하였듯,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이러한 도덕적 고통(moral distress)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이이 있었다.

한편, 적절한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안전장치를 개발한다(Smith & Kouchki, 2018: 82-84). 가령,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올바른 도덕적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여유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또는 결혼하고 난 기혼자가 불륜이나 간통의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고 다른 이성과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는, 능동적인 안전 장치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콜비와 데이먼(Colby & Daman, 1992)의 설명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교회를 가는 습관을 지키며 또는 환경을 위해 분리수거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습관, 또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기부하기, 선행하기 등의 습관처럼 악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습관과 루틴을 만든다. 반면 도덕적 겸손함이 부족한 사람은 편향(moral biases)에 빠질 가능성이 많으며 도덕적 겸손함이 지나친 사람은 타인의 도덕적 강점을 너무 허용한 나머지 자신의 도덕적 결정에 자신을 갖고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에 빠진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도덕적 성공을 생산적으로 평가하고 도덕적 성공

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윤리적 학습을 스스로 촉진하는 사람이다. 반면 도덕적 겸손함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악의 원인을 마주하는 것에 방어적으로 접근하여 도덕적 이탈기제가 작동하는 한편 겸손함이 지나치면 자신의 도덕성에 낙담과 좌절이 반복되어 혼란을 겪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도덕적 무관심(apathy)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Smith & Kouchaki, 2018: 84-85).

이상으로 셸링 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교수학습 전략 및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활용

1) 도덕교육에서의 넛지(nudge) 활용에의 함의

넓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의 대표적인 처방적(prescriptive) 접근에는 넛지(nudge)가 있다. 넛지(nudge)란 행동 윤리학이 상정하는 인간의 비합리성의 기제를 역이용하여 일반 사람들을 공공정책 등의 관점에서 선한 방향으로 교묘히 이끄는 접근이다. 행동 윤리학이 셸링 철학에 정초하였을 때 넛지 이론은 본질적인 도덕교육 방식이 되기보다 학생들이 도덕적 삶을 살고자 의욕하는 과정에서 보완적인 수준에서 활용 가능하다.

넛지(nudge)란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의 공동 저서에서 사용한 용어로, 인간의 비합리적 특성에 관한 부드러운 개입을 시도하는 용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넛지 개념은 행동경제학을 모태로 출현하여 인간의 비합리적 기질을 단지 기술적(descriptive) 상태에 두지 않고 경제, 공공정책이라는 특정 영역에서의 처방적(prescriptive) 성격의 접근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특히, 미국의 공공정책 분야에서 각광받아 효과적인 공공정책 이론으

로 자리잡아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넛지적 개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넛지적 개입의 효과성에 따라 국내에서도 넛지적 개입을 도덕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하고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인간의 비합리적 기질에 관한 심리적, 행동적 기술(descriptive)이 처방(prescriptve)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철학적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넛지가 철학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73](libertarian paternalism)'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국민과 시민들이 공공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입의 설명에는 다소간의 쟁점[74]이 있지만 적어도 효과적인 공공정책 수단으로서는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인 도덕적 삶에의 의지를 갖고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교사나 교과서의 관점에서 교묘히 유도된 도덕적 행동이 도덕교육의 본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셸링 철학의 관점[75]에 비추어보았을 때 교사의 관점에서 학생들에 대한 넛지적 개입을 통해 도덕 시간, 한학기,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 자체가 도덕교육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지만 학생들의 의식에는 전혀 다른 상상이 있을 수 있고, 어제까지 교실 뒷편

---

73)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란 자유주의와 개입주의의 상호 모순된 개념의 결합이지만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게 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문경호, 2018: 195-196).

74) 가령, 문경호(2018: 197-199)는 넛지와 관련된 쟁점으로 자유의지의 침해, 미끄러운 비탈길을 설명하고 있다. 넛지 옹호자들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의미가 담지하고 있듯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넛지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개입의 정도가 미끄러운 비탈길을 타고 내려가듯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 말한다.

75) "이 철학의 시작과 끝은 자유이다. 자유는 절대로 보여 줄 수 없으며 오로지 자기 자신을 통해 자기를 증명한다(Schelling, *System des tranzendentalen Idealismus*, 전대호 역, 2008: 50)."

에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이 교사의 말 한마디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의욕할 수도 있으며, 학생들은 교실과 교실이 아닌 곳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사회적 '나'와 다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나만의 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인간적 본질이 '자유'이다.

이러한 인간 존재 이해를 바탕으로, 넛지 이론은 교사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생활지도 차원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넛지적 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넛지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도덕교육적으로 함의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넛지적 방법으로 '공언(commitment)(문경호, 2018: 204)'을 학생들에게 자신의 도덕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소개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한 실험을 보여주며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넛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기회를 줄 때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수업활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표해야 해서 공언하고 반 친구들이나 교사의 시선 때문에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설정한 도덕적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제한된 도덕시간과 교실 공간이 아닌 다른 시간과 공간,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도덕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을 때 의미있는 것이다. 마치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은 '행동장치'[76]를 한 것은 타인의 개입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넛지를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문경호(2018: 204-210)의 논의는 도덕교육에서의 새로운 넓은 의미의 행동 윤리학의 활용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의미있는 논의를 개관하였지만 넛지의 본래

76)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무기로 선원들을 홀려 바다에 뛰어 만들고 죽게 만드는 요정이다.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오디세우스(Odysseus)는 부하들에게 시켜 자신의 몸을 밧줄로 결박시키고 유혹을 이겨낸다. 그러나 이러한 밧줄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활용한 '행동 장치'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만약 오디세우스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해 강제로 자신의 몸이 밧줄에 묶였거나 밀랍으로 귀가 막혔다면 세이렌의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위험이 있다. 인간의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세이렌을 상상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에 충실하게 교사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결정에 개입하고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는 교육 활동 만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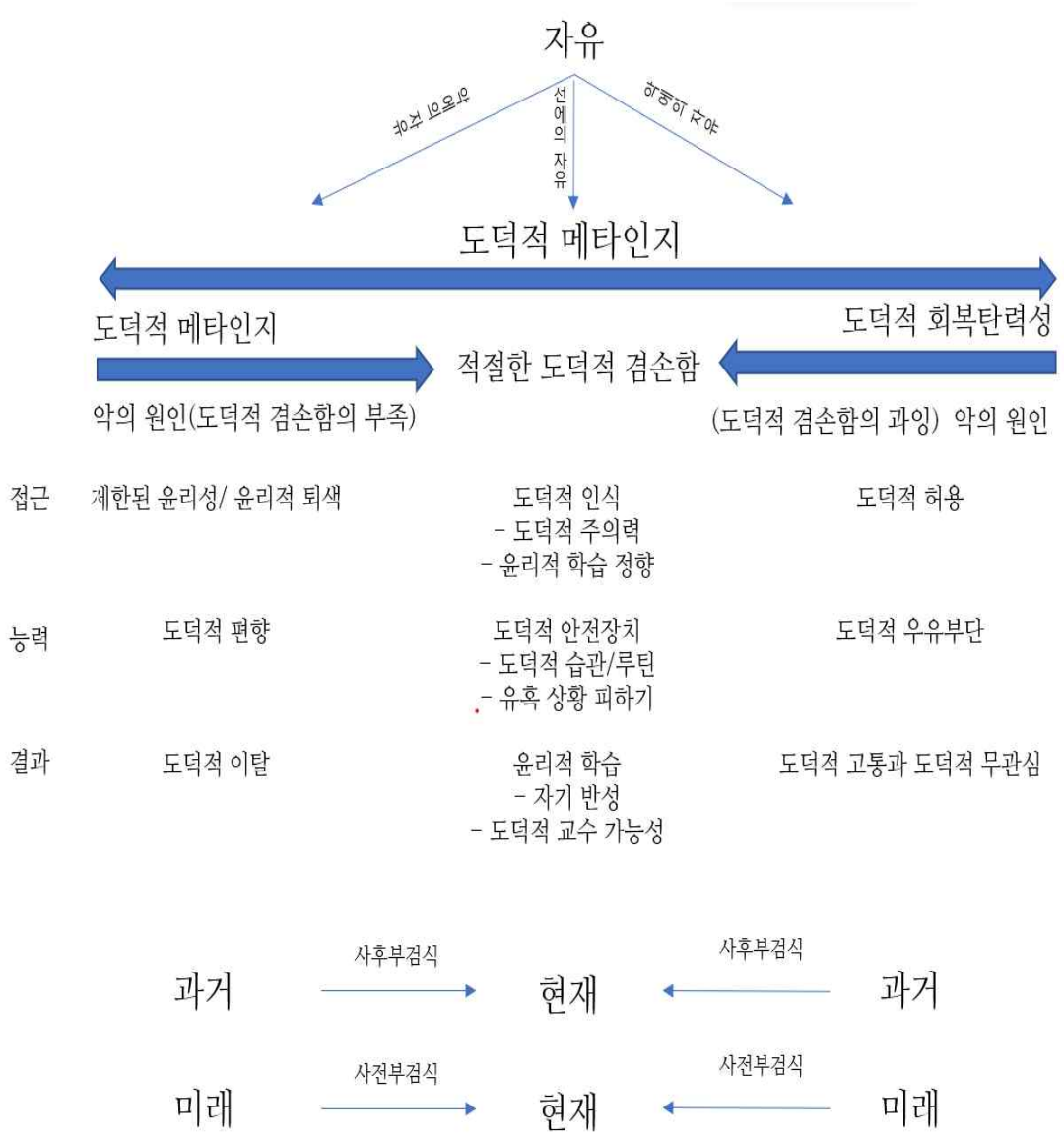
문경호(2018: 204)는 넛지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활동 방법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의 예로 현재의 상태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공지(announce-ment)'의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가령, '20일 째 폭력없는 교실',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생수'를 공지함으로써 도덕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교사의 관점에서 학급 운영, 생활 지도 차원의 의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은 교실이 아닌 집에서는 편식을 할 수도 있고 교실이 아닌 게임 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넛지를 도덕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의 도덕적 행동이 유도되는 넛지적 개입이 아닌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갖고 넛지를 활용할 수 있을 때이다.

가령, 나쁜 말을 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습관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욕을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싶을 때 '공지(announcement)'의 방법을 활용할 때 의미 있는 것이다. 도덕시간, 교실 공간이 아닌 자기 집 책상 앞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나쁜 말 하지 않기 20일째'를 붙여놓는 것이다. 또는 줄넘기를 매일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자. 이를 지키기 위해 친구들에게 '공언(commitment)'하면 목표를 이루는 데 더욱 효과적임을 알고 친구들에게 공언하는 것이다. 또는 디폴트 규칙(default rule)[77](문경호, 2018: 207)을 활용한다고 해보자. 마찬가지로 타인에 의해 디폴트 규칙을 적용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잘 하기 위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한다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재미나 흥미가 유발되면 더욱 도덕적 행동을 하기 쉽다는 넛지(문경호, 2018: 208)적 접근은 일기를 매일 쓰고 싶지만 쉽지 않은 학생이 스스로 좋아하는 디

77) 현재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하는 성향인 '현상유지편향'에 기인하여 디폴트(default), 즉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인이나 캐릭터의 일기장 또는 볼펜을 사서 쓰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2) 사전부검식(Pre-Mortem) 행동 윤리학 활용에의 함의



[그림 12] 셀링적 행동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구조

행동 윤리학은 시간적으로 이미 과거화된 도덕적 행동을 소재로 하여 일반적으로 사후 부검(post-mortem)의 형태로서 교육활동을 구상할 수도 있지만 셸링 철학에 정초하였을 때, 사전 부검(pre-mortem)[78]의 형태로서 이미 일어나지 않은 도덕적 실패 상황을 가정하고 그 도덕적 실패의 원인을 행동 윤리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추적해보는 활동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프리-모템 기법은 특히 과도한 자신감(overconfidence)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이미 시간적으로 지나간 과거의 도덕적 실패 상황을 소재로 하여 자기 안의 악의 원인을 검토하는 사후 부검 방식 만이 아닌 미리 도덕적 실패 상황을 상상해봄으로써 [그림 12]와 같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겸손함의 상태로 향할 수 있다. [그림 12]에서 앞서 설명한 인간적 본질로서 자유 개념[79]은 도덕적 메타인지라는 인간의 경험적 인식 이상의 형이상학적 존재 차원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메타인지 위에 배치되었다.

현재까지의 행동 윤리학 관련 연구는 시간적으로 이미 지나간 비도덕적 행동 양식을 소재로 연구한 작업들이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

78) 일반적으로 사후 부검(post-mortem)은 의료 용어로서, 환자의 사망 후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시체를 부검하는 작업을 뜻한다. 사후 부검(post-mortem)은 유전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과 의료 공동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지만 이미 고인이 된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의사결정 분야에서 사전부검(pre-mortem)은 부검 작업을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맨 앞에 배치하여 팀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전제하고 그 이유를 타당하게 제시함으로써 사후 부검 방식이 갖고 있는 결점인 사후 편향(hindsight bias)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실패 가능성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사용한다(Veinott et al., 2010: 2).

79) 셸링은 “과제는 개인 속에서 가장 가능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In dem Individuum die größte mögliche Freiheit(Autarkie) zu verschaffen)(Schelling, *Philosophie in der Mythologie*, S. 550).”고 말한다. 셸링은 당시 독일이 봉건주의적 국가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본질을 자유로 파악하고 정치사상적으로도 급진적인 자유주의에 관한 사상을 밀고나간 철학자였다. 이 점에서 행동 윤리학이 밝힌 악의 원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셸링 철학에 정초하여 도덕수업에서 활용한다면,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갖고 도덕적 삶을 의욕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역사에 있어서 과거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닐 것이다. 특히 셸링의 시간 개념은 단지 과거에서 현재, 미래 순의 단방향으로 흘러가는 기계론적 시간 개념[80]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속적으로 종합된 유기체적 존재[81]이자 스스로에게 저항하며 확장해나가는 "성장(Steigerung)으로서의 시간(이광모, 2022: 336-337)" 개념이다. 셸링은 이에 관해 "힘 있게 자신으로부터 분리를 통해 성립되는 현재 없이는 어떤 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Weltalter[82], 1811: 11; 이광모, 2022: 337에서 재인용). 셸링에 따르면 힘 있게 자신의 도덕적 실패로부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과거에 머무는 삶인 것이다.

이에 따라 행동 윤리학의 교육적 활용은 행동 윤리학이 밝힌 도덕적 실패의 원인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지나간 과거의 도덕적 실패만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동일한 도덕적 실패가 현재와 미래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나아가야 한다. 셸링이 마치 "시간의 원리는 두 가지로 하나는 자신으로 머무른 원리와 밖으로 전개하려는 원리로 이루어져있다(Weltalter, 1813: 122; 이광모, 2022: 337에서 재인용)."고 보았던

---

80) 기계론적 시간 이해의 대표적인 예로 칸트와 아우구스티누스, 후설 등이 대표적이다(이광모, 2022: 334). 이광모(2022)는 칸트가 시간을 내적 직관의 순차적인 계기들(nach einander)로 이해하면서 선험적 자아에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를 기억, 현재를 지켜봄, 미래를 기다림으로 설명하면서 시간이란 모두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 설명한다(『고백록』, 11권 28장). 후설은 과거, 현재, 미래를 파지-근원인상-예지라는 선험적 의식작용으로 이해(『내적 시간의식의 현상학』, 9-12)하는 기계론적 시간 이해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81) 셸링의 유기체적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셸링의 가능태적 변증법과 같이 서로에게 유기적인 성격을 갖고 존재한다. 과거는 시간이 지나 과거에만 머물고 미래는 시간이 되면 다가오는 개념이 아니다.

82) *Die Weltalter* 1811, herausgegeben von Manfred Schröter, München, 1946(차후 Weltalter 1811로 표기), *Die Weltalter* 1813, herausgegeben von Manfred Schröter, München, Biederstien 1946, Nachlassband von Schellings gesamte Ausgabe(차후 Weltalter 1813로 표기)

것처럼, 도덕적 실패를 마주하고 움츠려드는 나로부터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창조를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셸링의 시간 개념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측정 변량이나 외적인 표상으로서의 시간 개념이 아닌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같은 사물의 본성(Natur)(Weltalter, 1811: 78; 이광모, 2022: 335에서 재인용)이며 "모든 사물은 단지 내적이며, 고유한, 자신에게 본유적인 시간을 갖는다(Weltalter, 1811: 78; 이광모, 2022: 335에서 재인용)." 과거, 현재, 미래의 질적으로 동일한 연속선상으로 보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과 달리 셸링의 시간 개념은 "대립적인 힘들이 충돌하며 창조되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성숙하는 것이고 축적된다(이광모, 2022: 338)." 이러한 셸링의 시간 개념에 따라 행동 윤리학은 더이상 과거화 된 도덕적 행동양식이라고만 치부하기 보다 도덕적 실패로 물든 과거와 이별하기 위해 사후부검(Post-Mortem)하며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사전부검(Pre-Mortem)의 교육활동을 구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프리-모템 기법은 팀 단위의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된 기법이지만 도덕교육에서 행동 윤리학의 연구결과와 결합하여 학급 단위 뿐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실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특히 도덕 교과의 단원을 구성하는 총 4차시의 활동 중 2차시의 도덕적 행동 중심의 실천과 관련한 교육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실천 계획을 세우고 체크리스트 형식 등을 통해 도덕적 목표를 달성에 대한 반성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 실패를 미리 전제하는 프리-모템(Pre-Mortem) 기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방법적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3]과 같이 팀 단위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프리-모템(Pre-Mortem) 기법을 도덕수업에 적용한다면 [표 10]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단계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도덕적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이후 2단계는 1단계에서 세운 목표와 계획이 실패했다는 상상을 하는 것이다. 학급 또는 모둠 단위의 계획을 세울 경우 교사나 학급 대표가 함께 세운 계획이나 목표가 실패했다고 공지한다. 이때 잠재적으로

[그림 13] 프리-모템 기법의 소개(Klein, G. (2021. 1. 14.). "The Pre-Mortem Method". *Psychology Today.*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seeing-what-others-dont/202101/the-pre-mortem-method).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선 안 되며 오로지 실패했다는 결과만을 안내하거나 상상해야 한다(Klein, G. 2007: 1). 3단계는 2단계에서 가정한 도덕적 실패 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이유를 추정해서 적는 것이다. 행동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앞서 [표 8]의 도덕적 메타인지를 촉진하는 도덕적 실패 원인 검토 질문지 목록을 보며 작성할 수도 있다. 4단계는 학급이나 모둠 단위로 활동을 진행했다면 개인별로 적은 도덕적 실패 이유를 한 데 모으고 그럴 듯한 도덕적 실패 이유에 관해 별표나 점수를 매겨 이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길 수도 있다. 개인별로 활동을 진행했다면 자신이 브레인스토밍 한 도덕적 실패 이유를 보기 좋게 정리한 후 순위를 매기고 목록으로 만들 수 있다. 5단계는 도덕적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나 습관, 루틴 등을 만든다. 6단계는 이러한 프리-모템 기법을 적용하고나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7단계에서 자신의 도

덕적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프리-모템 활동을 틈틈이 다시 읽어볼 수 있다.

[표 10] 프리-모템(Pre-Mortem)의 도덕교육적 활용 방안

프리-모템(Pre-Mortem)의 도덕교육적 활용 방안	
1단계	도덕적 계획 또는 목표 세우기
2단계	도덕적 실패 상황 공지/상상하기
3난계	도덕적 실패 이유 브레인스토밍 하기 *도덕적 메타인지를 촉진하는 도덕적 실패 원인 검토질문지 활용
4단계	도덕적 실패 이유 정리 및 평가하기
5단계	도덕적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습관 세우기
6단계	계획 수정하기
7단계	목표/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이러한 프리-모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영 분야에서 팀 단위의 프로젝트 분야에서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이뤄져왔으며 최근 미국 등의 교육분야에서도 프리-모템의 적용을 시도하고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기법이다. 미국의 교실 현장에서 이뤄진 연구(Matthew, T. Luth et al., 2022: 9)에 따르면, 프리-모템의 기법을 적용한 팀 프로젝트 학습은 타인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키고 실패에 대한 능동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며 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프리-모템은 계획을 이행하는 처음부터 위험을 식별해내는 데 도움을 주며 이유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30퍼센트 더 도움을 준다(1989 by Deborah J. Mitchell, of the Wharton School; Jay Russo, of Cornell; and Nancy Pennington, of the University of Colorado; Klein, G., 2007: 1에서 재인용). 또한 비평(critique), 찬성과 반

대(Pro-Con), 찬성(Con) 등의 다른 기법에 비하여 과도한 자신감(Over Confidence) 편향을 줄이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Veinott et al., 2010: 1)이라는 점에서 셸링적 행동 윤리학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사전부검(Pre-Mortem) 기법은 데니 카너먼과 리차드 탈러와 같은 노벨 수상자들이 위험관리기법으로 추천하는 방법이며 실제로 미국에서 기업 회의, 육군과 소방관의 프로그램 등에 널리 사용[83]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동 윤리학의 결과와 결합하여 프리-모템 기법의 다양한 도덕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셸링 선(善) 포텐츠 개념에 따른 행동 윤리학 접근의 한계

병이 없는 삶 그 자체는 건강한 삶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도덕적으로 선함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악의 발생 원리보다 선의 발생 원리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셸링은 악을 병에 비유하며 “병은 자유를 잘 못 사용해 만들어진 자연 안의 무질로서 악과 죄를 보여주는 참된 모형이다(Wmf: 71).”라고 보았다. 물론 셸링은 악의 발생 또한 악의 가능태 자체가 아니라 본 것처럼, “선에서 작용하는 원리는 결코 이지적인 원리 또는 빛의 원리 그 자체가 아니고, 자기성과 결합된 다시 말해서 정신으로 고양된 원리이다(Wmf: 84).”로 보고 선의 가능태 자체가 선이 아닌 인간적 자유를 통해 선의 가능태로 고양할 때 선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선은 “사랑의 정신이 의지를 지배하게 될 때 발생한다(Wmf: 70).”

행동 윤리학은 악의 원인과 관련하여 증거에 기반한 도덕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적 함의를 갖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인지편향과 같은 악의 원인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실제로 도덕교육적인 맥락에서

---

83)Klein, G. (2021. 1. 14.). “The Pre-Mortem Method”. *Psychology Today.*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seeing-what-others-dont/202101/the-pre-mortem-method,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추병완, 2022 :184-187). 가령, 밀러와 라트너(Miller & Ratner, 1998)도 인지편향을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하고자하면, 사람들은 나의 티끌은 보지 못한 채 타인만 그러한 편향에 빠져있다고 보기도 한다. 반두라의 도덕 행위 실천의 두 분류에 따라 행동 윤리학이 밝히고자 하는 악의 원인은 도덕 교육에서 억제적 형태(inhibitive form)로서 활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도덕적 모범행동을 보고 따라하거나 선의 원인을 알게하게 하는 등의 접근은 순행적 형태(proactive form)의 교육 형태가 있다. 반두라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나쁜 행동을 삼가는 억제적 형태뿐만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하는 순행적 형태의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Bandura, 2002: 111).

셸링의 관점에서 또한 행동 윤리학의 억제적 형태(inhibitive form)의 접근은 악을 예방하고 비도덕적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더 큰 선한 행동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순행적 접근(proactive form)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행동 윤리학에 관해 선의 원인을 규명하고 선한 행동을 증진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방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행동 윤리학 접근의 한계를 인지한 가운데 행동 윤리학을 도덕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면 행동 윤리학은 도덕교육에 있어서 보다 의미있는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엘러스턴과 동료들(Ellerston et al., 2016)이 제기한 행동 윤리학의 문제점인 도덕 철학적 정초 부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셸링 철학의 악 개념을 중심으로 한 도덕 철학적 정초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의 토대를 놓기 위해, 서론과 2장에서 행동 윤리학이 정초할 수 있는 도덕 철학 정초의 5가지 과제를 설정하였고 그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3장은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 과제에 따라 행동 윤리학이 셸링 철학에 정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행동 윤리학이 도덕 철학적 정초 부재라는 문제를 셸링 철학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면, 행동 윤리학이 도덕교육 분야에 제공할 수 있는 함의점을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의 성격 자체가 초학자인 연구자의 역량에 비해 거대한 철학적 이론들과 방대한 범위 및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출발 선상에서부터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앞서 4장에서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함의점이 겸손함의 개념으로 수렴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자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은 무모한 연구 주제를 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겸손함’의 개념에도 ‘용기’가 필요하듯이 오히려 초학자이기에 본 연구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을 수 있으며 아직까지 행동 윤리학 자체가 학계에서도 연구 초기 단계이듯이 본 연구가 국내 도덕교육계에서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에 관한 시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결코 셸링의 도덕 철학과 악 개념이 한나 아렌트, 레비나스, 칸트, 라이프니츠 등의 철학적 이론보다 내용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말하고자 한 연구가 아니다. 또한 행동 윤리학 자체가 전통적인 도덕교육 그 자체보다 모든 면에서 나음을 보여주려는 연구도 아니다. 지금까지 행동 윤리학이 밝힌 연구결과가 평범한 인간의 비합리성, 악의 원인의 전부라고도 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행동 윤리학을 통해 인간 내의

비합리성과 악의 원인을 모두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서 비합리성과 악의 제거를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는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의 5가지 과제의 범위 내에서 셸링 철학이 한나 아렌트, 레비나스, 칸트, 라이프니츠 등의 철학 이론보다 도덕 철학적 정초의 과제를 더 충실히 충족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철학적 이론 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행동 윤리학의 도덕 교육적 가치를 순전히 입증하는 것을 주요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행동 윤리학이 갖고 있는 도덕 철학적 정초 부재라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이였다.

2000년대 미국의 금융위기의 비즈니스 스캔들로부터 촉발된 행동 윤리학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소위 사회 지도층, 유명인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악'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의 도덕적 실패는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도덕발달이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인가, 아니면 자신의 합리성과 추론 능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충족시키는 데 이용하고 인간 안에 실재하는 '악의 원인'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인가? 그리고 이를 도덕교육으로 가져온다면 학생들을 제도권 내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인지적·도덕적 추론 능력을 잘 계발하게 하는 것만이 도덕적 실패를 예방하는 길인가 아니면 자기 안에 실재하는 '악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덕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가?

행동 윤리학이 밝힌 인간 내면의 '어두움의 원리'인 '제한된 윤리성', '윤리적 퇴색' 등과 같은 심리적, 행동적 기제는 인간 안에 실재하는 '악의 원리'로서 작동하며 인간을 끊임없이 도덕적 실패로 유혹하는 위협요소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행동 윤리학의 관점은 전통적으로 악의 문제를 악인(惡人)의 문제로 치부하던 전통적 도덕교육의 관점과 달리 새로운 도덕 철학적 정초를 요구하며 누구나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데에서 '악의 평범성' 개념을 떠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악의 평범성'에 관한 한나 아렌트의 개념과는 또 달리 행동 윤리학이 밝힌 '악의 원인'은 쉽게 제거

할 수 없는 인간의 뿌리깊은 진화적 시스템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 악의 관점에 따라 악을 분류하였을 때 이는 행위자의 도덕적 행동에만 악의 문제를 귀책시키는 칸트의 도덕적 악 개념과는 또 다른, 존재 특질에 기인한 형이상학적 악 개념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라이프니츠와 셸링의 악 개념을 비교해보았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도덕적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녔다.

한편 엘러스턴과 동료들(Ellerston et al., 2016)은 레비나스 철학에 행동 윤리학의 정초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형이상학적 개념을 포함한 의미있는 정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셸링의 도덕 철학은 레비나스 철학보다 행동 윤리학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있고 악에 관하여 철학적으로 보다 풍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셸링의 도덕 철학은 마치 유혹의 윤리학(ethics of temptation)(Smith, 2021)이라 불리며 평범한 개인들이 악에 유혹되는 원인에 관해, 도덕 철학적 관점에서 악의 발생 원리를 도덕심리학적 접근(Kosch, 2021)처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셸링 철학은 악의 가능성과 악의 결과에 관한 철학적 구분을 자명하게 하고 스토아적 전통보다 악의 원인에 관한 긍정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라이프니츠의 전통적 악 개념과는 달리 인간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자유의지에 따른 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셸링철학에 정초한 행동 윤리학은 도덕적 메타인지와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개념에 각각 함의하는 바가 있었고 이들을 도덕적 겸손함의 덕으로 수렴하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메타인지라는 인지·심리학적 용어는 자기 안의 악의 원인을 도덕적 메타인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메타인지는 이와 동시에 악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답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악의 원인을 악의 결과 그 자체로 생각하여 오히려 자기 파괴나 혐오, 연민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도덕적 고통, 절망 등의 부

정적 상태로부터 내 안의 전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개념 또한 철학적 정초 없이 이루어진다면 자기 안의 제거할 수 없는 유한성에 관한 긍정적 해석이 지나쳐 악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도덕적 메타인지와 도덕적 회복탄력성의 경험과학적 용어는 적절한 도덕적 겸손함의 덕목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함의점을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도덕 교육에서 셸링적 행동 윤리학의 활용방안으로는, 먼저, 셸링이 인간의 형이상학적 본질을 자유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에서의 넛지(nudge)에 함의를 가졌다. 이는 본래 넛지의 접근을 교사의 관점이 아닌 학생의 관점으로 뒤집어 적용한 방법이였다. 행동 윤리학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도덕적 삶을 의욕함에도 불구하고 빠지기 쉬운 평범한 악을 마주하였을 때, 학생들은 교수자에 의해 넛지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넛지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 넛지는 도덕교육에 있어서 보완적인 수준에서 방법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셸링의 유기체적 시간 개념은 시간이 단지 과거-현재-미래 순으로 흘러가기만 하는 측정 변량로서 의미를 갖지 않았다. 현재는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의욕함으로 나아가는 '성장으로서의 시간'이며 현재, 과거, 미래가 유기체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로서의 시간이다. 따라서 행동 윤리학이 밝힌 악의 원인에 관해 학생들이 이미 시간적으로 지나간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상상하고 도덕적 실패를 전제함으로써 오히려 행동 윤리학의 결과를 통해 도덕적 실패를 예방하는, 프리-모템(Pre-Mortem) 기법으로 활용 가능했다.

개별적인 인간의 비도덕적 행동에 관해 기술적(descriptive) 차원으로만 남겨둘 수 있었던 초기의 행동 윤리학 접근은 현실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인간들의 비합리성과 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별적인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작업이라 볼 수도 있다. 한편, 셸링도 인간과 세계의 일체 만물을 기계적인 논리성과 보편성

의 관점이 아닌 개별자의 개연적인 모든 가능태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셸링의 동일철학은 개별적 현상에만 주목하기보다 보편성에 정초할 수 있는 일관된 학(學)을 수립하려는 시도였다. 한자경(1998: 7-8) 또한 셸링 철학의 제 1원리를 “이념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유와 연장, 이론과 실천, 자연과 자유, 이 모든 이원적 대립을 하나로 통합해 줄 마지막 원리가 바로 무제약적 자아”라 보고 셸링 철학이 “오늘날처럼 주체의 해체와 죽음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때”에 자아의 위상과 의미를 복권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를 포스트 모더니즘적 개별성이 낳은 혼돈과 파괴에 놓는 것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보편성에 정초하고자 하는 포스트 - 포스트 모더니즘적 작업을 시도한 것이라 하고 싶다.

본 연구는 주로 행동 윤리학의 도덕 철학적 정초의 부재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셸링 철학을 중심으로 도덕 철학적 정초를 시도하였지만, 아직까지 행동 윤리학이 초기 기술적 차원(descriptive)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행동 윤리학을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행동 윤리학의 구체적인 활용에 관한 연구도 더욱 필요하다. 이 점에서 생각과 직관을 둘이자 하나로 이해한 셸링의 ‘지적 직관(Intellektus Anschanung)’ 개념이나 자아의 무의식적, 무차별(Indefferenz)적, 무근거(Ungrund)적 행위를 스스로 책임지고 개선하기 위해, 셸링 철학은 무의식이나 직관에 관한 훈련이라는 방법적 논의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따른 셸링과 행동 윤리학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어질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셸링 원전

1) 국외 문헌

Schelling. F. W. J. & Georgii, E. F. (1810). *Stuttgarter Privatvorlesungen.* Müller-Lüneschloss, V. (2016). Hamburg: Felix Meiner Verlag.

_____. *Urfassung der Philosophie der Offenbarung.* Hrsg. Von Walter E. E. (1992). Hamburg: Felix Meiner Verlag.

_____ (1986). *Philosophie der Mythologi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 국내 번역본

Schelling, F. W. J. (1795). *Vom Ich als Prinzip der Philosophie oder über das Unbedingte im menschlichen Wissen.* 한자경 역 (1999a). 『철학의 원리로서의 자아』. 파주: 서광사.

_____ (1809). *Philosophie Untersuchungen üb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 und die damit zusammenhängenden Gegenstände.* 김혜숙 역(2012). 『인간 자유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탐구』.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_____. 『자연철학의 이념』. 한자경 역(1999b). 파주: 서광사.

_____. *System des tranzendentalen Idealismus.* 전대호 역 (2008). 『초월적 관념론 체계』. 서울: 이제이북스.

2. 국내문헌

1) 단행본

Bandura, A. (2016). *Moral disengagement: How people do harm and live with themselves.* 김의철·이상미·박선영·박은실 역(2018). 『도덕성의 분리와 비도덕적 행위의 정당화』. 파주: 교육과학사.

Baumgartner, H. M. & Korten, H. (1933). 『셸링: 절대자와 자유를 향한 철학』. 이용주 역(2013). 서울: 동연.

Bazerman, M. H. & Tenbrunsel, A. E. (2011). *Blind spots: Why we fail to do what's right and what to do about it.* 김영욱·김희라 역(2014). 『이기적 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De Cremer, D. & Tenbrunsel, A. E. (2012). *Behavioral business ethics: Shaping an emerging field.* 추병완 역 (2021a). 『행동 윤리학』.서울: 하우.

Dana, J., Loewenstein, G. & Weber R. (2012). In De Cremer & Tenbrunsel, A. E. (Eds.). *Behavioral business ethics: Shaping an emerging field. 302-329.* 추병완 역 (2021a). 『행동 윤리학』. 서울: 하우.

Heideger, M. (1971). *Schellings Abhandlung Üb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heit.*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최상욱 역 (1997). 『셸링』. 서울: 동문선.

Kohlberg, L. (1981).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ume 1 :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김민남・김봉소・진미숙 역 (2004).『도덕발달의 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Lind, G. (2016). *How to teach morality.* 박균열·정창우 역 (2017). 『도덕적 민주적 역량 어떻게 기를 것인가』. 서울: 양서각.

김영태 (1992). 「악에 대한 종교철학적 이해 - 유태교, 그리스도교를 중

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 연구실(편저). 『악이란 무엇인가』. 서울: 창.
노양진 (2015). 『나쁜 것의 윤리학: 몸의 철학과 도덕의 갈래』. 파주: 서광사.
슬라보예 지젝 (1996). *The Invisible Remainder.* 이재환 역 (2010). 『나눌 수 없는 잔여: 셸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에세이』. 서울: 도서출판 b.
아우구스티누스.『고백록』. 최민숙 역 (2010). 서울: 바오로딸
에드문트 후설. 『내적 시간의식의 현상학』. 이남인·김태희 역 (2020). 파주: 서광사.
이광모 (2016).『기로에 선 이성: 셸링 철학』. 서울: 용의숲.
이명곤 (2021). 『레비나스와의 1시간』. 서울: 세창출판사.
이부영 (2002). 『분석심리학: C. G. Jung의 인간 심성론』. 서울: 일조각.
정창우·석자춘 (2017). 「조너선 하이트 도덕심리이론의 도덕교육적 이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편저). 『도덕심리학의 전통과 새로운 동향』. 경기: 교육과학사.
정창우 (2020).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2판)』. 경기: 교육과학사
정창우 (2022). 『변혁적 도덕 역량 증진을 위한 도덕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천성문·이영순·박명숙·이동훈·함경애 (2015).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한나 아렌트 (1963).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역 (2017). 파주: 한길사.

2) 논문

강순전 (2000). 「쉘링의 자유론에서 악과 책임의 문제」. 『인문학연구』, 5, 1-13.

김진 (2011). 「보편적인 도덕발달론의 정초 가능성에 대한 논의」. 『철학연구』, 120, 57-81.
문경호 (2018). 「도덕교육에서 넛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교원교육』, 34(4), 193-215.
박영선 (2007). 「셸링의 인간학과 사후영혼론」. 『철학탐구』, 21, 259-298.
_____ (2009). 「셸링의 동일성철학과 유한성의 문제」. 『철학탐구』, 25, 55-85.
_____ (2011). 「칸트, 셸링 그리고 실재성으로서의 악」. 『대동철학』, 56, 1-26.
_____ (2015). 「셸링의 예술철학에서 비극의 의미」. 『대동철학』, 72, 95-117.
박종균 (2020). 「악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응-본회퍼와 아렌트의 악의 이해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52(2), 87-116.
박진 (1998). 「칸트의 반성원리들에 관하여(1)」. 『한국철학회』, 57, 167-195.
손성우 (2016). 「셸링의 자유론에서 나타난 악의 개념의 자연철학적 기원」. 『인문과학연구논총』, 37(3), 264-285.
_____ (2014). 「셸링의 자유개념과 악의 가능성」. 『인문논총』, 71(2), 43-76.
손창선 (2014). 「셸링의 동일성 철학과 융 분석심리학의 유사성 및 셸링 철학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 『철학·사상·문화』, 17, 50-77.
윤영돈·김남준 (2008). 「존재-당위의 소통문제로서 도덕 철학과 도덕심리학의 관계 정립」. 『도덕윤리과교육』, 27, 113-142.
이광모 (2004). 「악(Böse)에 관한 형이상학적 고찰」. 『헤겔연구』, 15, 149-177.
_____ (2022). 「시간의 계보학: 셸링의 시간 개념과 그 시원에 관한 고찰」. 『동서철학연구』, 105, 331-352.
이정환 (2021). 「서양 근대 자유 담론에서 악의 문제」. 『철학논집』, 65, 159-200.

정창우·석자춘 (2021). 「도덕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하이트(J. Haidt) 도덕심리이론의 적용 방안」. 『도덕윤리과교육』, 72, 1-27.

조영준 (2009). 「셸링 자연철학의 르네상스-독일문헌을 살펴본 최근의 연구 동향」. 『대한철학회문집』, 110, 173-196.

진교훈·윤영돈 (2003). 「융 심리학의 인간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사대논총』, 66, 73-104.

최신한 (1996). 「셸링의 자유와 자연」.『철학 연구』, 53, 55-77.

최윤정·추병완 (2022). 「도덕적 메타인지의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77, 155-187.

추병완 (2021b). 「도덕 교과 교수·학습에서 행동 윤리학의 적용 방안」. 『윤리연구』, 133, 1-26.

_____ (2022). 「행동 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평가」. 『도덕윤리과교육』, 76, 161-195.

한자경 (1998). 「셸링철학에서의 자연과 자아」. 『한국철학회』, 56, 63-89.

홍유신 (2016). 「마경(魔境)과 프로이드 자아방어기제의 상관성 연구」. 『불교문예연구』, 301-331.

3) 기타

오세훈 (2019. 2. 26.). 「방시혁, 서울대 졸업식서 “나의 원동력은 분노” 파격축사」.『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6178436116.

3. 국외문헌

1) 단행본

Camerer, C., Loewenstein, G. & Rabin, M. (2004). *Advances in behavioral economics*,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s.

Chugh, D., Bazerman, M. H. & Banaji, M. R. (2005). *Bounded ethicality as a psychological barrier to recognizing conflicts of intere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74 - 95.

Colby, A. & Damon, W. (1992). *Some do care: Contemporary lives of moral commitment.* New York: Free Press.

Espositio, J. L. (1977). *Schelling's idealism and philosophy of nature.* Bucknell University Press.

Gibbs, J. C., Basinger, K. S. & Fuller, D. (1992). *Moral maturity: Measuring the development of sociomoral reflec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Kosch, M. (2021). Moral Psychology in Schellings Freiheitsschrift and Stuttgarter Privatvorlesungen. In Thomas Buchheim, Thomas Frisch & Nora C. Wachsmann (Eds.). Schellings *Freiheitsschrift - Methode, System, Kritik.* Tübingen: Mohr Siebeck.

Messick, D. M. & Tenbrunsel, A. E. (Eds.)(1996), *Codes of conduct: Behavioral research into business ethics*. New York: Russel Sage.

Milgram, S. (1974). *Obedience to authority: An experimental view.* New York: Harper and Row.

Monin, B. & Jordan, A. H. (2009). The Dynamic moral self: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Navaez, D. & Lapsley, D.(Eds.). *Personality, Identity, and Charact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1- 354.

Ostaric, L. (2014). *Interpreting Schell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wer, F. C., Higgins, A. & Kohlberg, L. (1989). *Lawrence Kohlberg's approach to moral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Rest, J. R.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Rest, J. R., & Narvaez, D. (1994).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ical and applied ethics.* Hilsdale, NJ: Lawrence Erlbaum.

Rushton, C. H. (2018). *Moral resilience: Transforming moral suffering in healthca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anovich, K. E. (2009). *Distinguishing the reflective, algorithmic, and autonomous minds: Is it time for a tri-process theory?.* In two minds: Dual processes and beyond. 55-88.

Williams, R. N. & Gantt, E. E. (2002). Pursuing psychology as science of the ethical: Contributions of the work of Emmanual Levinas. In R. N. Williams & E. E. Gantt(Eds.). *Psychology for the other, Levinas, ethics and the practice of psychology.*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1-31.

Wirth, Jason M.(Eds.) (2005). *Schelling now: Contemporary readings.* Indiana University Press.

2) 논문

Ayal, S., Gino, F., Barkan, R. & Ariely, D. (2015). "Three Principles to REVISE People's Unethical Behavior".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6), 738-741.

Ashforth, B. E. & Anand, V. (2003). "The normalization of corruption in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5, 1 - 52.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 - 374.

Bandural, A. (2002). "Se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2), 101-119.

Baucus, M. S. (1994). "Pressure, opportunity and predisposition: A multivariate". *Journal of management,* 20(4), 699-721.

Cheruvalath, R. (2021). "Does studying 'Ethics' improve engineering students' meta-moral cognitive skills". *Science & Engineering Ethics,* 25, 583-596.

Kouchaki, M. & Smith, I. H. (2014). "The morning morality effect: The influence of time of day on unethical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5(1), 95 - 102.

Ellertson, C., Ingerson, M. & Williams, R. (2016). "Behavioral Ethics: A Critique and a Proposal".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8(1), 145-159.

Feldman, Yuval. (2017). "Using Behavioral Ethics to Curb Corruption". *Behavioral Science & Policy,* 3(2), 87-99.

Gino, F., Ayal, S. & Ariely, D. (2009). "Contagion and differentiation in unethical behavior: The effect of one bad apple on the barrel". *Psychological Science,* 20(3), 393-398.

Gino F. (2015). "Understanding ordinary unethical behavior: why people who value morality act immorally". *Behavioral Sciences,* 107-111.

Jones, T. M. (1991). "Ethical decision making by individuals in organizations: An issue-contingent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 366-395.

Matthew T. Luth, Carol L. Flinchbaugh & Jennifer M. Miles (2022). "Help! My Team Failed: How Conducting a Premortem Can Influence Group Perceptions and Outcom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20, 1-11.

Lu, J. G., Lee, J. J., Gino, F., & Galinsky, A. D. (2018). "Polluted morality: Air pollution predicts criminal activity and unethical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9(3), 340 - 355.

Lawrence, J. (2007). "Schelling and Levinas". *Levinas Studies,* 2, 175-196.

Miller, D. T. & Ratner, R. K. (1998). "The disparity between the actual and assumed power of self-inter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53.

Moore, C. & Gino, F. (2015). "Approach, abiltiy, aftermath: A psychological process framework of unethical behavior at work". *The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9(1), 235-289.

Moshman, D. (2009). "Identity, Morality, and Adolescent Devlopment". *Human development,* 52(5), 287-290.

Padmanabha, H. C. (2020). "Metacognition: Conceptual Framework". *I-Manger's Journal on Educational Psychology,* 14(1), 1-11.

Prentice, R. (2014a). "Teaching behavioral ethics". *Jounal of Legal Studies Education,* 31(2), 325-365.

Prentice, R. (2014b). "Behavioral Ethics: Can It Help Lawyers Be Their Best Selves?".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29(1), 35-85.

Reynolds, S. J. (2008). "Moral attentiveness: Who pays attention to the moral aspects of life?". *Jounal of Applied Psychology,* 93(5), 1027.

Rodriguez, P., Uhlenbruck, K., & Eden, L. (2005). "Government corruption and the entry strategies of multinational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0(2), 383 - 396.

Schwartz, M. S. (2017). "Teaching behavioral ethics: Overcoming the key impediments to ethical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41(4), 497-513.

Smith, D. (2021). "An ethics of temptation: Schelling's contribution to the freedom controversy".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29(4), 731-745.

Smith, I. H. & Kouchaki, M. (2018). “Moral humility: In life and at work”.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8, 77 - 94.

Smith, I. H. & Kouchaki, M. (2021). “Ethical Learning: The Workplace as a Moral Laboratory for Characte Development”.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15(1), 277-322.

Tenbrunsel, A. E. & Messick, D. M. (2004). “Ethical fading: The role of self-deception in unethical behavior”. *Social Justice Research,* 17(2), 223 - 236.

Tenbrunsel, A. E. & Smith-Crowe, K. (2008). “Ethical decision making: Where we've been and Where we're going”. *The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2(1), 545-607.

Treviño, L. K. & Weaver, G. R. (1994). “Business ethics: One field or two?”. *Business Ethics Quarterly,* 4, 113-128.

Veinott, B., Klein, G. A. & Wiggins, S. (2010).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eMortem technique on plan confidence”. *Proceedings of the 7th ISCRAM Conference,* Seattle, 1-9.

Zhong, C., Bohns, V. K. & Gino, F. (2010). “Good lamps are the best police: Darkness increases dishonesty and self-interested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1(3), 311 - 314.

Zimbardo, P. (1969). “The psychological of evil: A situationist perspective on recruting good people to engage in anti-social acts”.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11, 125-133.

3) 기타

Klein, G. (2021. 1. 14.). “The Pre-Mortem Method”. *Psychology Today.*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seeing-what-others-dont/202101/the-pre-mortem-method.

Abstract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behavioral ethics: Focusing on F.W.J. Schelling's concept of evil

Chang yong Lee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lternative to the behavioral ethics' problem of 'the absence of moral philosophical foundation'. To this end, it presents the possibility of meaningful sharing between behavioral ethics and Schelling's evil concepts and derives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behavioral ethics founded on Schelling's moral philosophy.

Specifically, the moral philosophical foundation work of behavioral ethics should be able to solve the following five tasks.

It should, first, be a moral philosophy that can share both the behavioral ethics approach as well as their perspective on the 'irresistible' and 'malleable' evil concepts of ordinary individuals. Secondly, it should be another framework of moral philosophy that does not draw from utilitarian, deontologist, or virtue ethicist theory. Third, it should philosophically distinguish and interpret 'the result of

evil' and 'the cause of evil'. Then, fourthly, in particular, it should be possible to interpret the 'cause of evil' in a balanced and universal way. And lastly,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abl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 of evil.'

The main concepts of Schelling's moral philosophy, which are considered "evil metaphysics", but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existing moral education community, can accordingly,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previous five tasks:

(1), The 'irresistible' and 'malleable' evil concepts of behavioral ethics share the same meaning with Schelling's 'metaphysical' and 'dynamic' evil concepts. This Schelling's evil concepts can be compared with Hannah Arendt's theory of 'the banality of evil.' because behavioral ethics focuses on the ordinary individual's evil. However, Arendt's concept of evil cannot be equated to behavioral ethics' conception of evil because Arendt's is an "overcomeable evil" through an individual's will, thoughts, or behavior.

(2), Schelling's identical philosophical attempts to go beyond idealism and realism as a traditional philosophy is the alternative framework of original moral philosophy that can contain behavioral ethics.

(3), In "Indifference(Indefferenz)" Schelling understands "evil as a possible state" as the productive basis of creativity, and thus develops a philosophy that can view human finiteness postively. Unlike the Stoic tradition, these discussions distinguish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evil" and "cause of evil" by not regarding human's negative phenomenon or under the phenomenon of passion as solely negative.

(4), In comparison to Schopenhauer's or Hume's concept of evil, Schelling's is a more balanced interpretation.

(5) Unlike traditional evil concepts such as Leibniz, Schelling

provides the basis for mor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n individual's free will for immoral or unethical behavior by insisting on the reality and activity of good and evil.

Behavioral ethics based on the Schelling moral philosoph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fields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First, it has implications for moral meta-cognition. Schelling's explanation of the principle of evil and his 'Potency(Potenz)' structure could be shared with the meta-cognition's meaning and structure, and based on this, We should constantly meta-cognize the cause of evil that behavioral ethics wants to reveal. Second, behavioral ethics has implications for "resilient behavioral ethics" by viewing human finiteness as a possibility for creativity rather than "destructive behavioral ethics" which holds that students must eliminate the causes of evil and treat human finiteness only as passive concepts. Third, this concept of moral metacognition and the moral resilience concept converge on the virtue of moral humility. Finally, behavioral ethics based on Schelling moral philosophy can be used in specific moral education situations. First, the concept of nudge,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wide-ranging behavioral ethical utilization, can be used as a methodological alternative that students can use when they are motivated to moral life or behavior by their own free will rather than relying on their teacher's perspective on good behavior. Secondly, according to Schelling's concept of organic time, the behavioral ethical approach can be used as an educational prescription for 'pre-mortem' of future immoral behavior. Lastly, behavioral ethics as an approach to revealing the 'cause of evil' has its own limitations, as according to Schelling's Potenz theory, the good results from not the 'cause of evil' but instead the 'cause of good.'

keywords : Behavioral Ethics, Schellling, the evil, the cause of evil , Potency(Potenz), Indifference(Indefferenz)
Student Number : 2021-29422